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45호 2014년 9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 703-462-9083 Fax.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공순옥(간호 66) 미 주류사회 담당 부회장의 지역사회 봉사기

주류사회 참여는 한인 권익의 지름길

Columbia 시 접촉, Howard 한인노인센터 개설 지역사회 교류와 봉사는 동창회와 모교홍보에 최선

Maryland 주 Howard County (Baltimore시 남쪽)에 다년간 살면서 그동안 경험한 지역사회 참여와 봉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한다.

미국에 온지도 벌써 40년이 넘었고 우리 동포사회보다는 주류사회에서 일한 경험 밖에 없는 나한테 동문 오광동(공대 52) 노인회 회장이 "Howard 노인회에 참여해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접촉해오셨다.

나 자신도 그 동안 벌써 노인애 속하고 미 주류사회 노인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느라 노인 복지국, 군수 자문, 그리고 지역 병원의 이사 등으로 봉사하는 중이었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동포 노인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어떻게 필요한지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Motivation and Vision** = 하지만 어떤 지역사회 활동을 막론하고 우선 자신이 의미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자신의 마음에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몹시 망서렸다. 그러면서 오광동 회장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보면서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나도 참여



←공순옥 부회장(오른쪽)이 오광동(공대 52) 노인회장과 함께 '하워드 한인 노인 센터' 현판을 달고 있다.

도 옛날 식으로 손으로 모두 꼼꼼히 처리하시면서 무엇보다 후세 동포 노인들에게 남겨 동포 노인들이 계속해서 주류사회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고 싶어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옆에서 보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고 따라서 나 자신의 바쁜 스케줄을 정리해서 우선 동포 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선배님께 우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로 했다.

▶한인 노인회 사무실 마련

과 입주 = Howard 한인노인회는 사무실이 없어 오광동 회장님이 혼자 개인 전화를 받으시면서 마땅한 편지를 받을 곳도 없었다.

옆에서 보기가 안타까워 근처에 있는 미국 개인재단(Lorien Foundation, Director Jim Hummer; Senior Welfare Manager Dayna Brown)에 이야기 하면서 동포 노

를 해야겠다는 의무감과 동기가 생겼다. 우선 연세가 많은 분이 짧은 영어로 여기 저기 다니시면서 한국 노인들을 대변하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부족함이 있으나 우선 어떤 일이 노인들한테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따라서 연구해 재정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류 정리

안성민(미대 91) 작가

폴락-크래스너 재단 그랜트 수상

민화기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독특한 작품세계를 이룩한 작가 안성민(사진) 동문이 2014~15년 폴락-크래스너 재단의 그랜트 수상자로 선정됐다.

폴락-크래스너 재단은 미국을 대표하는 추상표현미술의 대가 잭슨 폴락 사후 그의 미망인이자 미술가인 리 크래스너가 1985년 설립한 미술계의 가장 저명한 재단 중 하나로 재능 있는 작가들의 작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안 작가는 "7월 내내 한국에서 개인전을 준비하며 마음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재단의 그랜트를 받게 돼 너무나 기쁘고 제작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1년 동안 대작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안 작가는 모교 미대와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한 후 메릴랜드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에서 미술 석사학위(MFA)를 받았다. 현재 퀸즈미술관에서 매주 토요일

알림

미주 동창회 우수작품상 모집

미주 동창회에서는 미주 동문들의 건전한 문학작품 활동을 한층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문학 작품을 응모 받아 선정,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미주 동문 여러분의 많은 호응을 바랍니다. (예초 마감일을 8월 15일로 했으나 연장해서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심사 결과 발표 역시 내년 2월로 연기합니다.)

▶**작품 종류** = 시·수필(체형기도 무방)·공트 등.

▶**수량 및 원고량** = 시는 5편 이상, 수필이나 공트는 2편 이상으로 각 편당 letter(A-4)용지에 words process 10 point로 4~5매 이내(필사본은 사양함).

▶**심사** = 모교 출신 등단 문인과 동창회보 편집위원회

▶**응모자격** = 재미 서울대 동문회원으로 회비 납부 요함.

▶**시상** = 당선작은 본 동창회보에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과 상패를 수여.

▶**기타** = 원고는 미주 서울대 동창회로 우편으로 보낼 것. 봉투에 '우수 작품상 응모'라고 명시할 것.

▶**주의** = 응모 작품은 지금까지 타 언론이나 잡지, 인터넷 매체 등에 발표 또는 게재되지 않은 작품을 원칙으로 함.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성명(영어와 한글), 졸업 단과대학 및 입학연도, 전화번호, 가능하다면 e-mail주소를 명시할 것.

▶**마감일** = 2014년 12월 31일.

▶**보낼 곳** = 미주 동창회 사무실(1952 Gallows Rd., # 206. Vienna VA. 22182

▶**문의** = 미주 동창회 사무실. 전화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결과 발표** = 가능한 경우 본 동창회보 2015년 2월호에 심사 결과를 발표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인들이 모여서 다른 노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County에 있는 Human Rights Office의 도움을 받아 노인회를 대변하기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나서 앞에서 말한 미주류 사회의 개인재단 (Lorien Foundation)에서 사무실을 주기로 했으며 사무실에 필요한 가구

와 컴퓨터 등은 내가 담당하는 조건으로 하워드 한인노인회에서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개설할 수 있었다.

<2면에 계속>

<기획> 이순신 ... 4~5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645



민화 클래스를 이끌고 있다. 안 작가는 2013년 미주 한국일보 특별후원의 알재단 미술공모

전 대상 수상 작가다.*** <미주한국일보>

동창회비 30% Campaign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동창회 운영에는 동창회비를 비롯한 각종 후원금이 원동력입니다. 매년 미 전역의 동문 10명 중 3명(30%) 이상이 동창회비를 내 주셔도 미주 동창회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년도 동창회비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 회원 영입 Campaign

미주에 거주하는 서울대 동문들 중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서울대 동창회를 모르는 동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위에 있는 그러한 동문들을 영입하여 동창회 행사에 참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5차 SNU Homecoming Day 참가자 모집 안내

2014년도 제35차 'SNU Homecoming Day'는 10월 19일(일) 오전 9시부터 모교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시작됩니다. 예년과 같이 미주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으며 당일 오전 9시에 모여 교정 접수처에 등록 후 모여서 미주 동창회 회장단과 함께 신입 서울대 총장을 예방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입 총장 예방 후 Homecoming Day 행사장으로 옮깁니다. 당일의 점심은 총동창회에서 제공합니다. 숙식처 option들은 한글 google(https://www.google.co.kr)에서 '서울 호텔'을 입력하면 서울시내의 각종 호텔 정보를 볼 수 있다.***



모교 오연천 전 총장 뉴욕 방문

9월부터 스탠포드대 석좌교수

모교의 오연천 전 총장이 지난 8월 26일 서울대 미주재단과 뉴욕 동창회를 방문하였다. 이 날 미주재단 이만택(의대 52) 이사장의 초청으로 맨해튼 32가 온누리 식당에서 뉴욕 동창회의 임원진과 함께 오찬 및 간담회를 가진 오 전 총장은 미주재단과 뉴욕 동창회를 통해서 모교에 온 후원금이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지난 4년간의 임기 중 모교 서울대를 법인화 하였고, 목표로 하였던 후원금 4천억 원을 훨씬 초과해서 모금을 한 큰 성과를 견우었던 오 전 총장은 모금 과정과 모교와 얽힌 후원자들의 각종 사연, 그리고 법인화 이후 최초의 총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오 전 총장은 서울대의 발전기

금을 적극적으로 모으는 방안과 해외 동창회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날 모임에는 이만택 미주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뉴욕 동창회 광승용 회장, 심인보 이사장, 미주 동창회 이진구 전 회장, 뉴욕동창회 정인식·강 에드·김창수·박상원 전 회장, 이원재 미주재단 총무가 참석하였다. 한편 오연천 전 총장은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석좌교수로 근무할 예정이다. 오연천 전 총장은 The Keret Fellowship Professor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가치관 정립'이란 주제로 연구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 = 김창수(약대 64)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동문 한시 해설 감상

臨死賦絶命詩(임사부절명시)

雲山 윤병석(사대 51)CA

擊鼓催人命
북소리 울려 퍼져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 데

回首日欲斜
고개를 돌려보니
날은 저물어가는구나

黃泉無一店
황천 가는 길엔
주막 하나 없는데

今夜宿留家
오늘 밤은 뉘 집에서
머문단 말인가

*세조 때 사육신(死六臣) 중 한 명인 집현전 학자 성삼문은 죽음의 길목에서도 두려워 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놀랍게도 황천길에 주막이 없으니 어떤 집에서 묵을지 염려까지 한다.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성삼문은 유머까지 섞어 당차고 배포 넘치고 폼 나는 시 한 수를 완성했다. '임사부절명시(臨死賦絶命詩)'는 신하의 충절이 그대로 드러난 대장부적 기질이 넘치는 시로 평가받는다.***

동문 시 감상



서윤석(의대 62) VA 현대 시인협회 회원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

오늘의 시(詩)

오늘의 시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거품을 일으키는 폼솜 물살에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밀려가는 것을 보았다

손장난에 중독된 아이들

아이패드와 빼앗기고
귀머거리 되는 사람들
아이폰에 내주고
이 세상의 시들은
어디에 숨었는가

시가 실린 책들 사라지고
너그럽던 공짜 책방도 문 닫고
시를 실은 조각배는
착한 학생들 버리고
이 가을 어디로
밀려가는 것일까?

한 오백년이 훨씬 지나
달나라에 이민간
눈알 크고 손가락 긴 아이들
고향 땅이 그리워
한 줄 문자를 보낼 때

“지구야 지구야 푸른 지구야”
노래할 때
그 때나 방긋이 웃으며
다시 오려나 ***



<면에서 계속>

▶미국인 Senior Center 이용 = 미국에서는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Senior Center가 잘 돼 있다. 하지만 우리 한인 노인들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미국의 놀이나 시설, 미국 노인 센터를 흡족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한인 노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 노인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원하는 때 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노인들의 요구가 많았다. 아직 한인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노인 센터를 준비하기에는 재정적으로나 infra structure가 돼 있지 않아 독립적으로 운영할 조건이 못되기 때문에 이곳 지역사회인 Columbia City (Howard County 서쪽 도시)에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Columbia시는 독립적으로 노인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인들은 혜택을 받는 분이 별로 없고 한국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세금을 정확하게 낸다는 이유를 들어 한동안 로비를 했다. 하지만 Columbia시에 있는 이사들이 “형평성 때문에 한인들 만

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기는 어렵고, 대신 grant를 줄 테니까 grant 자금으로 노인들이 필요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을 해주어 grant를 신청해서 한국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장소를 얻었으며 따라서 한국 노인들께서 몹시 기뻐하고 만족해 하셨다. ▶배운점(Lessons Learned) = 역시 우리 한인들은 한인들 사이에서만 친목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하고 주류 사회에서는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개인생활을 하는 분이 많아 지역사회 참여도가 너무 부족하다. 지역사회 참여는 교회 활동과 의미와 결과가 다른 것을 알지만 많은 한인들이 주류 사회 참석을 거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사실은 미주류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하워드 노인회도 역사는 몇 년이 안 되었지만 그동안 미주류 지역사회의 참여가 적어서 주류사회로 부터 별로 많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았다. ▶앞으로 할일(Things-To-Do) =

Howard 노인회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이지만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서 지역 선거에서 당선되는 policy maker(정책입안자)에 당당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 군수(County Executive)로 출마하는 Courtney Watson과 town meeting을 해서 한인 노인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영어 때문에 겪는 고충과 문화적 차이로 마땅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하루 하루를 보내는 한인 노인들을 위해, 그리고 남은 인생을 즐겁고 건강하게 떠나시기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County Government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한인 노인들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다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지역 사회 참여로 미 주류사회에 동창회와 모교를 알리자 = 미국 각지에 살고 있는 다른 동문들도 한인사회는 물론 미주류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무엇인가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질적인 삶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면 이것이 우리 서울대 동문들의 긍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미국사회에 서울대 동창회를 알리고 따라서 한국의 서울대를 알릴수록 모교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필자 공순옥(Sue Song, 간호대 66)> 약력: Adjunct professor-University of Maryland; Consultant for Lorien Health system; Board of Trustee for Howard Gen Hospital; Board of Health for Howard county. ***

차 례

- 3.반기문 총장 중국 난징대 강연/ 개시판/<동문 시조감상>삼우가/ 모교 약대 인턴십 학생 카디널 헬스 방문
- 4-5.<기획 이순신>영랑 그리고 이순신/ 모교 공대 핵물리학자들이 이순신 연구하는 이유/세월호 시대가 이순신 원해
- 6-7.<모교소식>두산그룹 박용현 전 회장 서울대 신입 이사장/ 모교 자전거 코스 대인기/ 모교 합격자 강남이 강북의 2배/ KBS정다은

- 아나운서 미모와 재치로 큰 인기/ 그린 바 이오 첨단 연구단지 평창 캠퍼스 준공/ 서울대 병원 의사들 중동행 러시/ 후기 졸업생 대표 권은진 동문
- 8.<생활수상>정다운 옛고향/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동문 시 감상>나의 나무
- 9.<8.15 69돌>60여년 전 이야기<
- 10.<동기 추모사>고 한성학 학형에게/<부군 추모사>사랑의 편지/ 세 나무 이야기
- 11-13.미주 동문 동정
- 14-19.미주 각 지역 동창회 소식

- 20-21.<관악세대 아크로 광장>미국군대, 로마군대, 신라군대/ 재미있는 일로 꿈 이룬 사람들/ 내면생활 Healing의 첫걸음/ 새정치 현 정치/고국 군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건강 의학>감기는 만병의 근원일까
- 22.<영화 이야기>Mademoiselle Chambon/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일 날은
- 23.<My Journey to...>아메리칸 드림 50년<4>
- 24.<달려 속 주인공 이야기>3> 5달려 지폐의 에이브러햄 링컨
- 25.<여행기> 50일 동안의 미 대륙 횡단

- 26.<교육칼럼>한국학교의 학생들/<동창회고> 서울대 역사자료를 찾습니다
- 27.동창회비 납부명록
- 28-29.동문업소록, 편집후기
- 30.광고,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 31-32. 광고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것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반기문(외교 63) UN사무총장 중국 난징(南京)대 강연

“나도 도민준 닮았다” 농담

난징대학 학생들 박장대소

반기문(외교 63) UN사무총장이 “나도 도민준과 닮았다”는 깜짝 발언을 해 화제다. 도민준은 올 초 방영된 우리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배우 김수현이 분한 역할로 중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 열풍을 견인하고 있다. 반기문 총장은 지난 8월 16일 제 2회 유스 올림픽이 개막한 중국 난징의 난징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반 총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도민준이 아니라 반기

문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둘이 닮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박장대소했다고 한다. 반 총장의 이번 발언은 중국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드라마 ‘별~그대’를 염두에 두고 자신 역시 한국인임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내인 펑리위안 여사가 지난 7월 “시 주석이 젊은 시절 도민준을 닮았다”고 언급해 중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점을 상기해 둘 사이에 긴밀함을 드러낸 것으로

←자신도 도민준을 닮았으며 중국 청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한 반기문 사무총장이 난징대학에서 선물한 기념패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중국신문 제공>

풀이된다. 지난 2010년 10월 난징대학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는 반 총장은 이날 ‘청년들의 참여와 공동된 발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반 총장은 중화민국 초의 계몽 사상가인 량치차오(梁啟超·양계초)가 제창한 ‘소년 중국설’의 ‘소년이 강하면 나라가 강하고 소년이 진보하면 나라가 진보한다’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중국 청년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대 중국 청년들이 중국몽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높게 평가한다”며 “중국 청년들이 전세계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들의 생기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보여준다”며 “지금이야말로 전세계 청년들이 세계 발전을 위해 움직일때”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중국 청년들은 시야를 넓히고 세계 최대 경제체에 상응하는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이날 시진핑 주석, 토마스 바흐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장 등과 함께 난징 하계 유스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했다. *** <서울 = 뉴스1>

게시판

미주 동창회 제14대 회장 후보추천 공고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 중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 - 제14대 동창회장(임기 2017.7 ~ 2019.6) -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후보추천 마감 = 2014년 12월 31일.

▶회장후보 공약발표 = 2015년 1-5월 중 동창회보에 선거공약 발표.
▶2015년 6월 = 제24차 전국평의원회의에서 투표. 차차기 회장 확정.
서울대 미주 동창회 인선위원장 김은중 (제11대 미주 동창회장) e-mail : edk@npcims.com. 전화 310-667-2350 ***

의대 미주 동창회보 ‘時計塔’ 창간 40주년

서울대 의대 미주 동창회(회장 서인석·의대 73)가 발행하는 ‘時計塔’이 창간 40주년을 맞았다. ‘시계탑’은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와 같은 타블로이드판 총 16면으로 지난 1974년 6월 처음 창간됐다. 의대 동창회는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행사를 다음과 같이 실

시한다.
<Annual Ball>
11월 22일(토) New Jersey에서 뉴욕 동창회와 공동으로 개최.
<2015 32nd Convention>
연례 학술 행사인 Convention을 내년도인 2015년에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New Jersey의 Teaneck에서 개최.***

남가주 동창회 후반기 행사

▶공대 동창회 골프대회 = 10월 4일(토) Westridge Golf Club에서.
▶관악연대 가족 캠핑 = 10월 4일(토) 오후 2시 15551 Cajon Blvd, San Bernardino, CA. 예술 사랑 캠핑장에서.

▶원로의 밤 = 10월 9일(목) 오후 6시 30분.
▶충동창회 골프대회 = 10월 25일(토) Westridge Golf Club에서 남가주 총동창회 골프대회.
▶공대 송년 모임 = 12월 12일(금) 오후 6시 30분.***

필라델피아 동창회 새 회장단

필라델피아 동창회가 신임 회장단을 다음과 같이 선출했다.
▶신임 회장 = 전방남(상대 73) jeonbana@gmail.com.
▶수석부회장 = 유영진(경영대 85). 학술, 홍보, IT 담당.

xyy23yoo@gmail.com ▶부회장 = 김상동(공대 77) 회원관리, 소통 및 총무 담당 (610) 757-5629, bobskim@gmail.com ▶부회장 = 서원혁(공대 94) 재정, 회계담당) whs@temple.edu ***

Homepage활성화 위한 Strip Ad.모집

미주 동창회는 기존의 Homepage를 대폭 수정하여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하도록 만들었으며 자체적인 운영 비용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Monthly updates and maintenance를 위한 안정적인 비용 확보를 위하여 Homepage에 strip 광고를 넣기로 하고 광고 기증을 해주실 동문들은 물론 동창

회와 관련 있는 사업체와 광고 계약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동문들과 관련 사업체에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손재욱 IT 위원장 (267-736-2991, jhaahs@timhaahs.com, 267-736-2992)과 오인환 회장 (ioh0858@comcast.net, 전화 301-775-3919)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랑스런 동문 추천 공고

각 지역 동창회 회원들 가운데 서울대 동창회 혹은 모교의 명예를 높인 동문들을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따라서 요약하여

사진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실 곳은 미주 동창회 정평회 사무총장 (301-661-9227, paulchungpe@gmail.com)**

시카고 동창회 장학생 모집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호범·상대 69)가 다음과 같이 2014년도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인원 = 5-10명
▶장학금액 = 1인당 1천 달러
▶응모자격 = 시카고 및 인접지역 거주자 (Permanent address)

로 High school Senior,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유학생 포함)
▶마감 = 2014년 9월 30일
▶응모 요강과 원서 =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 웹사이트 www.snuachicago.org ***

제30회 탈북 난민돕기 음악회

뉴욕 예술가극 연구회(회장 서병선·음대 65)가 두리하나 USA와 공동으로 제30회 탈북 난민돕기 음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시 = 10월 5일 오후 6시
▶장소 = JHS 189 Auditorium(주님의 교회) Sanford Ave. &146 St. Flushing, NY 11355
▶후원 = 한국일보 ·TKC-TV·J&A

동문 시조 감상



정홍택(상대 61) PA 동창회보 논설위원

삼우가(三友歌)

칠십의 길 휘적휘적 석양에 걸어가네 혼자 가면 외로울 길 반려 있어 한걸음 길 고개정상 소나무여 그늘만 길리누나

그림자 늘린다고 지는 해를 잡을손가 소슬바람 땀 닦으며 지나온 길 돌아보다 시야를 가린 것은 구름이나 눈물이나

길 곁에 우물정자 어이해 못보았나 쪽박을 내리워서 갈증을 풀고 보니 육신에는 약수 냉수 인생에는 책과 친구

살아온 길 험했다고 불평일랑 하지 말자 동행친구 있었으니 그게 바로 妻友書라 갓끈 집신 다시 매고 끝날까지 같이 가리**

모교 약대 인턴십 학생들 카디널 헬스 방문



“의사와 약사 협력 배우러 미국 왔어요”

캘리포니아 한인약사회(회장 유창호)가 후원하는 ‘미국 지역 약국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지난 8월 7일 의약품 유통업체 ‘카디널 헬스’를 방문했다.

의사-약사 협력 선진 의료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미국 지역 약국에 4주간 과전실습을 나온 모교 약대학학생 10명은 “의사와 약사가 약에 대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배워 향후 사회에 나갔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주 한국일보>

←모교 약대 인턴십 학생들이 카디널 헬스 직원들과 기념촬영.

<기획> 이순신

우리 고국은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극심한 충격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을 겪어오고 있다. 마치 국민적 trauma같은 현상이다. 이 같은 때 개봉된 영화 '명량'은 국가적 위기에서의 참된 지도자 역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으로 국민적 trauma 치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방화사상 최고의 흥행기록을 경신한 것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내원(사대 58) 동문의 글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명량’, 그리고 이순신



이내원(사대 58) VA 재미 한국학교협의회 전국 이사장 역임

한국의 해협 중에서 가장 물결이 사납다는 명량처럼 최근 개봉한 이순신 영화 '명량'이 돌풍을 일으키며 한국 영화의 신기록을 연달아 고쳐 쓰고 있다고 한다. 10여년 전에는 작가 김훈의 이순신 소설 '칼의 노래'가 출판계를 강타했고 이어서 방영된 KBS의 '불멸의 이순신'이 방송 시청률을 휩쓴 바 있다.

왜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잊을만 하면 다시 되돌아 나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에 큰 복을 두드리시는 것일까? 필자는 아마도 그 첫째가 우리의 사회심리적 욕구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당파싸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 임진왜란, 이순신의 시대로부터 400여 년이 흘렀지만 사육과 편가르기 당과 싸움에 빠져 막상 나라의 바탕인 국민을 외면하던 이순신 시대의 위정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오늘날의 우리 정치 지도자를 보며 충무공 이순신을 한없이 그리워 하는 것은 아닐까?

둘째, 이순신의 새로운 인간미에 친근감을 느끼며 신선한 충격을 받는 듯 하다. 1940-50년대 초기 이순신 선생님이 공헌한 이순신 승모사업에서는 해방 후의 반일 정서상 이기고 지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이순신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반열에서 멀리 떨어진 '성웅 이순신' 이미지로 고착화하여 친근하게 느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혁명정부의 이순신 승모 선양운동을 계기로 이순신 연구 조명 사업이 '난중일기' 등 실기 위주로 재편되면서 '인간 이순신'으로 우리 곁에 친밀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몇년 전 작고하신 한국의 대문호이며 소설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 선생은 2004년 8월, 50년 만에 고향 통영에 들어가 "이순신은 개인의 욕심이나 영광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백성의 편안한 삶이 침탈당할 때 해 항거한 선비다. 그는 무장이 아니면 시인이자 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순신은 우리 시대가 도달할 인격의 전형이다"라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큰 스승으로 가깝고 새롭게 재정립한 바 있다.

이보다 10년 앞서 1994년 '소설 이순신'을 쓴 박성부 선생은 글머리에 '인간으로나 군인으로나 이만한 인물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가망은 없다. 그는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인간 완성의 한 전형이다'라고 절세의 인간완성의 표본으로 배움의 대상으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없이 높고 먼 숭모의 대상에서 본받고 따라야 할 지극한 스승으로 돌아오신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위기에 처하여 고뇌하는 인간 이순신이 영화의 전반을 지배한다면 후반은 그동안 어렵기만 하던 해전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 기법으로 당시의 선박, 갑옷, 화약 무기 등을 충실하게 고증하여 박진감 넘치게 연출하여 역사 교육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니 여간 반갑지 않다.

“인간으로나 군인으로나 이만한 인물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가망은 거의 없다. 그는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절세의 인간 완성 가운데 한 전형이다”

한국인으로서 '이순신' 이름 석 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대다수의 한국인이 초등학교 때 배운 이순신으로 "나는 이순신을 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새롭게 연구 발표된 이순신을 만나지 못한 탓도 있겠으나 자기 것을 아끼고 살피지 않는 민족적 타성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인들도 깊이 존경 = 1920년대 일본 해군 전략가 가와다 고오(川田功)는 '포탄 잠 재우기'라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다.

'도고(도고 헤이하치로, 일본의 군신, 1905년 노일해전을 승리로 이끔)가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면 그 발가락 한 개에도 못 따라간다. 이순신에게 벨트와 같은 거국적인 지원과 그 만큼의 풍부한 무기와 함성을 주었다면, 우리 일본은 하루 아침에 점령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대단히 실례인 줄 알지만, 한국인들은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고 떠받들지만 할 뿐 그 분이 진정으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일본인보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기술한 것이다.

이 평가는 벌써 92년 전의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그대로 한국 국민의 이순신에 대한 무지를 통렬하게 질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순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뛰니뛰니 해도 영상물의 인기에는 내용과 연출의 극적인 요소가 절대적일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 주연'은 최고 흥행의 절대 요소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순신의 54년 일생 자체가 삶과 죽음, 고난과 극복의 반전을 되풀이한 한 편의 대하사극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이번 영화 '명량'의 주제인 '명량대첩'은 수많은 이순신 해전 중에서도 독보적이며 불가사의한 극적인 요소로 가득찬 이순신 해전의 최고 걸작이다. 미국의 이순신 정신 인성 역사 교육 운동도 위성탄을 기반으로 이룩된 것이니 자녀들과 함께 신나는 재미와 역사공부를 함께 하는 바람직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명량해전 = 이순신이 마지막 결전의 장소로 선택한 전장은 일방의 상상과는 달리 명량의 가장 좁은 물목(현재 진도대교가 있는 자리)이 아니고 그 곳을 막 지나 바다가 넓어지며 양도라는 섬이 가운데 있어 물결이 돌로 갈라지며 조류가 갑자기 안정되는 우수역 앞바다다.

난중일기의 기록에는 '적은 군사로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짧게 쓰여 있지만 관옥선의 운용에 무리가 없는 안정된 물살이면 서도 섬에 의해 바다의 폭은 두



↑ 우리 고국에서 범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명량' 포스터

구천부(一夫當選 足懼千夫 한 사람이 목을 잘 지키면 1천 명을 막아낼 수 있다)'를 역설하여 이번 명량지리전의 자신감을 촉구한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러 장병들은 살 생각을 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길 때는 군법에 의하여 엄벌할 것이다"고 비장한 각오와 이탈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말

하자면 강은양면, 당근과 채찍으로 결의와 군기를 단속한 셈이다. 이순신은 상벌을 분명히 하며 특히 군기를 엄정히 하여 범법자는 가차없이 목을 잘랐으니 이 훈시는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

이순신은 이날 일기에 꿈 이야

기 보니 다른 관옥선들은 모두 뒤에 멀쩡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뱃머리를 돌려 부르러 가자니 적군에게 더욱 덮쳐오는 기회를 줄 위험이 있어 대신 초요기 깃발을 흔들며 중군장 김응함을 부르니 안위와 함께 다가 왔다.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나, 도망가면 어디에 가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호통치니 두 부장이 앞으로 돌진하였으나 안위의 배가 금세 곁곁이 포위되어 위험 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 이순신이 배를 그 쪽으로 몰아 맹렬히 공격하여 구해내고 다른 관옥선들도 이순신의 선전에 자신감을 얻어 가담하니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하였다.

한낮쯤 조류의 흐름까지 동남류로 바뀌니 조선 수군은 더욱 맹공을 가하여 적의 대장선을 집중 공격하여 일본 수군 대장이 바다에 떨어졌다.

이 때 이순신 기함에 타고 있던 일본사람 항왜(항복한 왜인) 준사가 보고 "저것은 왜장 마다시!"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순신은 즉시 갈고리로 마다시를 건져 올리게 하여 토막을 내니 일본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조선군은 용기백배하여 거세게 공격을 더하여 왜선 31척을 격파하니 왜군은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물러가 이 불가사의한 명량대첩이 세계 해전사의 명승부로 기록을 남기게 된다.

전투가 한창일 때 육지로 올라가 접전을 지켜보던 우리의 피난 군중은 맹렬한 포연 속에 연기만 자욱하여 전선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 여기서 통제사를 잃게 되었다고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러다 포성이 멎고 연기가 걷히니 왜군은 간 데 없고 우리 관옥선 13척만 온전히 거기에 줄서 있었으니 그 감동 오죽했을까. 이 해전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날의 일기 말미에 이순신 스스로 '참으로 천행이었다'고 쓰고 있었는가.

이 때 이순신에게 토막나 죽은 왜장 마다시의 본명은 구루시마 미치후사(來島通總)로 해적(왜구) 출신 형제 수군 장수 중 동생이었다.

그런데 그의 형 미치유키(通之)도 역시 이전의 울포해전에서 이순신에 의해 전사를 당한 바 있어 형의 원수를 갚겠다고 선봉에 나섰다. 똑같이 이순신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그 동안 우리 해안을 약탈하게 약탈해오던 왜구 형제가 모두 나란히 이순신의 손에 죽음의 응징을 받은 셈이다.***

기를 기록하였는데 '이날 밤 신인(神人)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진다고 일러 주었다'고 쓰셨으니 이순신에게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심리효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여러 번 예시적 꿈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신통하게도 적중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순경례의 집에서 통제사 제임명 교지를 받던 전 날 밤 꿈에도 '임금의 유지를 받을 징조가 있다'고 쓰고 있다. 이순신, 그는 진정 하늘이 내린 민족의 은인이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결전의 날 = 드디어 결전의 날 9월 16일 아침, 이순신은 관옥선 13척을 횡으로 벌려 일자진으로 수로를 막아지게 한다. 명량은 물살만 거친 것이 아니고 하루에 네 번 조류의 방향이 바뀌는데 이 때에는 북서류가 흘러 조선 수군은 조류와 맞서기에 힘이 겨울 지경이었다.

일기에는 '적선 330여척(뒤의 역사 기록은 133척)이 우리의 여러 배를 에워싸 여러 장수들이 중과부적임을 알고 도망갈 궁리만 한다'고 쓰셨으니 얼마나 다급하셨을까.

이순신 기함은 적선에 곁곁이 둘러싸인 채 각종 화포와 화살을 맹렬히 퍼 부으며 일진일퇴를 거듭하였으나 체력이 다하여 장병들이 서로 돌아보며 두려움에 싸일 때 이순신이 눈을 들어 살펴

<기획> 이순신

모교 공대 핵물리학자들이 이순신을 연구한 이유

'성웅 이순신'은 시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우리의 민족적 위상이다. 모교 공대 학자들까지 이순신의 연구에 빠진 것만으로도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일보가 이 학자들에 대해 취재해 특집으로 게재한 것을 전제한다. <편집자 주>

지난 8월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공과대학 32동. 최희동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기자에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스승 박혜일 교수(2005년 작고)님입니다. 정년퇴임 때 제자들이 그 분 연구결과를 모아 만든 책으로 사진 속 세 사람이 나와 배영덕 한국 원자력연구원 연구원, 김명섭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이네요."

서울공대 32동과 똑 닮은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스승님도 이 건물에서 연구하시다 퇴임하셨죠. 이제는 내가 20년이 되도록 여기 있네요."

▶**핵물리학 교수 4명 '이순신의 일기' 출간** 네 사람은 '이순신의 일기' (서울대 출판부)라는 책을 냈다. 원자력 가속기 VDG 실험실에서 함께 원자핵공학을 연구하던 사제기간이 낸 책으로 의외였다. 원자핵 공학자들이 이순신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 교수는 "박혜일 교수님이 난중일기를 같이 읽어보라고 해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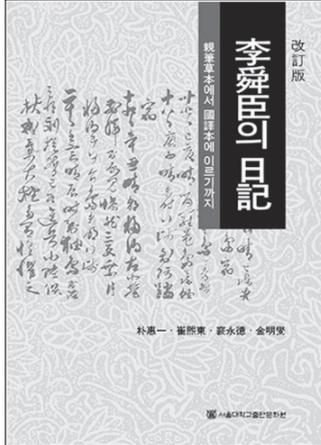
고 박혜일 교수는 한국 핵물리학계 선구자 중 한 명이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핵물리학 뿐 아니라 예술과 문학, 역사에도 조예가 깊었다.

박 교수가 이순신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79년 '이순신 귀선(李舜臣龜船)'의 철장갑(鐵裝甲)과 이조철갑(李朝鐵甲)의 현존 원형과 대비'라는 제목으로 한 논문 발표부터다. 한국 과학사학회에 낸 논문이었다. 지금은 주로 서양 과학사를 다루는 학회나 원래는 우리 역사를 과학적 방법으로 돌이켜보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지금도 거북선 원형이 어떤 구조며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철갑선인지 두꺼운 보호판을 두른 장갑선(裝甲船)인지도 논란이 되는 문제죠."

고 박혜일 교수는 여러 차례 논문을 통해 거북선이 철로 두른 철갑선이었다고 주장했다.

"하루는 그 분이 지방에서 거북선에 대한 긴 토론을 끝내고 귀경길에 남대문 앞을 지나는데, 남대문 때문에 얇은 쇠판이 들려 있더라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 거북선의 철갑 또한 조선시대 성문처럼 나무에 얇은 쇠판을 두른 것일 것이라고 주장하셨죠."

▶**허점 투성이 기록들** = 고 박혜일 교수가 이순신 연구에 빠진 이유는 "그토록 유명한테도 허점 투성이인 기록들을 대조하다가 역사적 사실감을 느낀 것 같다"는 말이다. "스승님이 자주 하신 말씀에 '이순신의 일기' 책 서문에도 적힌 철학자 니체가 했



던, '한 민족의 특유성은 그 민족이 어떤 위인을 낳았는가 뿐 아니라 그 위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존경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있어요."

최 교수는 "때때로 이순신 신드롬이 불 때마다 언론이 취재하겠다고 연락해온다"고 말했다. "이순신 리더십과 성품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순신이 어떻게 살고 싸웠는지마저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일 최다 관객 120만명을 모으며 다시 '이순신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명량'에서 명량해전에 참가한 조선의 배는 12척, 왜군의 배는 330척이라고 묘사된다. 최고 시청률 33.1%를 기록했던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에도 왜군의 배는 330여 척이다. 그러나 왜군의 배는 133척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조선의 배는 13척이다.

"이순신이 직접 쓴 정유일기(丁酉日記)에 두 번이나 적선 133척, 130여척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승전 후 9월 29일 조정에 보낸 승첩장계에도 130여척이라고 돼 있어요. 승첩장계 초본은 유실됐지만 내용이 선조실록 선조 30년 11월 10일 조 원문에 있죠."

▶**120곳 오류 바로잡아** = 최희동 원자핵 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333척은 이순신의 조카 이분(李芬)이 쓴 '행록(行錄)'에서다. 최 교수는 "행록에 '333척이 와 에워싸는데(遂以三三三三隻進擁之)'라는 말이 있다. 이를 인용한 기록의 대부분이 왜선 수를 333척으로 봤다"고 말했다.

행록에 기록이 잘못돼 있을까. "누군가 一百三十三의 一자를 三자로 만든 것 아닐까 합니다. 적군의 규모를 크게 해 더 영웅적으로 만들려는 의도였죠."

정조의 지시로 1795년 편찬된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書)에도 330척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전해질 뻔한 것으로 이처럼 이순신 기록에 '빈 곳'이 많다고 최 교수는 말한다.

"최고 성웅 이야기가 기록마다 다르고 부족한 곳도 많아서 이순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많은 기록을 일일이 대조해야 하죠." 최 교수와 제자들이 이순신에 빠진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당시 자료를 두고 보려면 원문 복사 밖에 없었어요. 나와 배영

세월호 시대가 이순신을 위해

이원영(인문대 81) CA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영화 '명량'을 보기 전 가장 궁금했던 건 이순신 역 최민식의 연기력도 아니요, 얼마나 리얼하게 전투신을 재연했을까 하는 것도 아니었다. 열두 척 배로 삼백여척 왜군을 궤멸시킨 역사적 명량대첩을 뻔히 아는 마당에 궁금할 게 없었다. 그런 사실에 기초해 만든 영화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열광케 하는지, 그 이유가 더 궁금했다. 영화 자체보다 영화를 본 사람들의 소감이 더 관심이 간다고 할까.

후반부 한 시간여 전투신이 이어지지만 전투가 끝나는 순간까지 가슴 졸이게 한다. 포성과 아비규환의 백병전이 끝나고 잔잔한 바다 물결을 보며 비로소 숨을 돌릴 순간 영화는 끝난다. 그리고 머리가 끄덕여진다. "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순신을 원하고 있구나" 딱 그거였다.

물론 영화의 메시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최민식의 열연, 생동감 넘치는 전투신 등 기술적인 면에서도 별로 흠잡을 데가 없었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을 해상전투 장면이 한 시간에 걸

쳐 이어지는데도 긴장도는 늦춰지지 않았다. '명량'이 일단 영화 자체의 재미적 요소만으로도 흥행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명량'을 단순한 할리우드형 블록버스터와 같은 반열에서 성공작으로 평가한다면 아쉬울 것 같다. 한국인이라면 영화적 재미 그 이상을 건질 게 많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다. 가슴쿵쿵함, 글썽 그것이 영화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껴질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하나 밖에 남지 않는 구선(거북선)이 불에 타 침몰할 때 이순신의 안타까운 눈빛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왜선 300여척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겁에 질린 일부 장병이 이순신으로 하여금 전투를 포기케 하려고 구선에 불을 지른 것이다. 배는 화염에 싸이고 용머리가 바닷물 속으로 처박히는 순간, 세월호 침몰을 떠올렸다. 희망과 용기가 사라지고 그 끝자락에는 한없는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한.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이순신은 회생과 출신수범 리더십으로 병사들을 다독인다. 도저히 치유되기 어려워 보였던 두려움

의 바이러스가 용맹으로 바뀌고 기적같은 승전으로 이어진다.

세월호 침몰과 함께 국가 리더십의 무능을 똑똑히 목도했던 한국인들은 패배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병사들의 힘을 '사즉생'의 각오로 한테 모아 에너지로 만들어낸 이순신의 리더십에 열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 또 하나. 열두 척의 배로 300여 척 왜선을 이겨내는 장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역사적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한방 날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효과도 없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도 해본다.

수많은 왜선과 울돌목의 회오리 물살 등 컴퓨터 그래픽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구현된 것도 영화의 생생함을 더했다. 400여년 전 해전의 스펙터클한 모습을 눈 앞에서 느껴보는 것도 이 영화가 주는 재미다.

'명량'은 한국서 개봉 8일 만에 700만 관객을 넘겼다. 역대 한국영화 중 최고의 오프닝 스퀴어다. 이 영화가 남긴 최고의 명언은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忠)을 좇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이순신의 말이다. 만약 지금 국가 리더들이 '명량' 열풍을 보고, 백성에 충(忠)하는 국가 리더십에 목말라 하고 있는 민의를 읽는다면, 이 영화는 참으로 애국적이다. 잘 만든 영화는 잠자는 애국심도 춤추게 한다.***

덕·김명섭 3명의 제자가 번갈아 박 교수의 복사 심부름을 했어요. 워낙 꼼꼼하신 분이려 복사한 그림의 명암, 농도에 신경 쓰셨거든요. 주문에 맞추려면 우리도 책을 봐야지요."

스승의 심부름을 하다가 이순신을 들여다보게 됐다는 얘기가. "물론 그것만으로는 본업과 이순신 연구를 병행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수 없죠. 우리에게는 역사적 사명감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이순신 관련 기록은 1960년대 노산 이은상이 국역한 '이충무공전서'와 '난중일기'가 바탕이다. 최 교수는 이 국역본에 오류가 많다고 했다.

"인명이나 지명은 물론 내용 자체가 원본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조판 과정이나 인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제강점기 조선사편찬회 활자본 난중일기초를 옮기다 잘못된 곳도 많죠."

1995년 박혜일 교수가 정년퇴직 후 '이순신의 일기' 출판작업이 본격화됐다. "(원자핵공학) 연구는 연구대로 하면서 이순신 연구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세 제자 모두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

"대전에 있던 배영덕·김명섭 후배는 서울과 대전을 매주 오갔어요. 그러나 누구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과 역사적 사명감, 이순신에 대한 흥미 등이 어우러져 120군데 오류를 바로잡은, 당시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이순신의 일기'로 재구성했다.

▶**이순신의 고뇌** = 네 사람이 국역한 난중일기에 영웅 이순신의 인간다움이 잘 드러난다. 정유년(丁酉年) 5월에는 자신을 험담하는 원군(元均)과 조정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부분이 많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무치고

슬픈 마음에, 눈물은 엉기어 피가 되건마는 아득한 저 하늘은 어찌 내 사정을 살피주지 못하는가, 왜 빨리 죽지 않는가." (5월 6일) "원(元均)이 온갖 계략을 다 써서 나를 모함하려 하니 이 역시 운수인가. 뇌물 짐이 서울로 가는 길을 연이고 있으며,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나를 헐뜯으니, 그저 때를 못 만난 것이 한 스러울 따름이다." (5월 8일)

최 교수는 "정조 때 편찬된 이충무공전서에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 같은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암행어사가 잡아 간 사건에 대해 물어본 즉, 문서들이 제멋대로 꾸며졌다고 한다" (갑오 정월 24일),

"안팎이 모두 바치는 뇌물의 다소로 죄의 경중을 결정한다니, 이러다간 결말이 어찌될지 모르겠다. 이야말로 한 줄기 돈만 있다면 죽은 사람의 뉘도 찾아온다는 것인가" (정유 5월 20일),

"어둠 무렵에 코피를 되 남것이 나 흘렸다... 이제는 영령(英靈)이시니, 불효가 마침내 여기까지 이를 줄 어찌 알았으랴. 비통한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듯 누를 길이 없구나, 누를 길이 없구나" (정유 10월 19일) 등이다.

최 교수는 "이순신의 기록은 때로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 누락되거나 변형돼 그 인간적인 모습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잦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난중일기 전체에 걸쳐 몸이 불편한 것에 관한 기록은 180여회, 술에 관한 기록 140여회,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100여회나 된다"고 말했다.

"사실 아프다, 힘들다, 슬프다, 그렇다는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찬 일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을 적어두고, 중간중간 안타까움을 나타낸 일기는 젊을 때 읽으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순신의 일기에 자주 나오는 '관란(雷亂)'은 신경성 위염이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순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다르다 뿐이지 그 나이대 사람이라면 한 번쯤 지어봤을 것이기 때문이죠."

▶**연구의 중용성** = 무엇보다 최 교수는 사람들이 이순신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순신의 일기 개정판을 2002년에 냈습니다. 10년 지나고 나니 다른 연구자들이 보태고 고친 부분이 많아 또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재개정판을 내는 일은 쉽지 않다. "아무래도 (배영덕·김명섭 등 다른 공동저자는) 각자 연구에 바빠 힘을 합칠 수 없기도 하고요. 잘 팔리는 책이 아니다 보니 출판부에서 추진해 줄지도 의문입니다."

박혜일 교수는 2005년 암으로 작고했다. "돌아가시기 직전 내게 전화하셨어요. 알아듣기도 어려운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 이순신 연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최희동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이제는 남에게 넘겨줄 수도 없어요. 뭐가 잘못됐고, 뭘 더 보완해야 하는지 일일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스승님처럼 저도 끝까지 이순신 연구를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는 마지막까지 이순신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과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류 없이 정확한 과거를 알아야 현재,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순신 연구는 과거 바로 알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모교 소식

두산그룹 박용현(의대 62) 전 회장

서울대 신입 이사장에 선임

(서울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이사장에 박용현(의대 62·사진) 두산그룹 전 회장이 오연천 전 총장 겸 이사장의 뒤를 이어 신입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서울대 이사회는 지난 7월 28일 오후 호암 교수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사장을 겸임했던 오연천 전 총장이 지난 7월 20일 퇴임한 뒤 공석이 된 신입 이사장에 박 전 회장을 선임했다.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재직이사 15명 중 3분의 2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같이 정해졌다.

서울대는 지난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총장이 초대 이사장을 겸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 전 총장이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학외 인사인 박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되면서 이원체제가 됐다.

박 신입 이사장은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된 2011년 말 초대 이사로 선임됐으며 지난해 12월 연임됐다. 이사 중 최연장자이기도 한 박 이사장은 오 전 총장이 퇴임한 후에는 임시 이사장을 맡

아왔다. 이사 임기는 2년으로 박 전 회장은 남은 1년 6개월간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고(故)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의 4남인 박 이사장은 1966년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모교 의대 교수, 서울대병원장, 두산건설 회장, 두산그룹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이사장은 두산이 법인으로 있는 중앙대 이사로도 겸임하고 있다.***

모교 자전거 코스 대인기

5.6km로 비교적 짧아 부담없는 코스로 일반인에게도 널리 애용

모교 교내 순환도로를 일주하는 자전거 코스가 모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자전거 매니아



들에게도 짧막해서 부담없는 코스로 대인기다. 다음은 '바이시클 뉴스'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이 코스는 서울대 교내 순환도로를 일주하는 코스다. 코스 길이는 5.6km로 짧다. 일주하는 데는 20분 정도면 가능하다. 전 체구간이 도로로 버스와 승용차,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고 보행자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만 자전거 동호인들에게는 안정맞춤으로 통하고 있다.

정문에서 출발해 왼쪽이나 오른쪽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 어느 쪽이든 오르막을 오른 뒤에 다시 내리막을 내려오는 코스다.

서울대 코스는 교내 일주하는 코스인데도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은 무엇보다 대학 교내라는 점을 생각해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조용하게 다녀야 한다.

서울대 교내 코스를 남산이나 북악스카이처럼 업힐이나 다운힐 훈련 코스로 생각하는 동호인들이 적지 않다.

다만 주말이나 밤에는 동호인들이 한층 안전을 무시하고 내리막 길을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고 전 조등과 후미등도 켜지 않은 채 달리고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정도다.

서울대는 교내에서 버스 같은 다른 교통 수단은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도 너무 빠른 속도로 교내를 질주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 자전거 코스 개요>
▶코스길이 = 5.6km ▶소요시간 = 20분 정도 ▶난이도 = 중급 ▶주요지점 = (정문에서 왼쪽으로 출발할 경우) 서울대 정문 - 수의과 대학 - 학과단 - 제2공학관 - 공과대학 - 서울대 정문 ▶가는 법(교통) = 도림천 자전거 길을 따라 신림동까지 가서 도림천을 벗어나 조금 올라가면 서울대 정문이다. 지하철 신림역에서 도림천을 따라 올라가도 된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고개를 넘어가도 된다.***

<바이시클 뉴스>

모교 합격자 강남이 강북의 21배

모교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출신 학생 중 강남구 학생이 강북구 학생에 비해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5일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논문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을 통해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학생의 출신 자치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100명당 합격자는 강남구가 2.1명으로 강북구 0.1명 보다 21배 많았다.

강남구와 함께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합격자가 각각 1.5명, 0.8명으로 나란히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반면 구로구와 금천구의 합격자는 각 0.2명으로 강북구와 함께 하위 1-3위에 머물렀다.

이 같은 합격자 규모는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가와 흐름이 유사하다.

실제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매매가는 상위 1-3위이며,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는 도봉구, 중랑구와 함께 매매가 하위 1-5 위다.

자치구별 사설학원 수와 서울대 합격률의 관계 역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을 인용해 "확률적으로 용의 씨는 각 계층에 골고루 뿌려지나 지금 용이라고 뽑히는 학생들은 지역적, 계층적으로 일부에 극심하게 몰려 있다"며 "학비가 비싼 특목고와 자사고에 간 학생들은 진짜 인적 자본이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일반고의 3-7배 이상 학비를 낼 수 있을 만큼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여년간 부모의 영향력이 확대돼 교육의 공정한 경쟁이 점점 더 저해되는 방향으로 역행해왔다"며 "그 결과 인적 자본 배분을 왜곡해 경제성장 잠재력

서울시구별 아파트 매매가와 서울대 합격 확률



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위험을 증대시키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매우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신문>

모교생 3명중 2명 사교육 받아

모교 재학생 3명 중 2명 가량은 대학입시를 위해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교 입학본부는 2013년도 수시모집 합격생 2천6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6%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능 외 내신과 심층면접을 위한 사교육 경험 응답자는 각각 42%, 논술고사 32%, 외국어 공인시험 24%, 일반 면접은 20%, 학업관련 교외 수상은 12%였다. 특히 예체능 계열의 84%는 실기고사를 위해 사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사교육 없이 준비가 어려운 전형으로는 가장 많은 학생이 1순위로 심층면접(56%)을 꼽았다. 그러나 수시모집에 사교육이 미친 영향에 대해 42%가 '적은 편' 혹은 '매우 적음'으로 답했

다. '큰 편' '매우 큼'으로 답한 응답자는 22%, '보통'은 36%였다. 합격을 위해 '학업능력'(5점 만점에 4.4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학업능력 신장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78%가 '자기주도학습'을 꼽았다. 한편, 입학본부가 2014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1만9천9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사회학자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528건)였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아프리카 청춘이다'(400명), 리처드 도킨스 옥스퍼드 교수의 '이기적 유전자'(380명),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302명), 소설가 파울루 코엘류의 '연금술사'(279명)도 상위권에 올랐다.*** <조선일보>



KBS 정다은(언론정보학 03) 아나운서

미모와 재치로 큰 화제에 큰 인기

최근 정다은(언론정보학 03) 아나운서가 늘씬한 체격의 미모와 재치로 장안의 큰 인기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1박2일'에 출연한 정다은 KBS 아나운서는 새삼 더욱 화제의 장본인이 됐다.

정다은 아나운서는 지난 7월 13일 방송된 KBS 2 '해피선데이-1박 2일'의 '선생님 올스타' 여림방학 특집에 장학퀴즈 출제를 위해 출연했다.

이날 정다은 아나운서는 늘씬한 신장에 긴 생머리의 청순한 미모로 등장해 남성 출연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출연진 전체가 정다은 아나운서의 미모와 깔끔한 진행 실력에 관심을 보인 가운데, 특히 텔런트 차태현은 "정다은 아나운서가 제일 좋아하는 아나운서"라고 호감을 보였다.

또 출연진 중 데프콘은 "결혼하셨느냐"고 사심 가득한 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다은 아나운서가 "아직 안했다"고 답하자 총각 멤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환호해 폭소를 자아냈다.

이날 '1박 2일' 정다은 아나운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다은 아나운서 정말 예쁘네" "정다은 아나운서, 서울대 출신이네" "정다은 아나운서, 재기가 넘치는 아나운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다은 KBS 아나운서는 모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해 지난 2008년 KBS 34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이후 KBS '도전! 골든벨' '세상은 넓다' '남북의 창' 등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남북의 창'을 진행한 탓에 북한으로부터 '남조선 모략질 언론인'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으며 실제로 경찰서에서 경호 지원을 권장받기도 했다고 한다.***

<스포츠 서울>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평창 캠퍼스 준공

5년간의 공사 끝에 서울대 평창 캠퍼스가 탄생했다. 모교는 경기도 수원에 소재했던 실험 목장을 강원도로 이전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을 추가해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를 새로 조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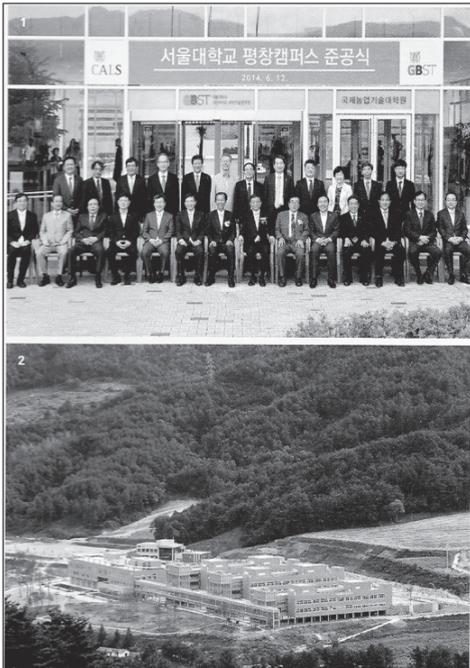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기압상태를 유지한다는 해발 700m에 위치한 강원도 평창. 지난 6월 12일 이곳에서 '서울대 평창캠퍼스 준공식'이 열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약 277만 평방m 규모의 대단지에 그린 바이오 과학기술 연구원, 국제 농업기술대학원, 농업생명과학대학 실험목장 등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9월 개원한 국제 농업기술대학원은 서울대가 새로이 건립하는 핵심 교육기관이다. 국제 농업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개발도상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한다. 서울대의 이번 행보는 산학협력을 활성화 하고 그린 바이오 관련 기업체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평창을 위한 맞춤 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시설 관람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항노화 연구 및 치유 프로그램을 생체유체와 연계해 개발 보급함으로써 동계 올림픽 이후 존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다. 그린 바이오 분야의 학·연·산 핵심 클러스터가 될 평창 캠퍼스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 <모교 홍보실>

서울대병원 의사들 중동행 러시

'연봉 1.5배... 자녀 국제학교 학비 보조'에 연구 자유롭고 현지 주거비용 지원도 큰 장점

올해 말부터 아랍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운영할 예정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1-5년 동안 살면서 진료하고 현지 의료인들을 교육할 교수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지원자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중동이라는 낯선 환경 때문에 자원자를 채용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 더구나 지원 대상자들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에서 자리를 잡은 경력 교수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달리, 24명의 교수진 모집 가운데 벌써

13명이 지원했다고 지난 8월 20일 서울대병원이 밝혔다. 한 달 새 절반 이상의 인원을 채운 것이다. 한 부부 의사 교수는 가족 전체가 이주할 의향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핵심 의료진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미국·유럽 등 전통적으로 선호하던 국가도 아닌 중동으로 자원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대병원 방문석 대외협력실장은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지역에서도 소득이 높아 거주 환경이 좋고, 한국과 비교해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득도 지원 이유로 보인다. 연봉이 한국의 1.5배 이상인 데다 현지 주거 비용과 자녀 국제학교 학비까지 보조하기 때

문이다.

교수 자원자들은 기존 의료진이 없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의료를 발전시키고 싶은 바람도 크다고 한다. UAE 왕립병원인 셰이크 칼리파 병원에서는 젊은 교수라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층층이 덮인 국내 교수 사회보다 현장에서 빨리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 비해 환자 수는 많지 않고, 암이나 심장 질환 등 전문화된 병원 환경에서 진료나 연구가 더 자유롭고 수월할 것이라는 장점도 자원자들을 끌어들이었다.

서울대병원 문주영 국제사업국장은 "우선 서울대병원 내부에서 자원자를 뽑았지만, 부족하면 다른 병원 의사들도 모집할 것"이라며 "미국이 아니라 중동으로 가는 한국 의사들이 점점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후기 졸업식 졸업생 대표 권은진 동문

“아무 것도 없었기에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다”



다양한 인턴활동, 500시간 봉사 등...남의 고통 공감 쌓아. 2009년 자유전공학부 첫 개설

(서울=뉴스1) = “아무 것도 없었기에 무엇이든 얻을 수 있었다는 깨달음을 새겨나가겠다.” 지난 8월 28일 28일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제68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 나선 권은진(자유전공학부) 동문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이날 권 동문은 연단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용기를 내 남몰래 물어둔 얘기를 고백하려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위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 많았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딱딱한 현실을 견디며 자랐다”고 말했다. 편찮으신 아버지를 언급하면서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다.

권 동문은 “어디론가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고 참고서 하나 사기가 망설여져 동네 서점 앞을 몇 시간 동안이나 서성인 적도 있다. 그럴 때면 주머니 속 작고 여린 손을 수없이

←제68회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 대표 권은진 동문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움켜쥐었던 것 같다. 가난했던 저에게 서울대는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든든한 희망의 다섯 글자였지만 입학 당시 서울대에 오기만 하면 다시는 마주치리라 생각지 않았던 아득한 막막함과 재회했다”고 토로했다.

권 동문이 입학한 자유전공학부는 당시 개설 첫 해로 ‘제대로 된 나무 팻말 하나 갖추지 못했고 책상 몇 개가 놓인 간이형 정실이 전부인 곳’이었다.

그러나 권 동문은 수험생 시절처럼 역시 아무 것도 주어진 것이 없었던 자유전공학부에서 아주 놀라게도 많은 것을 얻었다. “아무 것도 없으니 이제 무엇이든 해 보라”는 교수님들의 가르침, “아무 것도 없으니 무엇이든 하면 우리가 최초”라며 자극을 주는 친구들의 응원 속에서 ‘학생설계전공제도’를 십분 활용해 ‘인문소통학’이라는 자신만의 전공을 설계했다.

학생설계전공제도란 학생 스스로 2개 이상의 학문을 융합한 교과 과정을 구성해 전공으로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다양한 인턴활동과 500시간 봉사활동을 거치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았다고 밝혔다.

권 동문은 “학교는 내가 그저 서울대생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무언가를 약속해 주지는 않았지만 방황하고 좌절하는 매 순간 놀랄 만큼 많은 기회를 던져줬다. 정해지고 약속된 것이 없었기에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모교 도서관 석·박사 논문 서비스 “도서관 기부 미주 동문들께 감사”

모교 졸업생들의 논문은 모교 도서관이 모두 검색 서비스하고 있고, 한국의 모든 석·박사 논문은 KERIS에서 운영하는 RISS 서비스(<http://www.riss.kr/index.do>)에서

기부동문 이름	금액(\$)
이만택(의52)	5,000
김정희(음56)	1,000
오태오(의56)김명자	5,000
강창욱(의57)	1,000
고광선·양남주(공57)	10,000
최인갑(공57)	1,000
정동구(공57)	10,000
김진우(의58)	10,000
이홍표(의58)	1,000
반기문(문63)	5,000
오인환(문63)	1,000
김자역(의69)	1,000
박상원(음69)	1,000
손재욱(가77)	1,000
백승석	3,000
뉴욕 동창회	1,000

검색 및 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외국 대학의 석·박사 학위 논문은 ProQuest PQDT, DDOO database(<http://search.proquest.com/pqdt/dissertations/fromDatabases-Layer?accountid=6802>)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Institutional Repository (대표적으로는 <http://dspace.mit.edu>)를 만들어 석·박사 학위 논문을 저장해두고 있고 또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google 에서도 pdf로 검색되고 있다.

전 세계 학위논문 상당수가 디지털화 되고 있고,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여러 database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는 모교 석·박사 학위논문의 디지털화와 검색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모교 도서관 신축 및 네이밍 모금에 미주 동창회 많은 동문들이 참여(표 참조)해 감사하고 있다. 일부 공간과 가구는 네이밍이 완료, 일부는 아직 남아 있다. ***

<모교 도서관 김미향>

모교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기금모금 캠페인

“서울대 도서관의 친구들”

모교 서울대 도서관이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인 데다가 재학생 이용 수와 소장 장서의 포화상태로 한계상태에 부닥쳐 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네이밍(Naming) 캠페인과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벌이고 있다.

▶Naming 모금 캠페인 = 재학생 등 후배들이 사용할 책상, 의자, 서가에 기부해준 선배들의 이름을 넣어 후진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놓는다. <도표 참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 도서관은 학생들이 하루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도서관이 관정 도서관과 함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낡은 시설의 리모델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해 5월 이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조천식 동문이 ‘중앙도서관 시설환경 개선기금’으로 50억원을 후원한 외에도 300여 명의 동문들이 9억원 넘게 기부했

기며 더욱 모교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기 바라고 있다.

▶캠페인 기간= 지난해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금 목표액= 3년간 총 1천억원의 모금 운동을 벌인다.

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가구·공간 Naming 모금 종류			
종류	내역	모금액	선택□
열람석	열람석 의자	100만원(\$1,000)	<input type="checkbox"/>
	4인 테이블	300만원(\$3,000)	<input type="checkbox"/>
	8인 테이블	500만원(\$5,000)	<input type="checkbox"/>
서가		500만원(\$5,000)	<input type="checkbox"/>
멀티미디어실	멀티미디어세트	500만원(5,000)	<input type="checkbox"/>
개인캐비닛	개인실	1천만원(\$10,000)	<input type="checkbox"/>
	4-6인실	3천만원(\$30,000)	<input type="checkbox"/>
그룹스터디룸	8-10인실	5천만원(\$50,000)	<input type="checkbox"/>
	30석 규모	2억원(\$200,000)	<input type="checkbox"/>
세미나실	60석 규모	3억원(\$300,000)	<input type="checkbox"/>
	100석 규모	10억원(\$1,000,000)	<input type="checkbox"/>
패컬티 라운지		10억원(\$1,000,000)	<input type="checkbox"/>

생활 수상(隨想)

정다운 옛 고향



김영덕(법대 58) CA
Popular Community Bank
전 부행장

나는 항상 고향이 과거와 현재, 두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러 곳을 다니며 살아왔지만 초등학교 3년과 고교, 대학에 다니고 2년 여의 직장 생활도 했던 서울이 첫 번째, 옛 고향이다. 유학 와서 직장언어 지금까지 사는 이 미국 땅, 특히 아이들을 길렀고 39년째 있는 로스앤젤레스가 두 번째, 지금의 고향이다. 이 두 곳은 내게 있어 항상 마음속의 고향으로 느껴온 정다운 고향이다. 1945년 8.15 해방이 되어 온 국민의 열광된 기쁨도 잠시, 남·북한 지도자들의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3.8선이 생기게 되어 분단국으로 나누어졌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은 아버님의 직장 때문에 해주에서 해방을 맞

이하였다. 북한 공산당원과 소련군의 횡포와 만행이 점차 자행되기 시작하였다.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 가족도 부모님의 고향인 개성을 향하여 월남하기로 하였다. 북한 감시병들의 눈을 피하여 한 밤중, 거금을 주고 빌린 조기잡이 어선으로 목숨을 걸고 성난 파도를 뒤집어쓰면서 피난 나왔다. (6.25전, 개성은 3.8선 바로 아래 남한이었다) 개성을 거쳐, 서울로 내려와 한국은행 관사촌이 있었던 후암동 삼광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아버님의 직장을 따라 대구·부산·여수·목포·전주·광주를 거치며 6년여 만에 서울에 올라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새롭고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겼지만, 지금 가 보아도 서울의 옛 동네 거리 하나 하나는 모두가 그림고 추억어린 고향길이다. 꿈 많고 즐거웠던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서울이 바로 고향이 아니겠는가. 서울생활 10여 년 후, 만 스물 여섯이 되어 유학시험에 합격한 후 미국 서북부의 오래된 땅을 처음 밟았다. 낯선 타국에서의 배움과 삶은 쉽지 않은 고생이었다. 요사이처럼 한국의 위상제대로 돈 갖고 유학 오고, 이민 오는 '유학생', 또는 '이민' 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청운의

꿈을 품고 돈 없이 온 학생으로 미국생활을 시작하였다. '낮실고 물 설은 '남의 땅' 에서 공부와 삶의 보람을 찾았고 새로운 '꿈' 을 키워 나갔다. 결혼하여 딸 둘 낳고, 경영학 학사(BBA)와 석사(MBA)를 획득하고 40 여년의 은행생활도 마감하였다. 회고하여 보건데, 모두가 개척의 연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였다. 그렇게 오래론과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열심히, 정신없이, 바빠 앞만 보고 달려온 추억의 미국생활이었다. 그러다 보니 정도 많이 들었다. 정들면 고향이 따로 없다는 옛말이 다 맞는 것 같다. 친구가 귀국해도 나는 미국이 좋다고 여겨 여태껏 살고 있다. 나의 청·장년기를 보낸 로스앤젤레스에서의 내 인생 39년이다. 나이 70에 은퇴하고 보니 원래의 고향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옛 사람이 그림고, 친구와 친척이 보고 싶고, 눈에 익었던 이곳 거리와 환경이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더 늦기 전, 서울로 돌아가 동족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사람들이 그리워졌다. 제작년 봄, 제주도 관광 후 서울에 올라갔다. 어머님과 동생들과 오랜만에 못다 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또 정다운 친구들을 만나 놀러 가고 흥금도 터놓고 의견을 나누니 긴 세월 동안 못 보았던 시간의 간격이 당겨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처음의 고향인 서울로 와 살면, 이곳 미국에서 기반 잡고

동문 시 감상

나의 나무

홍인표(미대 60)CH

저 앞 지평선 한 옆에 서 있는 나무 하나 그 힘든 시간 지내왔으나 아직도 예쁘게, 힘차게 서 있네.
그 많은 폭풍, 다 이겨내고 뚝뚝히 서 있는 너.
봄 되어 잎이 피어날 때는, 희망이 있었고 가을되어 낙엽질 때는, 외로움이 있었겠지? 겨울되어 나뭇잎 다 떠나가고, 혼자 남았을 때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너는 아직도 조그만 너지만, 홀로선 너지만 감사해 홀로 설 수 있는 너이기에
힘든 폭풍맞으며, 홀로 서 있던 너 내가 햇빛본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는 폭풍을 알았기에 햇빛을 알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너...

내 예쁜 나무야 축하해, 감사해, 네가 있기에 희망도, 풍성한 마음도, 외로움도 즐기는 너... 축하해, 감사해, 네가 있기에
많은 아픔들이 지나갔을 텐데 그래서 지금의 네가 있는 것이요 지금의 너한테 감사해 좋아해.
햇빛받고 있는 다른 건 강한 나무들과 비교하지 않고 서 있던 오랜 시간들.
힘들고 외로웠던 오랜 시간들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너 행복한 네가 있어 감사해.
언제인가 내가 저 지평선으로 사라지는 때가 오겠지...
그러나 지금도 빛나게 네 자리 지키고 있는 나무야 그 많은 긴 폭풍을 이겨낸 너. 감사해 혼자 설 수 있는 너이기에...*

사는 우리 애들과 손자·손녀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결정하기 힘들다. 또 연로하신 어머님을 못 모시게 되는 불효함에 대한 하소연은 누가 들어 줄 것인가. 그해 여름 어머님 병환이 위중하다는 동생 전화에 급히 서울에 갔다. 서울 다녀온지 두달만이었다. 요양원 어머님의 병문안을 동생들과 함께 자주 갔다. 처음 빌 때는 병세가 심각했으나 며칠 지나니 다행히 차도가 좋아지는 듯 싶었다. 그러나 얼마 후, 어머님의 임종을 지켜봐야 했다. 마침, 매월 첫 월요일에 만나는 법대 58학번 모임 중 하나인 다사회(多士會) 모임이 있다는 연락과 회장의 초청도 있기에 참석하였다. 동기 중의 재사(才士)들이 다 모인 곳이니 꼭 참석하고 싶었다. 모두 다 반가운 동기들이 아닌가. 어찌하다 나만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30여 명의 많은 동기생이 모여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정다운 친구들이 많았으며, 일별 알아보기 어려운 벗들도 있었다. 모두가 1958년 이화동에서 시작된 인연들이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듯 했다. 작년이 입학 55주년이었으니 길고도 빠른 세월, 이화동은 '300의 인연' 을 만들어 준 추억의 보금자리가 아닌가! 그 자리에 정다운 옛 고향이 기다리고 있었다. 긴 세월 동안 찾아다니던 고향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포근함이 있었고, 깔깔거림이 있었고, 언제처럼 분주함이 있었고. 모두가 그리운 추억이었고 학교 떠난 지 50여 년의 긴 세월을 단축하는 듯 싶었다. 바로 그곳에 내 정다운 고향이 기다리고 있었을 줄이야! 동기의 정 있는 곳, 바로 그 자리가 내 마음의 옛 고향이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박평일(농대 69) VA
미주 동창회 감사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시카고 사는 벗이 지난 해 보내온 김현승의 시 '가을의 기도' 다. 9월 초 P선배가 보내준 이브몽땅의 노래 '고엽' 에 이어 두 번째 받은 가을특별선물이다. 가을은 역시 풍성한 나눔의 계절이다. 그래도 그렇기. 가을이 뭐가 그리 좋길래 마음이 이토록 설레이는 것일까. 여름이 채 가기도 전 이별가를 부르고, 가을이 아직 오기도 전에 샴페인을 터뜨리며 한인들의 조급한 성격은 미대륙도 못말린다. 어젯밤 예고없이 퍼부는 심술긋은 폭우도 조급하기는 예외가 아니다. 이틀간 한가위 보름달이 나뭇가지 사이로 숨바꼭질하며 애써 쏟아 놓은 달빛들을 난폭하게 다 쓸어가 버렸으니. 그래서 그럴까. 오늘 밤 내 컹가를 스치는 풀벌레 소리들이 이토록 소연(驟然)하게 들려오는 것은... 나의 가을은 잔인한 살생으로부터 시작됐다. 그것도 어리고 어린 생쥐 한 마리의 살해였다. 이 사건을 두고 예텐동산 아담과 이브처럼 '네 탓이다' 라는 비겁한 변명게임을 아내(케를)와 벌이고 싶지는 않다. 생쥐의 죽음은 모두 내탓이고 그 모든 책임도 내가 질 것이다. 케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사건의 차초지중만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전날 밤 정체미상의 침입자가 있었다. 거실 책상 위에 놓인 군고구마를 싹 알루미늄 포장지에 작은 구멍들이 총총하게 뚫려 있었다. 정체불명의 침입자를 두고 케를과 나는 갑론을박하며 며칠간 다투었다. 나는 개미라고 주장했고, 케를은 쥐라고 우겼다. 그러다 한밤중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15살 난 개 재만이라도 밤잠을 못이루고 거실에서 어슬렁거렸다. 케를은 '어떠한 생명체도 죽일 수 없다' 는 나의 숲 속 생활수칙에 가까스로 동의 한 기인에 속한다. 모기·벌·나방·거미·새·개구리·두꺼비·뱀... 온갖 것들이 집에 들어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서 내 보내려는 나를 방관해 준다. 그러나 쥐에 대한 그녀의 공포와 두려움 만큼은 예외였다. 자신이 쥐피어서 그렇기. 암튼 쥐 때문에 이사가야 한다고 나에게 협박성 으름장을 놓은 지가 수십 번이 넘는다. 나에게 선택이 가능한 세 가지 옵션이 있었다. 첫째, 그녀의 의사를 따라 쥐들을 완전 소탕한다. 둘째, 다른 집으로 이사간다. 셋째, 케를과 이혼하고 나의 생명사랑에 대한 원칙을 고수한다. 이 셋 중 가장 쉽고 안전한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어차피 나는 정의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가정을 희생시킬만한 모진 위인은 못된다. 일단 결심하고 나면 속전속결이 생활철학이다. 그날 밤부터 거실에 살림을 차려놓고 잠복에 들어갔다. 첫째날 밤 정확히 밤 12시 15분에 생쥐 한 마리가 내 컴퓨터 자판 왼쪽에 눈을 반짝거리며 나타났다. 깜짝 놀라 "요놈!" 하고 소리쳤다. 그 소리에 눈을 깜빡거리며 사라지더니 잠시 후 자판 우편으로 나타나 다시 얼굴을 내밀었다. 겁도 없이 맹랑한 놈이었다. 첫 작전은 나의 일방적 패배로 끝났다. 둘째 날 밤, 생쥐는 어젯밤과 정확한 시간에 같은 장소, 컴퓨터 자판 왼편에 모습을 나타냈다. 어젯밤보다 총총한 눈빛으로 나를 쬐어보는 듯 했다. "제발 우리 집에서 사라질 수 없었니? 그렇지 않으면 네 생명이 당장 위협하다" 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타일렀다. 내 말을 들은 등 마는 등 생쥐는 자판 뒤를 돌아 오른쪽에 다시 나타났다. 나는 엉겁결에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후려칠 심사였다. 생쥐는 나를 비웃기라도 한 듯 짹짜게 괴해 내 밖으로 사라졌다. 셋째 날, 드디어 생쥐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이른 아침 직장에 있는 케를에게 전화로 퇴근길 그로서리에 들러 가장 강력한 쥐덫 몇 개를 사오라고 부탁했다. 최소한 쥐덫의 선택만큼은 케를에게 맡겨두기로 했다. 그녀는 4개의 배터리 작동용 쥐덫이 담긴 쇼핑 봉지를 의기양양하게 내 손에 건넸다. "하루 더 생쥐에게 생활할 시간을 주자" 자신이 없었다. 케를의 동의를

언어 작전을 하루 연기했다. 넷째 날 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왔다. 쥐덫에 치즈와 피넛을 넣는 것은 케를 몫이었다. 맹세코 나는 그 교활한 미끼작전에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단순 살해청부업자일 뿐이다. 나는 컴퓨터 책상 위에 쥐덫을 올려 놓고 애써 일찍 잠을 청했다. 잠결에 '덜씩'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작전에 성공했구나!" 눈을 번득 뜨고 벽시계를 쳐다 봤다. 밤 12시 15분. 마침내 우리는 생쥐 한 마리의 살해작전에 성공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쥐덫을 쟁겨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케를에게 보여 주었다. 죄책감이었을까. 그녀 얼굴이 사색으로 변해갔다. 이유야 어쨌든 살생은 창조주에 대한 범죄 행위다. 케를이 집을 떠난 후 정월 큰 나무 밑을 파고 생쥐 시체를 안장했다. 돌덩이로 비석을 만들고 나뭇가지로 만든 십자가를 무덤 앞에 세워 두었다. 미안하다! 생쥐야! 다음 세상에서 보자. 에필로그 신이여! 부디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는 결코 당신의 포근한 숨결과따사한 손길로 창조한 생명들의 살해를 즐기는 악한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창조한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을 당신처럼 사랑합니다. 어제 밤 생쥐의 살해는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내 탓입니다. 케를의 잘못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낙엽을 밟으며 영혼처럼 울게 하소서.*** <버지니아 숲 속에서>

<8.15 69돌>



60여년 전 이야기<2>



홍용식(공대 51) VA

공과대학은 1953년 부산 가교사에서 서울로 돌아왔으나 교사 수리, 정리 등의 준비 때문에 즉시 수업은 못하고 제기동 사대부고와 대학로에 있던 중앙 공업연구소 건물을 빌려서 각각 몇 개월씩 강의를 하다가 공릉동 공과대학 본관으로 옮겼다.

▶**광주 보병학교에서 훈련** = 그리고 갑자기 생긴 대학 졸업반 특별훈련생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4학년 졸업반은 10주 동안 광주 보병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일등병 제대와 동시에 1955년 졸업을 하였다.

공대는 농대생과 함께 훈련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여러 모로 어려웠을 때에 우리 훈련생은 장교 훈련 수준으로 좋은 대우를 받고 전술강의, 사격훈련, 실탄사격장을 기어서 지나는 훈련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일등병 훈련생을 왜 장교대우를 해주느냐고 비난도 받았던 것으로 안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불행하게 지냈다. 그리고 부실한 공부의 영향은 미국 유학 중에도 오랜 동안 나를 힘들게 하였다.

휴전이 되고 전투의 위험이 없어진 서울은 향락의 도시로 변하고 모두 노는 데에 빠져 들었다. 사교춤 바람이 불어서 불법 댄스홀이 많이 생겼고, 팔 다리를 잃

은 상이군인을 경비원으로 고용하여 단속나온 경찰들과 싸우면서 손님을 보호하였다.

남녀 대학생들은 대낮에 다방에 모여 레코드판과 유성기(휴대용 수동식 record player)를 들고 물러다니며 가정집 마루나 방에서 춤을 추었다.

▶**희대의 탕아 박영수** = 가정주부가 춤바람이 나서 대학교수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주제로 한 정미석의 '자유부인' 장편소설이 신문에 연재되어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고 영화로도 크게 히트하였다.

또 기막힌 춤숨씨로 유명 집안

“나와 눈이 마주치자 다들 일어나더니 층계를 내려가고 있는 내게 다가왔다. ‘이제 KKK에게 잡혀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몸이 굳었고 안색이 변했을 것이다”

의 여대생 딸 수심명을 농락한 희대의 탕아 박영수라는 청년의 재판에서 “법은 스스로 정조를 지키려는 여자만을 보호한다”라는 판결이 유행어처럼 떠돌아 다녔다. 박영수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요새 골프 잘 치는 사람이 모임에서 인기가 있듯이 당시에는 댄스 잘 추면 환영받고 인기가 있었다. 나도 전에 상해의 사교계에서 날렸다는 나의 친구 아저씨에게서 정식으로 춤을 배웠는데, 후에 업무활동과 관련한 파티에서 또 은퇴 후에 많이 다닌 크루즈 여행에서 활용하는 기회가 많았다.

▶**내 춤숨씨가 TV에 방영** = 그런데 얼마 전에 중앙아시아 여행 중 동행했던 모 TV 카메라맨이 우리 부부의 춤추는 비디오 사진을 찍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TV 방영도 했다. 멋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들어 등이 꾸부정

←1956년 유학을 떠난던 날 여의도 비행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고 약간 더듬기도 하는 내 자신을 보고 실망하였다.

사람들이 환락에 들떠 있는 중에서도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에 미국유학을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다들 다방에 앉아서 누가 미국유학을 떠났느냐니, 어느 대학이 어떻다느냐, 스칼라십이 어찌느냐 하고 떠들어대는 무리를 어디 가나 흔히 볼 수 있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군사, 경제 원조에 의하여 정부는 장학생과 파견 훈련생을 많이 보내고 있었으나, 종교단체나 다른 장학프로그램의 도움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기 노력으로 미국유학 가기는 쉽지 않았다. 미국에 연고없이 재정보증서 구하기도 힘들었고 문교부 시험이 어려웠다. 유학간다고 송별회만 몇 번 받고 포기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어려움 외에도 우리 세대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기도 했지만 일본 문화에 익숙한 교수들의 권위주의식 채점 때문에 성적이 일반적으로 나빴다.

서울대학교 성적표가 특히 그랬던 것 같다. 미국에 입학원서를 내면 성적 때문에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다른 대학은 잘 모르겠으나, 서울대에서는 한때 교부처에서 유학용 영문 성적표 발부시에 서울대학교는 다른 대학과 성적 기준이 달라서 서울

대 어렵던 시대였다. 모든 이별은 슬픈 것이지만, 특히 한 젊은 부인이 유학을 떠나는 남편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냐고 몇 번이고 물어가면서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던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

▶**별천지의 일본 동경** = 많은 미국 유학생들이 화물선을 타고 떠났는데 나는 그 당시로는 아주 고급 여행을 한 것이다.

동경, Wake Island, 하와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로스엔젤스에서 10인승 작은 비행기로 갈아타고 서울을 떠난지 만 나흘만에 엘라바마의 몽고메리(Montgomery)에 도착하였다. 판자집 하나 서 있는 비행장에서 내려 택시로 시내 Greyhound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였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온 우리에게 동경시내는 별천지 같았고 그 발전상을 보고, 우리 젊은 유학생들은 그날 밤에 함께 모여 빨리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일본을 따라잡자고 다짐하는 작은 애국심과 순진함을 보기도 하였다.

▶**Wake Island에 도착** = 다음 날 지루하고 긴 비행 끝에 2차대전 시에 라디오와 신문 등에서 많이 들어 유명한 Wake Island에 도착하였다.

Wake Island는 2차대전시 미군의 중요한 태평양 중간기지였으나 개전 초에 일본군이 점령하여 미

군 어렵던 시대였다. 모든 이별은 슬픈 것이지만, 특히 한 젊은 부인이 유학을 떠나는 남편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냐고 몇 번이고 물어가면서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던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

▶**별천지의 일본 동경** = 많은 미국 유학생들이 화물선을 타고 떠났는데 나는 그 당시로는 아주 고급 여행을 한 것이다.

동경, Wake Island, 하와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로스엔젤스에서 10인승 작은 비행기로 갈아타고 서울을 떠난지 만 나흘만에 엘라바마의 몽고메리(Montgomery)에 도착하였다. 판자집 하나 서 있는 비행장에서 내려 택시로 시내 Greyhound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였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온 우리에게 동경시내는 별천지 같았고 그 발전상을 보고, 우리 젊은 유학생들은 그날 밤에 함께 모여 빨리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일본을 따라잡자고 다짐하는 작은 애국심과 순진함을 보기도 하였다.

▶**Wake Island에 도착** = 다음 날 지루하고 긴 비행 끝에 2차대전 시에 라디오와 신문 등에서 많이 들어 유명한 Wake Island에 도착하였다.

Wake Island는 2차대전시 미군의 중요한 태평양 중간기지였으나 개전 초에 일본군이 점령하여 미

군 어렵던 시대였다. 모든 이별은 슬픈 것이지만, 특히 한 젊은 부인이 유학을 떠나는 남편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냐고 몇 번이고 물어가면서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던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다.

▶**별천지의 일본 동경** = 많은 미국 유학생들이 화물선을 타고 떠났는데 나는 그 당시로는 아주 고급 여행을 한 것이다.

동경, Wake Island, 하와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로스엔젤스에서 10인승 작은 비행기로 갈아타고 서울을 떠난지 만 나흘만에 엘라바마의 몽고메리(Montgomery)에 도착하였다. 판자집 하나 서 있는 비행장에서 내려 택시로 시내 Greyhound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였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서 온 우리에게 동경시내는 별천지 같았고 그 발전상을 보고, 우리 젊은 유학생들은 그날 밤에 함께 모여 빨리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일본을 따라잡자고 다짐하는 작은 애국심과 순진함을 보기도 하였다.

▶**Wake Island에 도착** = 다음 날 지루하고 긴 비행 끝에 2차대전 시에 라디오와 신문 등에서 많이 들어 유명한 Wake Island에 도착하였다.

Wake Island는 2차대전시 미군의 중요한 태평양 중간기지였으나 개전 초에 일본군이 점령하여 미



군의 탈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켰던 섬으로 전후에 PanAm의 태평양 노선 중간 기착지가 되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에 이 섬에 착륙하여 관갓집 식당에서 따뜻한 커피와 도넛을 맛있게 먹은 생각을 하면 57년이 지난 지금에도 입에 침이 고인다.

몽고메리 Greyhound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나는 정류장 정문으로 들어가려는데, 택시 기사 손짓으로 정문 바로 옆에 붙은 작은 카페테리아의 출입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닌가!

▶**Colored Only, White Only** = 당연히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식인데, 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만 해도 미국의 인종차별 얘기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덜컥 겁마져 들었다. 다시 기사를 돌아보니 기사는 미소를 띄며 정류장 정문의 윗 부분을 손으로 가르켰다. 거기에는 'Colored Only' 라고 적혀 있고 옆의 작은 식당 출입문에는 'Whites Only' 라고 쓰여 있었다. 나를 백인 대우를 해준 것이었다.

안도의 숨을 돌리고 나는 카페테리아로 들어갔다. 식당 안에는 백인만 있고 흑인은 출입금지로 문 밖에서 주문하고 다른 곳에

←왼쪽 사진은 서울 수복 후 공대 본관에서 기계과 9기 동기들과 함께. 오른쪽 사진은 광주 보병학교 훈련 때 앞줄 오른쪽이 필자의 모습이다.

가서 먹는다. 모든 수도꼭지는 두개가 붙어 있는데 백인용과 흑인용이 구분되어 있었다. 말로만 들던 인종차별 현장을 직접 경험하니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버스 좌석에도 백인용·흑인용** = 버스 내부는 전반 좌석은 백인용이고 후반 좌석은 흑인용으로 나뉘어 있었다. 맨 앞 좌석은 좀 불안해서 나는 몇 줄 뒤에 앉고 버스는 출발하였다. 얼마를 달렸는지 버스는 내가 가려는 대학 도시인 Auburn에 도착하였는데 외국학생 지도 교수가 보내온 편지에는 여기에서 내리지 말고 다음 역에서 내리라는 것이었다. 대학은 틀림없이 여기인데 왜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창 밖으로 멀어져 가는 대학 캠퍼스를 보면서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버스 좌석에도 백인용·흑인용** = 버스 내부는 전반 좌석은 백인용이고 후반 좌석은 흑인용으로 나뉘어 있었다. 맨 앞 좌석은 좀 불안해서 나는 몇 줄 뒤에 앉고 버스는 출발하였다. 얼마를 달렸는지 버스는 내가 가려는 대학 도시인 Auburn에 도착하였는데 외국학생 지도 교수가 보내온 편지에는 여기에서 내리지 말고 다음 역에서 내리라는 것이었다. 대학은 틀림없이 여기인데 왜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창 밖으로 멀어져 가는 대학 캠퍼스를 보면서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버스 좌석에도 백인용·흑인용** = 버스 내부는 전반 좌석은 백인용이고 후반 좌석은 흑인용으로 나뉘어 있었다. 맨 앞 좌석은 좀 불안해서 나는 몇 줄 뒤에 앉고 버스는 출발하였다. 얼마를 달렸는지 버스는 내가 가려는 대학 도시인 Auburn에 도착하였는데 외국학생 지도 교수가 보내온 편지에는 여기에서 내리지 말고 다음 역에서 내리라는 것이었다. 대학은 틀림없이 여기인데 왜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창 밖으로 멀어져 가는 대학 캠퍼스를 보면서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동기를 추모하며

고(故) 한성학 학형에게



조동준(의대 57) CA
미주 동창회보
전 논설위원 겸 편집위원

오늘 밤에는 자네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책상 앞에 앉았네. 작년 봄부터 췌장암으로 투병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동안 Seattle이라는 곳이 내 머리에서 떠난 적이 없었네.

자네는 Columbus, Ohio에서 은퇴하고, 장녀가 사는 Seattle로 옮겨 갔었지. 그곳 이종성 학형으로부터 지난 밤 자네의 부음을 들었네. 참으로 비통한 소식이었지.

폐암으로 5년 동안 고생하고 떠난 제수씨 뒷바라지 끝에 한숨 돌릴 사이도 없이 장녀 숙미의 권고로 받은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네. 자네가 그 진단에 얼마나 허망해했을지, 그에 대한 생각이 끝이 없었을 것으로 짐작이 가네.

사실은 자네의 임종이 가까워졌을 것이라는 예감에 그저 걱정만 해오고 있던 중이라 '기어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 뿐이었

어. 작년부터 종종 자네 집에 전화했으나 통화를 못해 message를 남겨 놓으면 늦게나마 꼭 전화를 해주던 자네였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소식이 없었기에 걱정을 하고 있던 중 기어코 이처럼 슬픈 부음을 듣고마는구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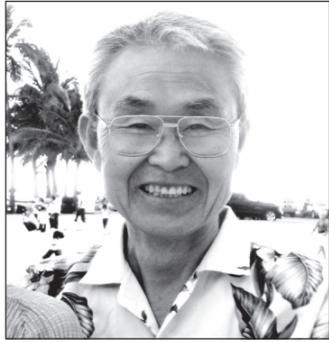
근년에 여기 저기서 무슨 암이다, 무슨 암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이제 자네까지 떠났으니, 내 차례도 점점 가까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실은, 요즈음 사는 것이 마치 지뢰밭을 피해야 하며 살아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이제 우리도 곧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렀으니, 자네가 친구 다 두고 너무 빨리 간 것이 아니라 단지 남은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떠난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주 역조창생의 영겁(永劫)에 비한다면 3-4년, 아니, 혹시라도 30-40년을 더 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겨우 티끌 정도도 안되지 않겠나. 저 세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곧 뒤따라 갈 사람들이니 말일세.

그곳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기에 미안한 마음 그지없네. 하지만 New York에서 흥선경씨가 동창생 대표로 참가하고, 마침 한국에서 최호용 동창이 방문 중이라 장례식에 참가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곳 한중하·이종성 동창이 함께 했다는 소식 들었네.

장녀 숙미에게서, 손주를 8명이나 두고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들



었는데, 그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눈에 밝혀 어떻게 눈을 감았을지를 생각하면 그 애절한 심정을 어찌 모두 헤아릴 수 있겠나.

우리는 모두 125명이 의과대학을 같이 다녔지만 진짜 우리들의 가까운 친분은 미국 Cincinnati시에서 다시 만났던 1968년부터였지?

무려 85명의 동기들이 이곳 미국으로 왔는데 자네는 한국에서 internship 자리를 찾아오고, 나는 residentship 첫 해 자리를 얻어 갔던 곳으로, 자네의 자동차 운전은 내가 가르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네.

1년 후 New York City로 이사를 함께 갈 때도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운전해 갔던 기억도 생생하네. 미리 아파트도 알아보지 않고 New York City로 떠난 우리는 자네의 아파트에서 한 달간 신세진 것도 기억에 남아 있어. 우리는 그 때 아이들도 없는 신혼부부로 단출했었지.

자네는 둘째 딸 부미를 한국에 두고, 첫째 딸 숙미만 미국으로 처음 데려왔던 것으로 기억하네. 자네는 Bronx에서, 우리는 Fort Lee, New Jersey에서 우리들의 New York 생활은 시작되었지.

그리고 33년 전 내가 대륙횡단을 해서 이곳 Los Angeles로 이사

부군 추모 시

사랑의 편지

오(조)봉완(법대 53)
Georgetown대 명예교수



55년 전 편지를
당신이 떠난 지
4년 만에 찾았어요

약혼과 결혼 사이 일년간
뉴욕과 워싱턴에
떨어져 있었을 때
당신은 90통의 편지를
보내 주었어요
과오도 없이 타이프로 친
영문 편지였어요

새삼스레 놀랐어요
그다지도 다정하고,
솔직하게
사랑을 고백했었는지

기억해요
송구스러웠었고,
부끄러웠던 것...

멋지고 위엄있는
대학원 학생인 당신이
철없는 학부 3학년인
나를 좋아하다니?
반세기 전의 편지에서
순수한 열정이
흘러 나왔어요

기억해요
황당했었지만 감사했던 것
그런 사랑의 고백
받아 본 일 없었고
그토록 깊이 생각하고,
아끼며 표현해 주어서

사랑 깊은 50여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워하며
나는 버터 나가요
반세기 넘은 당신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지난 2010년 작고한 당신 오
기창(법대 50·워싱턴 DC 가톨릭
대 부총장 역임) 박사를 추
모하며... ***

올 때, 자네를 찾아 Columbus, Ohio를 거쳐오면서 하룻밤을 신세진 기억도 생생해.

또 생각나는 일은 졸업 35주년 Reunion 행사를 서울 근처 Oak Valley에서 할 때, 무대에 올라 가서 하던 자네의 만담에 그곳에

모인 동창부부 모두가 배꼽을 잡은 기억도 있네. 만담 솜씨는 전혀 예측 못했던 일이었지.

지난 46년 동안의 우리들의 추억을 더듬어 보면 자네는 항상 생각이 깊고, 남을 배려하는데 일드했던 것으로 기억되네. 아내와 네 딸들에게 항상 자상하며 가정적인 아버지이자 남편이기도 했어. 생전에 큰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으며, 화난 얼굴을 보여준 적도 없고 말이야.

자네가 마취과 의사로 개업했던 Columbus, Ohio와 은퇴 후 장녀가 살고 있는 Seattle로 옮긴 후 나는 이곳 LA에서 줄곧 살아왔기에 그동안의 자네에 대한 소식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의사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모습이 나에게 남아 있는 자네의 모습 전무일세.

어쨌거나 우리들의 이 세상 인연으로 볼 때 서로가 이만큼의 좋은 추억을 나누어 온 친구도 생애에서 많지 않을 것 같아.

이만큼 살아 보니 이제는 인생이 무엇인지 결론이 보이는 것 같네. 누구였던가. 'Life is for living and caring and sharing with people we love' 란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딸과 사위들, 그리고 8명이나 된다는 손주들, 모두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좋은 DNA를 받았으니, 자네의 빈 자리를 잘 메꾸어나갈 것으로 짐작되니만큼 후손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기독교 신자인 자네는 이제 천당에 갈 테지만 무신론자인 나는 천당에 갈 수는 없겠지만 만약 사후의 세상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는데...

<지난 7월 25일 동기 한성학의 부음을 듣고> ***

세 나무 이야기



김학천(치대 73) CA

지난 주말에 모처럼 필렌을 다녀왔다.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농가를 따라 한참을 들어가니 궁궐같은 집과 주위에 넓은 매실 나무 농장이 끝이 보이지 않게 펼쳐졌다.

여기 저기 구경하다 인근 산 속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통나무집에 들렀다. 기슭을 따라 이리 저리 둘러보고 나오려던 차에 그만 무언가에 찔렸는지 정강이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다. 바지 자락을 울려 보니 예리한 도구에 찔린 듯 상처가 나 있고 피가 양말에까지 물들어 있었다.

곁에 있던 한 분이 '조슈아 나무' 라고 가르쳐 주었다. 조슈아 나무란 19세기 중반에 순례자들이 모하비 사막을 횡단하던 중

발견했다고 한다.

나뭇가지들의 모습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기도하는 형상으로, 마치 약속한 땅을 가리키는 성경의 여호수아의 팔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상처를 응급처치하려고 약국을 찾는데 깊은 산중이라 그런지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애 좀 먹었다.

옛날 선조들은 밤엔 별을 따라, 낮엔 나무의 모습 따라 길을 찾았다는데 과학이 발달했다는 오늘날 사는 우리가 이 정도라는 생각에 그들의 지혜가 느껴졌다. 그런데 별이나 나무가 안내한 것이 어디 길 뿐이라. 그들이 인간에게 삶과 꿈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문득 엘레나 파스켈리의 '세 나무 이야기' 가 떠올랐다.

먼 옛날 산마루에 아가나무 세 그루가 각자의 꿈을 갖고 있었다. 아름다운 보석상자가 되기를 원했던 올리브 나무, 왕이 타는 멋진 배가 되고 싶었던 떡갈나무, 산마루를 떠나지 않고 남아 하늘을 향해 꽃꽂이 서있기를 원했던 소나무, 이렇게 세 그루였다.

세월이 흘러 아가나무들이 커다란 나무가 되었던 어느 날, 나무

꾼 세 사람이 산으로 올라와 하나씩 베어갔다.

첫번째 올리브 나무는 가족들의 여물을 담은 초라한 구유가 됐고, 두 번째 떡갈나무는 조그만 고깃배가 됐다.

마지막 소나무는 막대 기둥으로 잘려 뒷뜰에 그냥 팽개쳐져 쌓인 채 세 그루 모두 어릴 적 꿈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런 어느 날, 첫번째 올리브 나무로 된 구유는 마구간에 있었는데 한 젊은 여인이 와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자 찬란한 별빛이 구유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사람들이 보물을 가지고 와 예물로 드렸다.

둘째 떡갈나무로 만들어진 고깃배는 사람들을 싣고 바다로 나갔다가 큰 폭풍을 만났는데 배 안에서 자고 있던 한 남자의 "잠잠하라!" 는 한 마디에 폭풍은 이내 조용해졌다.

둘째 떡갈나무는 '내가 천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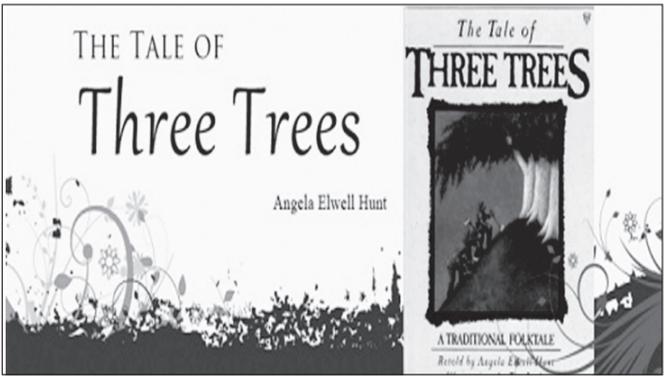
왕을 모시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다. 목재소 뒷뜰에 팽개쳐져 있던 셋째 소나무는 금요일 아침 한 남자의 어깨에 걸쳐진 채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병사들이 그 남자의 손발을 그 소나무에 묶고 그의 몸에다 못을 박았다.

그런 일이 있던 사흘 뒤 세상은 새롭게 변했는데 그 때부터 사람들은 셋째의 소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위대한 창조주를 떠올리게 됐다.

아무리 걸보기에는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할 수 있다. 우리도 마음에 무엇을 품고, 또 꿈꾸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는 달라진다.

어느덧 어둠이 찾아온 넓은 앞마당에 불피우고 모여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데 밤 하늘에 별들이 나와 인사를 한다. ***



동문 및 동문단체 동정(일부 중앙·한국일보 인용)

남가주 공대 동창회 노명호(공대 61) 전 회장

모교에 발전기금 10만 달러 출연

지난 6월 14일 남가주 ‘작가의 집’에서 ‘서울대 남가주 발전기금 모금 및 기부자 감사 만찬회’가 80여 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종철(치대 62) 남가주 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 행사에서 이서희(법대 70) 남가주 동창회장 및 최재현(수의대 63) 민주평통 LA 협의회 회장의 축사와 서울대 발전기금 상임이사 김형주(공대) 교수 등의 감사 말씀이 있었다.

후반부에는 발전기금으로 100억 이상을 출연한 정석규(공대 48) 이사장의 업적과 모교 사랑에 대한 동영상 관람 뒤 모교 기획처장 김형주 교수의 ‘서울대 발전기금 보고’와 미주재단 이만택(의대 51, 뉴욕 거주) 이사장의 ‘미주재단 활동 현황보고’가 있었다.

이어 남가주 노명호(공대 61) 전 공대 동창회장의 10만 달러 기부금 전달식과 본교 발전위원회에서 수여하는 감사패 전달식



을 가졌다.

또한 서울대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1만 달러를 기부한 정동구(공대 57) 박사를 비롯하여 역대 총동창회장, 각 단과대 회장 및 총

동창회 이사 등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모교 사랑과 동문들의 우애를 다졌다.

본 행사 뒤 단체사진 촬영과 저녁식사를 하며 동문들은 친목을

←지난 6월 남가주 ‘작가의 집’에서 공대 동창회 노명호 전 회장의 10만 달러 출연식 후 이 자리에 모인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더욱 돈독히 했다.

특히 전반과 후반에 음대 동문들의 축하 연주가 있었는데, 이방은(음대 63) 동문의 신들린 듯한 첼로 연주와 제갈소망(음대 02, 현재 USC 연주자 과정) 동문의 탁월한 피아노 연주는 모인 분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추상화에서 우리에게 전해 오는 색채의 향기와 첼로와 피아노에서 빛어지는 선율들의 조화는 이날의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 주었다.***

<글·사진 = 남가주 동창회 홍선례(음대 70) 클럽협력위원장>



박 유니스(문리대) 동문 ‘버지니아에서 온 편지’ 출간

“60대에 등단해서 70대에 첫 수필집을 내는 소회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 대견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 오후 6시 LA 용수산에서 박 유니스(문리대) 동문의 수필집 ‘버지니아에서 온 편지’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100여 명의 동문 및 친지, 수필문학가 협회원, 경남여고 동문들이 축하를 받으며 색다른 분위기의 만찬 파티로 열렸다.

김화진 수필가 사회로 대흥장로교회 권영국 목사는 박 유니스 여사의 아름다운 글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과 아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는 기도를 드렸다.

재미 수필 문학가 협회 성민희 회장은 인삿말에서 “협회 부회장으로 든든한 삶의 기둥으로서 뒤에서 말없이 물심양면으로 협회를 위해 매써 주심에 감사하며 함께 하는 문화활동이 즐겁고 출간까지 하게 돼 가장 기쁜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가소개에서는 퀴즈 형식으로 어디에서 나서 어디에서 성장했는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에서는 “돼지족발이 아니냐”는 대답에 웃음을 자아냈다.

박 동문은 서울에서 출생해 부산에서 성장했으며 경남여고와 모교 문리대 불분과를 졸업하고 UCLA 수학 후 고 박영기 동문과 결혼해 아들 앤드루와 딸 켈린

← ‘버지니아에서 온 편지’ 출판기념회에서 딸 켈린(왼쪽)과 아들 앤드루가 어머니 박 유니스 동문과 기념촬영했다.

을 두고 있다.

앤드루는 버클리, 켈린은 카네기 멜런을 졸업하고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다.

작품소개에서 성영라 회원은 ‘진주(내 수필 사랑도 진주처럼 조가비 속에서 희고 빛나게 영글어 가고 싶어...)’, 이희선 회원은 ‘어떤 감사(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세는 마음으로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나타내고 마음으로 표현하고 헌신한다...)’를 낭독하는 가운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내빈축사에서 이해영(공대 56) 박사는 1665년 유학시절 오랜 친구 고 박영기 동문 내외를 회상하며 당시 여자 유학생으로 뛰어난 미모와 현모양처의 아름다움을 추사했다.

노말선 로렌드대표는 남들이 못보는 것을 보는 예리한 눈으로 글에 나오는 언어의 표현법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사했으며, 오형원(의대 51) 박사는 60년 넘는 친구로 지난 날을 생각하며 따뜻한 깊은 우정의 나날들을 회상했다. 이준영 장구 연주가의 흥겨운 뱃노래와 장구 연주는 절로 흥을 돋워 주었다.

<글·사진 = 미주 동창회 백옥자(음대 71) 조직국장>

작가·번역가 이태상(문리대 55) 동문 칼릴 지부란의 ‘예언자’ 역서 출간



뉴욕 출신 작가이자 번역가인 이태상(문리대 55) 동문이 최근 칼릴 지부란의 시집 ‘예언자’ 역서를 출간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인 ‘예언자’는 지부란의 사상과 진리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책이다. 국경과 종교, 관념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신비로운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지금까지 널리 읽히고 있다. 특히 인간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화두인 사랑,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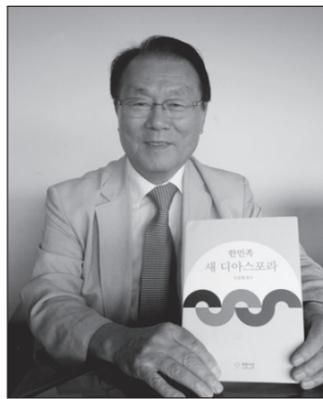
삶, 인생, 열정 등 인간의 이야기 통찰력 있는 사상으로 전하기 때문이다. 책 속의 예언자인 알무스타파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평소 알고 싶어 하는 인간 삶의 본성에 대한 답을 제시해준다.

이 동문은 지부란과 인연이 깊다. 1978년 지부란의 문제작 ‘반항의 정신’을 최초로 번역해 소개한데 이어 한국의 월간지 ‘사상계’에 지부란의 ‘골짜기의 요정들’을 연재하기도 했다.

이 동문은 “예언자를 번역하면서 새삼 지혜의 스승인 지부란의 철학과 인생과 동양적 사상에 매료됐다”며 “그의 주옥같은 글들이 한인들에게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동문은 모교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학에서 철학과 법학을 수학했으며 한국일보 발행영자신문인 코리아타임스와 합동통신사 해외부 기자를 지낸 후 현재 뉴욕주 법정부역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

수필가 신갑철(법대 56) 동문 ‘한민족 새 디아스포라’ 출간



한국 수출입은행 LA 사무소 초대 소장을 역임한 수필가 신갑철(78·사진·법대 56) 동문이 한국인 23인의 생생한 성공 스토리를 담은 ‘한민족 새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펴냄)를 최근 출간했다.

‘국내의 자녀, 손자 손녀들과 자라나는 동포 후손들을 위해 이

책을 남깁니다’ 라는 글처럼 이민자의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선 한국인 멘토 23인을 선별해 9개 분야로 나눠 그들의 스토리를 써내려간 희망의 지침서다.

신갑철 동문은 모교 법대 졸업 후 1977년부터 1992년까지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근무했으며 인도네시아 재무성 차관관, 한국 무역보험공사 이사 등을 지낸 바 있다.

신 동문은 슬하에 2녀 1남과 손자 손녀 7명을 두고 있다.

저자인 신 동문은 역시 이같은 후손들을 위해 1부 자유와 평화의 화신 중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동심’과 3부 조국 혼과 인생 교훈 중 ‘화음으로 이웃을 아우르며 살자’ 등에서 언급한 자신의 삶을 통해 후세에게 귀감이 되는 멘토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뉴 프런티어 교회 담임목사 류인현(사대 92) 동문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출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맨해튼 21 St.선상 8-9Av. 사이에 있는 PS11 윌리엄 헤리스 초등학교에 청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다. 보기엔 다른 학교와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의 한 구절처럼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찾는 이곳은 뉴프런티어 교회 본당이다.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곳 맨해튼에 뉴프런티어 정신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의 깃발을 흔든다’는 교회 사명에 걸맞게 1천명이 가까운 청년들이 복음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역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 있는 킹스칼리지 강당에

서 교회의 친정이라 할 수 있는 뉴저지 초대교회의 맨해튼 청년 예배로 시작, 2008년 2월 지금의 학교로 예배 장소를 옮겼고 2009년 6월 뉴프런티어교회로 뉴욕시에 종교법인으로 등록했다. 첫 예배 당시 20여명에 불과했던 성도 수는 50배 이상 늘면서 미주 최대 젊은이 교회로 성장했다.

이 교회의 총 사령관은 올해로 7년째 청년 사역을 펼치고 있는 류인현(사대 92) 담임목사다.

류 목사는 최근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독특한 제목의 책을 냈다.

류 목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고유의 색깔을 주셨는데 빠른 성공과 최고 일등만을 칭찬하는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은 조금



헤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책이 세상의 높은 파도 앞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위로를 넘어 강한 도전을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총 4개 파트 20개 챕터로 이뤄진 책은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고민하고 느끼는 것들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UC데이비스 의대 전 교수 박세록(의대 57) 박사

‘통일로 가는 길’ 칼럼 게재

중국을 중심으로 25년간 북방전교 사역을 해온 박세록 박사(사진, MD·의대 57)가 ‘통일로 가는 길’ 칼럼을 매주 첫째, 셋째 화요일 미주 한국일보에 게재하고 있다.

이 칼럼을 통해 박세록 박사는 지난 1989년부터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강을 건너 세계 선교로’ 사역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한민족의 숙원인 ‘통일로 가

는 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세록 박사는 모교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 유학을 와 산부인과 의사와 UC데이비스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다가 은퇴했다.

지난 1989년부터는 북미 기독교의료 선교회를 조직하여 평양 제3 병원을 세웠고 우리 민족 서로돕기운동, 한민족 복지재단을 창설했다.

박세록 박사는 현재는 국제SAM



의료복지재단 총재 겸 단동 복지병원 원장으로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주미 대사관 영사과 이준호 참사관 부임

“동포들에게 찾아가는 영사빌터”

주미 대사관 영사과에 이준호 참사관(사진)이 지난 8월 18일 부임했다.

이준호 참사관은 모교 외교학과와 UC 샌디에고(석사)를 졸업했으며 외교고시 28회로 1994년 외교부에 입부했다.

그동안 주 영국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본부에서 북미과 서기

관, 인사운영팀장, 북핵정책과장을 지냈다. 이 참사관은 앞으로 워싱턴 DC 지역 동포 담당 영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 참사관은 “영국에서 영사업무를 경험해봐 낯설지는 않다”며 “동포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찾아가는 영사업무를 하겠다”고 부임 소감을 밝혔다.



전임 정기용 영사는 대사관 의회과로 전임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유상대(경제 82) 소장

경제상황 급변...조사 연구등 중요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지금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조사 연구와 정보수집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 7월 23일 뉴욕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유상대(51.사진 경제 82) 소장은 지난 8월 28일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런던사무소와 함께 3천 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일정 비중을 실시간으로 미국과 영국 현지에서 운용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리서치와 연구를 통해 미국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짚어 내는 것 역시 뉴욕사무소의 역할

이다. 유 소장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정책, 그로 인한 시장의 유동성 증가와 이머징 마켓의 변화 급리 등 국제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할만한 변수도 더욱 많아졌다”는 게 유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뉴욕은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중심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연준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뉴욕연준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소장은 1986년 모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뉴욕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은행에는 지난 1986년 입행한 이후 조사부 조사역 국제국과장 금융시장국 부국장 국제국장 등을 지냈다.***

산호세 주립대 정정순(사대 56) 명예교수

자녀 양육 ‘자녀 교육 이야기’ 출간

“지난 40년간 아동학 강의와 연구 생활을 통해 얻은 지식과 세 아이를 기르면서 얻은 경험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제시하는 육아원칙이 모든 부모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양육문제에 곤경에 처했을 때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었으면 한다.”

산호세 주립대학의 아동학 교수로 40여년간 재직했던 정정순(사대 56) 명예교수가 대학에서 연구와 실제 자녀를 키우면서 얻은 경험을 기초로 자녀 양육에 대한 안내서를 출간했다.

‘어느 노교수가 들려주는 자녀 교육 이야기’로 제명이 붙은 이 책은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

이나 이론 제시가 아니라 아동학의 최전선에서 세 아이의 어머니로서 삶으로 체득한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의 ‘여백’ 출판사가 최근 간행한 이 책은 1부 부모되기, 2부 임신 육아의 실제, 3부 행복한 자녀교육을 위한 조언등 3부로 구성되어 자녀 교육의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정순 명예교수는 “이 책은 자녀를 키우는 무슨 특별한 비법이나 성공담을 전수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젊은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면서 맞닥뜨리게 될 여러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찾고자 할때 이 책이 길라잡이가 될수 있을것으로 믿는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자녀가 타고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저자 정정순 명예교수는 지난 1960년 모교 사범대학 가정학과를 졸업하고 1961년 조지아 대학에서 아동발달학으로 석사 학위,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5년부터 산호세 주립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아동학과 과장을 역임한 후 지난 2007년 정년퇴임,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다.

정 교수는 ‘한국 이민가정에서의 청소년과 부모갈등’ 등 26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산호세 주립대 최우수 가정학과 교수상, 미국교육연구학회(AERA)우수연구상도 수상했다.

저자의 연락처로 e-mail : chungckin@gmail.com ***

LA총영사관 김종한(인문 87) 영사 부임

“LA는 세계 한인사회의 롤 모델”



로 동포업무를 보던 전 영사는 정무업무를 맡았다. 김 영사는 총영사관 부임 직전까지 외교부 재외동포 과장으로 전 세계 동포업무를 총괄하기도 한 만큼 동포사회에 대한 이해나 관심도 많은 편이라고 소개했다.

모교 중문과와 행정대학원을 마쳤고 외교고시(28회)에 합격 1994년 외교부에 입부했다. 공관 근무는 2004년 북경 주 중국 대사관을 시작으로 주 선양 총영사관, 주 호주 대사관에서 근무했으며, 외교부 본부에서는 재외동포과와 동북아협력팀장으로도 활동했다.

“LA한인사회는 역사가 깊고, 세계 한인 커뮤니티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곳입니다. 한인 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롤 모델인 곳이기도 합니다. 지원도 잘 해야겠지만 화합을 통해 동포들의 권익증진과 정치력 신장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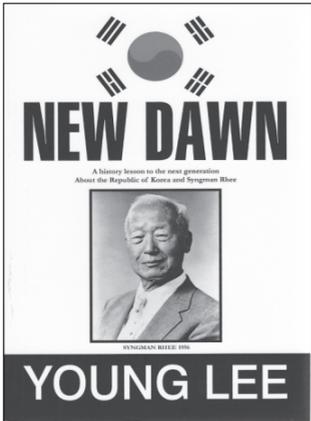
LA총영사관에 동포업무를 전담할 외교부 소속 김종한(47.사진 인문 87) 영사가 지난 8월 부임했다.

김 영사는 이임하는 안민석 정무영사 후임으로 왔지만 동포업무를 희망, 전근석 영사와 역할을 조정했다. 김 영사의 부임으

한인사회에서 큰 관심이 있는 선천적 북수국적문제, 영주 귀국을 원하는 고령 동포를 위한 북수국적 나이 확대 실시, 재외 동포전담기구(동포처) 설치 등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김 영사는 “외교부에서는 동포사회의 애로사항을 끊임없이 파악하고 있고, 동포들의 처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것은 홍보를 통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영(공대 59) 동문

영문소설 ‘New Dawn’ 출간



이영(공대 59) 동문이 두번째 서적 ‘New Dawn’을 출간했다.

영어로 기술된 이 서적에 대해 이영 동문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기를 통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며 새로운 미국 생활 47년의 안목으로 쓴 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이영 동문은 “우리 2-3 세대이나 한국내의 젊은 세대가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의 역사를 영어로 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영 동문의 연락처는 ylee004@aol.com, 973-476-0050**

권영민 교수 UC버클리서 강의



빙하여 열리게 됐다.

권영민 교수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소속으로 ‘한국 현대소설’과 ‘한국 현대문학사’ 두 과목을 강의하게 된다.내년 봄 학기에는 ‘한국 현대시론’과 ‘일본 식민시대의 한국문학’에 대해 강의를 할 계획이다.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에서는 현재 안진수 교수가 한국영화 등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나 한국문학 과목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중국학과 일본학과 전공과목으로 수업이 진행되나 한국학은 부전공으로만 인정돼 왔다.***

UC버클리에 오는 8월 말 개강하는 가을학기부터 한국문학 강좌가 개설된다.

UC 버클리의 한국문학 강좌는 서울대 명예교수이며 단국대학 석좌교수인 권영민 교수를 초



울목회 '코리안의 노래' 보급나서

캘리포니아 서울대 미주 동문 목회자 협의회인 '울목회'가 지난 8월 7일 캘리포니아 우정의 종각에서 모임을 갖고 동문 이정근(사대 60) 목사가 작사한 '코리안의 노래' (미주 동창회보 8월호 7면 참조)를 함께 부르며 의미를 다졌다.

이 노래의 작곡은 기독교합창단 단장인 백경환(대학원) 목사가 맡았다.

총무 오명헌(농대 78) 목사는 "우리는 코리안, 하얀 무궁화"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현재 남북과 해외의 모든 우리 코리안의 민족 가요로 보급되고 있으며, 한국의 통일부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이어가는 노래로 평가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코리안의 노래 보급협회'도 발족돼 김삼도 목사(대학원, 어

↑캘리포니아의 '울목회' 회원들이 우정의 종각에서 '코리안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바인 할렐루야 교회)가 회장을 맡았다.

이 노래를 작사한 이정근 목사는 "이 노래가 국적, 종교, 이념, 세대를 초월하여 코리안의 피를 나눈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체감을 갖고 부를 수 있는 노래, 북한의 동포들까지도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949)514-4346

뉴욕 출신 소프라노 이일령(음대 81) 동문

버룩 칼리지 아트센터서 독주회

뉴욕 출신 소프라노 이일령(사진·음대 81) 동문의 독창회가 지난 8월 9일 오후 맨하탄의 버룩 칼리지 아트센터(55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10)에서 열렸다.

KSE(Korean Start-up Entrepreneur) 초청으로 뉴욕을 방문한 이 동문은 '미래를 위한 노래(Songs for the Future)'를 부제로 한인들에게 친숙한 노래 10여곡을 들려주었다. 콘서트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친숙한 '오버 더 레인보'를 비롯 '그리운 금강산', '경복궁 타령', '그네'와 같은 한국의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이 나왔다.

모교 음대 성악과를 졸업한 후 도미한 이 동문은 줄리어드 대학원, 메네스 음악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일찍이 한국에서는 동아콩쿨에서 입상해 실력을 인정 받았고 미국 유학 중에는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라 보엠', '코지 판 뚝뚝'에 출연한 것과 더불어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다수의 독창회와 조인트 리사이틀을 개최한바 있다.

이 동문은 현재도 꾸준히 독창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진명동문합창단 등에서 지휘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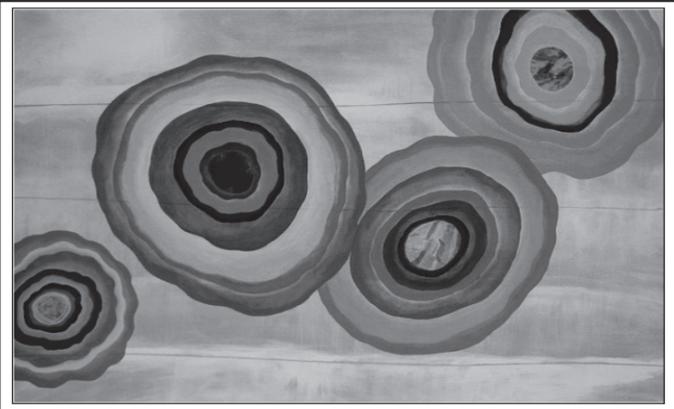
도밍고가 뽑은 오페라 유망주 박소영(음대 05)

600명 경쟁뚫은 영 아티스트 소프라노



LA 오페라의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 (Domingo-Colburn-Stein Young Artist Program)에 또 한 명의 성악가 박소영 동문이 선정돼 2014-15시즌에 합류한다.

LA 오페라는 이번 시즌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전 세계에서 무려 600명의 신청서가 쇄도, 이중 250명이 LA와 뉴욕에서 준결



남가주 미대 동창회 그레이스 임(미대 61) 회장

'화폭에 담은 신앙 고백' 개인전

남가주 미대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레이스 임(신혜자·미대 61) 동문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남가주의 리앤리 갤러리(Lee & Lee Gallery, 3130 Wilshire Blvd. #502 LA, CA 90010)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찬양의 계절(The Season of Singing)'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전시회에서 임 동문은 아가서(2:12)를 묵상하며 떠오른 신앙고백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 심령에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역동하는 생명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향기를 내뿜고 열매가 맺히고 새들과 만물이 합창하는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 마음의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의 노래(찬양)를 다양한 색채로 캔버스에 담아 보았습니다"라며 자신의 개인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레이스 임 동문은 모교 미대와 오티스 미술디자인 학교를 나와 텍스타일 아티스트로 일하면서 수많은 동문전과 그룹전에 참가했으며 2011년 첫 개인전을 가졌다.***

상인 레지던시로 꼽히고 있으며, 이곳 졸업생의 상당수가 메트로 폴리탄과 로열 오페라, 도이체 오페라, 바바리안 스테이트,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등 주요 오페라 공연무대에 캐스팅되어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12-13시즌에 들어온 소프라노 장혜지(음대 02) 동문이 2년 동안 여러 오페라에서 주요 배역을 맡아 호평 받은 후 최근 졸업했다.

박 동문은 모교 음대를 수석 졸업, 뉴잉글랜드 콘저바토리아에서 석사 학위,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공부하고 있다.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리콜레토'의 질다, '요술피리'의 밤의 여왕,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의 아모레 역을 맡았다. 이 중 '요술피리' 밤의 여왕은 아스펜 음악제와 보스턴 리릭 오페라에서 공연했고, 내년엔 오페라 콜로라도에서도 노래할 예정이다.

카네기 홀에서 열린 포르테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아스펜 음악제에서 소프라노 솔로리스트로 베토벤의 '에그몬트'를 공연한 바 있다.***

작가 신소연(미대 03) 동문

뉴저지 갤러리 음즈에서 개인전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신소연(미대 03) 작가가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뉴저지 티넥 소재 갤러리 음즈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작가는 주로 일상의 오브제들을 재료로 이용한 작품을 만든다. 최근에는 영수증을 예술 재료로 전환시켜 추상적 정물화 혹은 풍경화들을 만들고 있다.

쉽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일상의 물건들을 작업의 재료로 전환시켜 일상에서 우리가 놓치거

나 지나쳐버리는 사소하고 작은 부분들, 그리고 매번 확실히 흘러가는 순간들에서 일상의 특별함이나 소중함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도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작가는 모교 미대 조소과를 졸업한 후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석사학위를 마쳤다. 현재 뉴욕에서 작업하며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소프라노 김현심(음대 85) 교수

UH 오비스홀서 독창회

소프라노 김현심(음대 85) 교수의 독창회가 지난 9월 6일 오후 7시 하와이 대학교 음악대학 오비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이청행 교수의 피아노 반주로 한국 가곡의 밤으로 열리는 이번 독창회에서는 산유화, 달밤, 고흥의상 등 다양한 레퍼토리가 김

설아 국악인의 장구와 해금 연주와 함께 선보였다.

김현심 교수는 모교 음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및 뉴욕 맨하탄 음대(Manhattan School of Music)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경희대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삼가 조의를 포함합니다

▶이규진(약대 60·Houston) 동문 상배(喪配) = 지난 8월 18일

부인 이미경씨 Houston서 작고.
▶맹병규(문리대 70·Washington St.) 동문 모친상 = 9월 2일 한국에서 작고.***



워싱턴주 동창회

김신근 동문 자택에서 장 담그기

워싱턴주 동창회(회장 이원섭·농대 77)가 지난 7월 26일 김신근(문리대 60) 동문 자택에서 집들이 피크닉 겸 메주와 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김신근 동문 부인(홍귀숙)께서 직접 강사로 나서 메주와 장에 대한 강연과 장 담그기를 시연해 참가 동문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샘플도 맛을 보고 올해 장을 담글 동문들을 위해 중급도 나누어주었다.

이날 동문들이 여러 가지 준비해 온 음식으로 풍성한 저녁을 하였고, 김신근 동문께서 lime과 mint를 섞어 직접 제조해 서빙해

주신 Mojito(쿠바 전통 칵테일)는 일미였으며 참석하신 여러 여성 회원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김 동문 부인께서 준비해 만들어 놓으신 장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모양으로 그 모양의 유래와 장의 역사, 미국에서 간편한 제조 방법, 영양가 분석, 요리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귀가 길에는 직접 만든 고추장을 한 그릇씩 따로 용기에 나누어 주어 더욱 즐거운 분위기로 파티를 마쳤다.

저녁을 마치고 김신근 동문의 저택과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동문은 캐나다에서 오신지 1년 됐는데 이제

↑김신근 동문 자택에서 이루어진 이날 행사에 참가한 동문들이 강연에 경청하고 있다.
→김신근 동문과 부인이 자택에서 수확한 과일을 내오고 있다.

집 정리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정착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대지도 커서 말을 키우는 커다란 목장에, 경마장을 해도 될 만큼의 큰 마굿간이 시골 정취도 물씬 풍겼다.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 정착하시는 과정이기에 지신밟기 행사겸, 집을 한바퀴 둘러 보는 행사를 가진 것이다. 그 과정에 머위, 오이, 가지, 깻잎, 호박 등 가지 가지 채소를 야무지게 길러 놓으신 채소밭을 보고 모두들 경탄하였다. 행사와 장소를 제공해주신 김신근 동문(문리대 60)택에 감사드린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주신 동문들



은 장석주 동문 부부, 박진수 동문 부부, 이희백 동문 부부, 하주홍 동문 부부, 송준 동문 부부, 이원섭 동문 부부, Mrs 김재훈, 임석중 동문 부부, 이종성 동문 부부, Mrs. 윤태근, 유성렬 동문 부부, 이정관 동문 부부, 임석중 동문 부부 등이다. *** <글·사진 = 임현민(공대 84) 워싱턴주 동창회 수석총무>



메주·고추장·청국장 만들기 요령

김신근 동문 부인 홍귀숙 여사께서는 된장 담그기 강좌에서 다 음과 같이 '메주 만들기' 부터 고추장, 청국장 만들기까지 recipe를 공개하셨다.

메주 만들기

1. 콩을 충분히 불린 후 삶는다. 삶는 정도는 콩이 적갈색을 띠며

푹 눌러서 부서질만큼 연하고 감미와 끈기가 생길 정도로 삶는데 이는 콩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황국균의 작용을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삶으면 수분이 많아져 청국장균이 번식하기 쉽다.

2. 삶은 콩을 따뜻한 정도(40℃)로 식힌 다음 으갠 후 황국균을 섞어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5-9개의 통기공을 뚫어놓

←김신근 동문 부인 홍귀숙 여사가 직접 만든 메주를 보여주며 메주 만들기과 고추장 만들기, 그리고 청국장 만들기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는다. 집 위나 마른 풀 위에 서로 닿지 않게 모아놓고 담요를 씌운다. 메주를 덮은 담요 속의 온도는 26-28℃로 담요는 미리 깨끗하게 빨아서 말린 것으로.

3. 메주를 띄운지 24시간이 지나면 황국균의 포자가 발아하고 그 호흡열로 메주 자체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 이때 온도를 고르게 하고 황국균을 골고루 번식시키기 위해 담요를 벗겨 환기를 시키면서 메주의 앞 뒤를 바꿔 놓고 아래 위를 서로 바꾸어 준다. 그 후 7-8시간이 지나면 흰 곰팡이가 보이기 시작.
4. 흰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후 7-8시간이 지나면 흰곰팡이가 70-80% 가량 퍼지고 곰팡이의 생육이 왕성하므로 CO2가스와 호흡열이 많이 발생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데 40℃이상 올라가면 Bacillus균이 번식해 버리게 되니 담요를 벗겨 온도를 조절.
5. 그후 24시간이 지나면 황록색 곰팡이가 덮이는데 이때부터 48시간 띄움. 온도는 30-34℃로 유지. 담요를 덮었다 열었다 하

며 온도를 조절.

6. 황록색의 곰팡이가 덮인 메주는 즉시 햇볕에 말리는데 이때 메주 표면의 곰팡이가 수분을 찾아 내부로 들어가게 되어 메주 속까지 뜸. 메주는 바삭 마를 때까지 햇볕에 단단하게 말린 후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것이 좋으며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은 잡균이 번식한 것. 메주를 잘라 보았을 때 속까지 황록색으로 균사가 골고루 퍼져 있으면 잘 띄운 메주임.
7. 정월이나 2월 중에 소금물에 달걀을 넣어 위로 동전만큼 뜨는 염도의 물을 만들어 잘 씻은 메주에 부어 숙성시킴. 해가 잘 나는 날 환기와 별찌기를 해줌.

고추장 만들기

1. 고추장 메주는 콩과 쌀을 섞어 발효시킨 후 가루로 만든 것이 시판됨(한국식품점). 상품명 메주가루
2. 찰밥을 무르게 지어 28도와 30도 사이의 온도로 식으면 메주가루를 밥 대비 25-30% 정도 넣은 후 1시간에 한 번 정도 섞어 주면 점점 밥이 삭아 힘이 없어짐.
3. 물기가 좀 생기면 고추가루를 2-4번 정도 나누어 넣어주며

저어줌.

4. 이틀 후 소금을 4분의 1 정도 넣은 후 나머지는 삭은 정도에 따라 맛을 봐가며 조금씩 넣어줌. 소금을 늦게 넣으면 너무 삭아서 신맛이 나고 발효가 계속되어 물이 많아짐. 약 1-2개월이 지나면 숙성.

청국장 만들기

1. 콩을 메주 때 보다 훨씬 더 무르게 삶아(손으로 누르면 그냥 으개질 정도로) 구멍이 송송 뚫린 소쿠리 등에 쏟은 후 40도 정도로 식으면 낮도 한 봉지를 따뜻한 콩 위에 뿌려 둬(낮도는 식품점 판매)
2. 스티로폼 상자 밑에 짚이나 마른 풀을 깔고 소쿠리나 베 보자기에 넣은 후 뚜껑을 덮고 온도를 40도 정도로 48시간 정도 띄우면 완성. 실이 많이 나아 좋은 품질. 위의 발효균들은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균들이니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해야 한다. 각 과정을 진행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는 동문은 전화 425-457-9509번 김 할머니(홍귀숙 여사께서 본인을 그렇게 불러주도록 요청)에게 문의. *** <글·사진 = 임현민(공대 84) 워싱턴주 동창회 수석총무>



밴쿠버 동창회

건강 걷기대회·야유회·골프대회

밴쿠버 동창회(회장 이명규·농대 69)가 지난 6월 28일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건강 걷기대회를 실시했다.

이어 7월 26일은 하계 야유회를 개최했으며 8월 28일에는 정기골프대회를 열었다.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건강걷기 대회 = 6월 28일(토) 총 25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North Vancouver Lynn Canyon Park에서 개최했다.

밴쿠버를 밴쿠버답게 느끼게 해주는 화창한 날씨 속에서 호수와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산책로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

→임시 총회 및 야유회에 참가한 동문들의 즐거운 식사시간이다.

하며 건강을 증진함과 동시에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한 것이다.

▶임시 총회 겸 하계 야유회 = 7월 26일 총 76명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Port Moody Belcara Regional Park에서 임시총회를 겸한 하계 야유회 개최했다.

임시총회에서는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한 회칙 개정을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며, 이후 즐거운 점심



시간 그리고 여흥시간으로 이어졌다. 올해도 변함없이 유동성 선배님의 자운주가 흥을 돋구었다. 비즈니스로 바쁜 와중에도 참석하여 준 모든 동문 및 가족 여러분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예정된 행사는 동문회의 자랑인 '윈로선배 초청의 밤'으로 플라멩고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4년 정기 골프대회 = 8월 28일(목) 관악회(골프 동호회) 주최로 총 27명이 참가한 가운데 Pitt Meadow Golden Eagle Golf Course에서 동문 및 가족 포함한 정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는 챔피언 등 각 종목 입상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별도의 상을 제정해 시상했다.

잉꼬상 : 부부 합산 골프회 핸디기준 Net 최저타수 기록자.

버디상 : Reno-Tahoe open 대회에서 적용하는 Modified Stableford System을 적용하여 계산(버디 2 점, 이글 5점, 알바트로스 8점)하여 최다 점수 기록자.

다복상 : 최다 보기 기록자

대파상 : 최다 파 기록자, Par 및 Double Par 모두 +1로 계산.

발전상 : 전반 9홀 합계 대비 후반 9홀 합계의 성적이 가장 좋은 사람.

균형상 : 전반 9홀 합계와 후반 9홀의 성적의 차이가 가장 적은 사람.

분발상 : Gross성적이 하위 2위인 사람.***

<글 사진 = 주부호(공대 87) 밴쿠버 동창회 총무국장>

←왼쪽 윗 사진은 장학기금 마련 건강 걷기대회에 참가한 동문들과 가족 모습이고 아랫사진은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과 가족들이 함께 한 장면이다.



뉴욕 동창회

2014 정기 이사회 및 총회 가져

뉴욕 동창회(회장 곽승용·의대 65)가 지난 8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반, 프러싱 대동원회장에서 '2014년 정기 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동창회 이사진, 집행부 임원과 친지 등 모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행사의 제1부 사회는 김정필(공대 71) 부회장, 제2부는 금영천(약대 72) 사무총장이 각각 맡아 수고해주었다.

제1부는 박상원(음대 69) 전 회장, 곽승용 현 회장의 이·취임사

→뉴욕 동창회 제36대 집행부 임원진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이찬서(자연대 82)총무, 김정필(공대 71)부회장, 김원영(미대 81)IT위원장, 심인보(의대 77)이사장, 김창수(약대 64)감사, 이경림(상대 64)감사, 곽승용(의대 65)동창회장, 금영천(약대 72)사무총장.

에 이어 현재의 제36대 이사장과 감사 인준, 새 집행부 구성원에 대한 소개, 이준행(공대 48) 골든 클럽 회장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전임 제35대 동창회의 결산 보고, 제36대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각각의 행사 및 사업에 대한 보고, 예산안 인준 등의

순서가 있었다. 심인보(의대 77) 동문이 제36대 이사장으로 인준을 받았고, 감사에는 김창수(약대 64) 제34대 전임 동창회장과 이경림(상대 64) 상대 동창회 회장이 각각 인준을 받았다.

곽승용 동창회장은 제36대 집행부의 여러 가지 행사 및 사업 계획, 예산안 인준 순서를 진행하며 "이사진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제36대 임기 내의 사업계획에 대한 소개에서 격월간 동창회의 e-News 발행, 동문 등록 배가 운동 전개, 연 회비 50달러 납부 캠페인, 내년인 2015년 6월 중 야유회 겸 임기 종료 보고와 총회 개최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기존과 달리 지역사회 청소년 혹은 장애인 학생을 포함시키는 '열린 장학사업' 등을 장학위원회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제2부에서는 디너를 즐기며, 단과대학별 이사진 소개, 심인보 이사장이 진행한 동창회 건의 사항 및 의견 수렴 등의 순서가 있었다.

'2014년 정기 이사회 및 총회'는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글·사진 = 김원영(미대 81) 미주 및 뉴욕동창회 IT위원장>



골든클럽

Emerson G.C.에서 8월 골프대회

뉴욕 동창회 '골든클럽(회장 이준행공대 48)'이 지난 8월 7일 뉴저지 Emerson G.C.에서 8월 골프대회를 가졌다.

이날 아주 쾌적하고 쾌청한 날씨 속에 총 30명의 회원이 8개조로 나누어 대회를 치렀다.

지난 달에 이어 연달아 같은 코스에서 대회를 치른 때문인지, 아니면 쾌적한 날씨 때문이었던

지 성적도 다소 향상되었다.

메달리스트는 그로스 85타를 기록한 손영철 회원이 차지하였고 상금은 없이 큰 박수를 받았다.

1등은 임호순 회원이 Gross 91타, Net 74타를 기록해 50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2등에는 김익성, 진봉일, 한경수 회원 등 3명의 회원이 각각 97-22-75, 100-25-75, 90-15-75를

↑뉴욕 동창회 '골든클럽' 회원들이 지난 8월 7일 8월의 정기 골프대회를 개최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기록해 공동으로 각각 40달러씩의 상금을 받았다.

Closest to Pin은 11번 홀에서 신정택 회원, 16번 홀에서 조승자 회원이 차지했다.

한편 이준행 회장은 당당하게 White Tee에서 경합을 했는데 105타를 기록해 핸디 27을 감하고 네트 78타를 기록해 아슬아슬하게 수상을 못하게 됐다. 이에 주취측으로부터 즉석에서 급조한 '아차상'을 받아 많은 박수와 축하를 받았다.

골든 클럽은 9월의 정기 골프대회를 10~12일 Mount Airy Casino Resort Golf Club에서 가지게 된다.

또한 9월 17일은 Picnic을 가질 계획으로 Palisades Pkwy Exit 4-5 중간에 있는 Parking Lot에서 출발한다.

10월 1일에는 10월의 정기 골프대회를 열고 15일 Picnic을 가질 예정이다.***

<글·사진 = 김원영(미대 81) 미주 및 뉴욕동창회 IT위원장>



남가주 동창회

Hollywood Bowl에서 가족의 밤

남가주 동창회(회장 이서희·법대 70)가 지난 7월 26일(토) 명소인 Hollywood Bowl 야회 음악당에서 '가족의 밤' 행사를 가졌다.

오후 5시부터 Hollywood Bowl Picnic 장소인 아담한 공간에서 25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하여 가정대 동창회 안혜정(78) 회장과 염인숙(77) 가족의 밤 행사위원장 및 가정대 임원진이 집에서 준비한 Appetizer와 Wine으로 행사의 분위기를 돋우었다.

이어 저녁을 준비한 남가주 동창회 김창신(사회과학대 75) 총무국장을 비롯한 임원진 및 박혜옥(간호대 69) 차기회장과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미주 동창회 손재옥(가정대77) 차기회장이 함께 이날 행사 준비를 하며 우리만의 아늑함을 만들어 주었다.

이번 행사에 많은 각 단과대학 동문가족이 참여했다. 특히 남가주 의대 동창회(회장 최광휘·의대 70) 동문들이 많이 참석하여 더 뜻있는 동문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남가주 동창회 이서희 회장은 멀리 필라델피아에서 참가해준 손재옥 미주 동창회 차기회장이 감사해 하며 선물을 증정했다. 이에 손재옥 차기회장은 남가주 동문들의 미주 동창회에 대한 적극 후원을 부탁하는

↓Hollywood Bowl 공연장의 화려한 불꽃 쇼. 이곳은 야외 공연장으로 한 여름밤의 추억을 만드는 여러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이날 남가주 의대 동창회(회장 최광휘·의대 70·뒷줄 왼쪽)에서도 동창회 차원에서 동문들이 대거 참여해주어 남가주 동창회의 행사를 한 층 더 뜻깊게 해주었다.

인사말이 있었다.

↓손재옥(가정대 77오른쪽) 미주 동창회 차기회장이 이서희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창신(사회과학대 75) 총무국장.



화려한 불꽃으로 장식되는 이날 행사는 동문들의 친목과 Fireworks의 시원한 여름의 밤

을 수놓았다. Cuba 태생인 Singer Gloria Estefan의 Latin pop Music으로 Conductor Thomas Wilkins의 Hollywood Bowl Orchestra와 함께 하는 유명한 'What A Wonderful World'는 너무 감미로우 동문들이 따라 부르며 음미했다. 그녀의 딸 Emily Estefan의 'Where The Boys Are' 역시 모든 청취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Husband and producer인 Emilio Estefan과 36년 동안 같이 음악을 함께 하며 가족음악인으로 가족의 밤 행사에 걸맞게 우리에게 선사한 음악은 흥겨운 'Bad Boy', 관객과 함께 부른 'Rhythm Is Gonna Get You', 남편 Emilio Estefan의 기타와 함께 한 'I've Grown Accustomed To His Face', 'Turn Beat', 흥겨운 드럼과 함께 한 'You Made Me Love You', 마지막 불꽃의 'Conga with Hollywood Bowl Fireworks'는 동문들과 함께 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밤 행사였다.***

<글·사진 = 백옥자(음대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접수처에서의 행사 주관 임원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해마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고 있는 염인숙(가정대 77) '가족의 밤' 행사위원장이다.



Mammoth 가족 Camping

남가주 동창회는 7월 26일의 Hollywood Bowl 야회 음악당 '가족의 밤' 행사에 이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2박 3일간의 'Mammoth 가족 캠핑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지금까지 Mt. Sierra에서만 해오던 것과 달리 Mammoth Lakes에서 처음 실시된 것으로 많은 동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리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게다가 아주 예술적인 이벤트였다.

Mammoth Lakes에서는 처음 실시된 이번 가족 캠핑 행사는 150여명의 동문 및 동문 가족들이 참여하여 도착 당일인 8월 30일 저녁 Shady Rest Park에서 범대 동창회가 준비한 푸짐한 바비큐 저녁식사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인 8월 31일 있을 산행, 관광 및 낚시 등의 활동에 대해 팀별로 팀장들의 설명이 있었고, 보물찾기 행사를 했으며 Pine Glen Group Campground에서 camp fire로 첫날 마무리를 하였다.

다음 날인 8월 31일 팀별 활동을 하였으며 저녁은 간호대 동창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바비큐 식사를 했다(낚시팀이 잡은 42마리의 trout구이가 serve되었다).

이후 단과대 동창회 대항 줄다리기를 하였는데 그 결과 간호대와 치과대 합동팀이 우승하였고 농대와 미대 합동팀이 준우승을 하였다.

셋째날은 LA로 돌아오는 일정인데 관광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동문들은 Keough's Hot Springs, 일본인 Relocation Camp인 Manzanar, Mt. WhitneyAlhambra Hills, Red Rock Canyon을 관광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에는 의대 출신 김경세·권영조·김의신 동문들의 각자 전문분야에 따른 유익한 건강 의학에 관한 말씀과 Sing-along이 있었다.

2박 3일의 일정이 너무 짧아 모두가 하루나 이틀 정도를 더 연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여행이었다.



↑Mammoth 가족 Camping 행사에 참가한 동문과 가족들이 그랜드 티톤 산 정상에 올라 기념촬영을 했다.

참가한 동문들은 물론 다른 동문들도 이번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모아 9월 9일 오후 6시 반경부터 '작가의 집(김병연·공대 68)'에서 모여 함께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자 촬영한 영상자료들은 김병

연 동문(byeongk@gmail.com)이 e-mail로 받아서 미리 정리해주어 이번 여행에 참여하지 못한 동문들도 시사회에 참여해 행사의 멋진 장면들을 두루 감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음대 동문 연주회가 9월 6

일(토) 오후 7시 30분에 Zipper Concert Hall (200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2)에서 열리는 많은 동문들이 연주를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글 = 이서희(법대 70) 회장>



남가주 '말수회' 골프대회

남가주 동창회 동문들의 동아리인 말수회(회장 김용찬·문리대 64)는 이름 그대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모이는 모임으로 Golf를 즐기고 있다.

말수회는 지난 7월 3일 Santa Anita Golf Course, Arcadia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

여 회원이 모인 가운데 친교를 나누었다.

말수회 모임을 기다리며 한 달을 보내신다는 오홍조(치대 56) 미주동창회 7대 회장, 이기준(법대 54)상임이사, 방석훈(농대 55) 상임이사, 지인수(상대 59) 미주 동창회 전 편

집위원장, 김진진(문리대 62) 상임이사 5분의 선두로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51 학번 상임이사 오형원(의대)회장은 샌디에고에서 2시간 소요하며 처음 참석, 부드러운 shot의 노련함을 보여주었다.

Norwood에서 새벽 golf로 다음 Age Golf Award를 준비중인 전철송(공대 51) 동문의 열성이 말수회 모임의 중요성을 입

증해 주었고, 김상찬(문리대 65) 전 남가주 동창회장과 최종혁(대학원 68)대학원 회장의 golf game은 1달러씩이 계속 오고 감에 따라 하루종일 집중된 game의 고마움과 웃음과 허무함도 함께 느끼게 했다.

상대 golf대회 챔피언의 경력이 있는 길석기(상대 56) 동문, 김성규(문리대 64) 동문, 윤두현(상대 65)동문, 강규찬(치대 57)동문, 김귀섭(문리대 61)동문, 항상 넉넉한 후원금으로 동창회를 후원하고 있는 양은혁(상대 56)동문 등이 함께 여유있는 하루를 보냈다.

필자(백옥자 음대 71)는 취재차 참여해 shot with a three wood의 멋진 full swing으로 주위의 "Beautiful shot!"을 연발케 했다.

모임은 하루 종일 golf를 즐기고도 또 푸짐한 저녁식사가 있어서 좋다.

모두 모인 영동 가든식당에서 그동안 수고해주시던 김용찬 회장을 감사하고 앞으로 수고해 줄 현기웅(문리대 64)차기 회장을 박수를 보냈다.

이서희(법대 70) 남가주 동창회 회장은 지난번 상임이사 golf 모임에서 Age Golf Award를 받은 이기준 상임이사가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처럼 뜻깊은 상을 받은 이기준 회장은 말수회를 위해 수고해준 김용찬 회장과 현기웅 차기 회장에 대한 축하 의미로 이날 저녁 식사비용을 부담해 모두에게 더 활기찬 친교의 장이 됐다.

말수회는 모교 동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많은 회원의 참여를 권하고 있다.

이날 말수회 골프 모임에 참가한 동문들은 이기준(법대 54)·오형원(의대 51)·지인수(상대 59)·길석기(상대 56)·양은혁(상대 56)·최종혁(대학원 68)·김성규(문리 64)·윤두현(상대 65)·현기웅(문리 64)·강규찬(치대 57)·방석훈(농대 55)·오홍조(치대 56)·전철송(공대 51)·김진진(문리 62)·김용찬(문리 64)·김귀섭(문리 61)·김상찬(문리 65)동문 등이다. ***

<글 사진 = 백옥자(음대 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북가주 동창회

Coyote Point Park에서 야유회

북가주 동창회(회장 이장우·문리 72)가 지난 지난 7월 26일(토) 시원한 바닷가(Bay)와 골프 코스를 옆에 낀 Coyote Point Park에서 하계 야유회를 가졌다.

북가주 동창회는 매년 7월 말경 South Bay와 East 및 North Bay에 흩어져 있는 동문들의 편의를 고려해 야유회 장소를 옮겨왔는데, 이번에는 시원한 바다와 골프코스 사이에 있는 North Bay 위치 공원을 선택한 것이다.

야유회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동창회가 제공한 주 메뉴인 갈비 바베큐를 비롯, 잡채·과일·채소·옥수수·빵·음료 등 여러 동문들이 가져온 후식으로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오후 3시까지 친목과 담소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를 하기 전에는 모두 62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할 것으로 등록을 마쳤으나 예상 외로 총 77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해 준비한 음식이 모자랄까 봐 은근히 걱정됐다.

그러나 준비했던 갈비 바베큐 외에도 많은 동문들이 여러 가지 음식과 후식들을 많이 가져온 덕분에 늦게 참여한 동문 몇 분에게 갈비가 약간 모자랐을 뿐 모두가 풍성하고 즐거운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이색적인

장면은 최고 원로이신 한만섭(공대 49)동문과 가장 젊은 막내인 박영신(공대 00)동문이 같은 공대 기계 항공과 출신이면서 반세기 뒤를 뛰어 넘는 세대 차이를 두고 함께 만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총동창회 모임의 매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한만섭 원로 동문께서는 과거 보잉사 재직 당시에는 보잉 비행기 설계 제작에 관여하셨고 워싱턴주 Seattle에서 거주하실 때에는 지역 한인 회장 및 서울대 회장도 역임하셨다.

모든 단과대 출신들과 모든 세대가 함께 교류하고 즐길 수 있는 드문 기회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동문들이 서로 알아갈 수 있도록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

우선 이번에도 다른 동창회 행사와 마찬가지로 각자 비즈니스로 분주한 일정을 제쳐두고 참여해준 모든 동문들께 감사드리며, 음식 준비와 행사 일정에 도움을 준 분들과 후원을 해주신 다음과 같은 동문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정규남(공대 전기 52) 동문 = 300달러의 후원금 외에 빵과 참쌀떡을 후원 ▶이성형(공대 섬유 57) = 맛있는 잡채를 아주 넉넉하게 후원하고 이날 행사의 모든



↑이날 참가 동문들은 최고 원로 한만섭(공대 49)동문을 시작으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했다.

사진 촬영으로 봉사 ▶황만익(사대 지리 59·동창회 전 이사장) = 휴가차 참석하지 못한 재무 대신 우리 동창회 명예 회원인 Victoria Chung 여사(Mrs. 정조용·공대 60)와 함께 맡아 참가자 등록 및 회비 관리 봉사 ▶김철규(공대 전자 60) = 60 달러를 후원 ▶남승채(공대 공교 66) = 200 달러를 후원 ▶박덕희(간호 71·간호대 동창회 전 회장) = 참가자 명찰 준비 봉사 ▶박영훈(공대 금속 72) = 60 달러를 후원 ▶박희례(간호 73·부회장이며 차기 회장) = 수박·옥수수·상추 등을 준비, 부군 Dr. Park(박병국·가정내과)께서는 내내 바베큐 불판을 조절하는 봉사 ▶장윤종(경제

76)·김정희(불문 80) 부부 동문 = 고급 와인 4병 찬조 ▶임준원(공대 기계 77) = Dr. Park 과 함께 갈비·옥수수 등을 굽느라 끝까지 뜨거운 불판 앞에서 고생하며 봉사 ▶이지원(영문 00) = 처음 참석하는 동창회 행사지만 Salad 를 준비. 역시 당일 처음 참석해준 박영신(공대 기계항공 00, Stanford) 동문과 함께 2000 학번이며 앞으로 총동창회 일을 도와줄 동문들임.

물론 이밖에도 야유회 장소 안내를 도운 지희식(공대55)·김종하(문리 72) 동문, 음식 정리를 도운 Mrs. 김종수(공대 섬유 74)를 비롯 행사 동안, 그리고 행사 뒷편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

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번에 참석한 동문들 중 다음의 동문들에 대한 동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윤성희(사대 58)·윤명숙(사대 61) 부부 동문 집에서 곧 Harmonica 동호회를 다시 활성화하기로 하겠다고 했다. 관심있는 동문들은 전화 650-473-9636 으로 연락을 바라고 있다.

▶토요 Hiking Group (심동섭·남승채(공대 66))에 관심이 있는 동문은 김범섭(공대 79)·최승희(경제 81) 부부 동문께 연락주시기 바라고 있다 전화 408-310-1399.

▶동창회 이사인 Dr. 이도은 동문(의대 93)이 갑상선(Thyroid) 전문의 website를 다음과 같이 새로 개설했다. 앞으로 이 사이트 www.BayAreaEndocrine.com을 많이 애용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동창회 행정을 맡고 있는 이화정(노어노문 98) 동문이 생후 14개월된 딸 하린이를 데리고 출산 후 처음으로 남편 Philip 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참가해주었다 - What a beautiful family!!

▶회장 이취임식을 겸한 연말총회 및 송년 파티가 12월 20일(토)에 예년과 같이 Cast lewood Country Club 에서 있을 계획이니 잊지마시고 꼭 미리 계획해서 참가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사진 = 이성형(공대 57)>

<글 = 이장우(문리 72) 회장>

↓박희례(간호 73·왼쪽에서 두번째)차기회장이 부군(Dr. Park), 다른 동문들과 갈비·옥수수 등을 굽다가 부군의 소매를 울려주고 있다.



↓“내 이름표는 어디에 있을까?” 야유회의 현장에 미리 도착한 동문들이 각자 자신의 이름표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다.



관악세대/Acro광장

미국 군대, 로마 군대, 신라 군대

이종호(인문대 81) CA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미국은 모병제다.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간다. 1973년부터 그렇게 됐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뀐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첩단 무기의 발달로 군사작전의 인력 의존 비중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징병제의 숨은 비용, 즉 강제 징집된 군인들의 스트레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반발도 큰 요인이었다.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월남전 이후 급격히 확산된 반전사상의 영향이 컸다.

그런데 모병제에도 문제가 생겼다. 당장 적정 수의 병력을 조달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군대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곳이다. 언제 어느 전선에 투입될지 모른다.

한번 입대하면 4년 이상 복무해야 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다. 누가 선뜻 나서겠는가.

그러다보니 모병은 미군의 가장 중요한 작전 중의 하나가 됐다. 당연히 많은 당근도 마련됐다. 적지 않은 급여, 전역 후 취업이나 용자 등의 혜택, 심지어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이게 또 문제다. 불평등의 고착화라는 점에서도. 모병제 실시 이후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집안의 자녀들이 군 입대 비중은 현저히 줄었다. 과거 미군의 주축이던 백인

WASP(White, Anglo Saxon, Protestant)의 비중은 급감하고 그 자리를 흑인, 히스패닉, 인디언 그리고 신규 이민자들이 채우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도 이를 비판한다.

“모병제는 사회 정의에 위배된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군대가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겠는가” 라고 주장한다.

샌델 교수는 연방의회 의원 가운데 자녀가 군에 입대한 경우는 2%에 불과하다는 것을 예로 든다. 뉴욕시의 경우 2004년 군 지원자 중 70%가 흑인과 히스패닉 저소득층 출신이었다는 조사도 제시한다.

부국강병은 유사 이래 모든 왕조 혹은 국가의 꿈이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룬 나라는 많지 않다. 오직 지도자의 애민정신과 국가로부터 ‘사랑받는’ 백성들의 자발적 애국심이 합쳐졌을 때만 가능했다.

고대 로마는 그랬다. 로마에서 군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 시민만의 특권이자 긍지였다. 변방의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성장 동력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모병제가 되고 용병제가 되면서부터 로마는 쇠락했다.

똑같은 교훈이 우리 역사에도 있다. 가장 인구가 적고 국력이

재미있는 일로 꿈이룬 사람들

신복레(인문대 83) CA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제 12-13살 되는 8학년 아이들이 메이저 음반제작사인 소니와 앨범 계약을 맺었다.

우선 앨범 2장을 내고 잘 되면 추가로 4장을 더 낸다는 계약인데 성공하면 아이들에게 앨범 판매료만 170만 달러를 안겨주는 계약이다.

돈의 액수보다 시선을 끄는 건 이들이 프리스쿨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들이고, 대개의 아이들이 그렇듯 악기 하나는 해야 한다는 부모의 바람에 어려서 기타나 드럼을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하다 보니 재미가 있어서 평일 숙제를 끝내면 누구네 집에 모여 연습을 시작했고 주말에도 모여 밴드를 취미생활로 즐겼다.

지난 해 말 뉴욕 타임 스퀘어에서 공연을 해보자고 의기투합한 세 아이 밴드는 공연 모습을 유튜브에 올렸고 조회수가 무려 170만건을 넘어서면서 여기저기서 세 아이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코첼라 페스티벌축이 역대 최연소 공연자로 이들을 초청했고 하드록 밴드 건즈 앤 로지스는 자신들의 콘서트 오프닝 무대에 세웠다.

이들의 앨범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성공 여부를 떠나 세 아이 밴드는 이미 또래 청

소년들에게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일에 전념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Dream come true’ 의 신화를 보여주었다.

지난 7월 14일에는 MIT 1학년생인 19세 소년이 세계일주 최연소 단독 비행기록을 세웠다. 1981년산 단발엔진 경비행기를 몰고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출발해 미국 대륙을 거쳐 유럽, 아시아를 날아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44일간의 비행 여정을 해낸 것이다.

어릴 때는 겁이 많아 혼자 지하실에도 내려가지 못했다는 그가 겁 없이 나홀로 비행에 나서 14개국 25곳에 중간중간 기착하며 2만6천여 마일의 하늘 거리를 누빈 것이다.

16세 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고 대학에 입학하자 세계일주 비행에 도전했다.

모두 170시간의 비행시간, 어디에 들러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하나 일정을 짜고 평소 돕고 싶었던 비영리기관을 위한 기금 모금 계획도 세웠다. 학교 교육에 컴퓨터 사이언스 도입을 추진하는 ‘코드(Code.org)’라는 단체를 위해 25만 달러를 모으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가 자신의 비행기에 붙인 이름은 ‘한계 없는 지평선’이다. 모든 비행을 마친 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는 “멋진 아이디어를 이루기 위해 몇 년씩의 학교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단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 애쓰고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 진짜 목표는 많은 젊은이들이 나의 도전을 보고 영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단한 청소년들이 다닐 수 없다. 청춘만이 아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진짜 공주가 되고 싶다는 6살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40대 후반의 아버지가 인터넷 검색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주인없는 땅을 찾아내 직접 찾아가 가족 깃발을 꽂고 북수단 왕국을 선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세 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가족 깃발을 만들고 왕국수립 계획을 짜면서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 가족은 이집트와 수단이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땅을 농업 생산지로 만들어 평화의 상징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몇년 후 또다른 멋진 소식이 들려올지 누가 알겠는가?

삶의 활력소인 재미가 언제부터인가 성공을 향하는 지름길이 됐다.

“재미가 없다면 왜 그걸 하고 있는 건가요?”

자타 공인 ‘착하고 재미있는’ 회사로 정평이 나있는 아이스크림 체인 벤앤제리의 제리 그린필드가 던진 말이 아니라면 “그래 먹고 살려고 한다”며 만지 대거리를 했을 수 있는 질문이다.

하지만 이 ‘불편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바꿔본다.

“글쎄요. 꼭 재미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재미있는 일을 해볼 수 있으면 합니다.”***

내면성찰 Healing의 첫걸음

한정민(농대 87) VA
워싱턴 가정상담소 상담사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한국이나 미국 사회에서 요즘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는 ‘Healing’이다. 중 방송사의 ‘Healing Camp’가 인기가 있고, 유명 연예인들이 상처와 힐링의 경험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한 인간이 겪은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Healing’이란 단어는 상처가 전제되어 있다. ‘힐링’이 많이 외쳐지는 사회란 상처가 많은 사회를 말한다.

세상은 점점 편해지고 문명은 놀랍도록 발전하여 손끝 하나로 지구촌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을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한 편에서는 계속 ‘힐링’이 외쳐지고 있다.

예전보다 더 외롭다고, 삶이 공허하다고 절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 우리가 편하게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애쓰는 많은 것들이 정말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때론 혼란스럽다.

우리에게 공기만큼 익숙해진 전기, 컴퓨터, 스마트폰. 돌아보면 언제부터 이런 물건들이 아무 질문 없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일의 효율성이 증가되고 우리의 삶이 편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샘물과도 같은 숨을 뱃맛겼고 밤을 도둑 말았다. 전기가 없던 시절이라면 늦은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는 수고는 하지 않으리라. 대신 밖에서 하늘의 별을 보며 친구나 가족이 모여 두런 두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내일을 위한 깊은 단잠에 빠져 있을 것이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따라잡느라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가 일주일에 한두번도 힘들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줘본 적도 없다는 쓸쓸한 고백을 내담자들에게서 종종 듣는다.

“앞 차를 열심히 따라갔더니 그 집의 차고”라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제는 바쁘게 앞만 보고 정신없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춰설 때다. 하고 있는 일을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

니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침묵 속에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을 시작할 때다.

매일이 힘들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번은 자신의 내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1-2시간을 내야할 때다.

운전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음악이나 뉴스를 끄고 떠오르는 기억과 생각들을 바라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세상 구석 구석 일어나는 일은 알고 있는데, 가장 소중한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외면하거나 눌러놓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칼한 일인가.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며 내 마음의 쓴 뿌리와 상처기가 무엇인지, 왜 특정한 이야기에 분노하는지 내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 내면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없이 힐링은 시작될 수 없다.

상담 오는 부부에게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세요?”라고 물으면 많은 부부가 “저 사람이 상담을 통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답한다.

그러면 필자는 “우리는 남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다만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는 힘만이 있지요”라 말한다.

“상담을 통해 본인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라고 물으면 두가지 반응이 있다.

“글쎄요. 내가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과 “난 잘못된 게 없고 저 사람이 진짜 이상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전자의 경우는 상담을 통해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본인이 어떻게 인식해왔으며 그 인식 과정이 달라서 빚어낸 오해와 상처들을 볼 수 있도록 상담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내담자나 상담자가 해결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나를 보기 시작하기 전에는 내면의 힐링은 일어날 수 없다. 상처가 치유되어 건강한 마음을 품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을 통한 성찰의 시간을 오늘부터 갖기를 간절히 권하고 싶다.

바꿀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다른 이를 향한 불평과 분노를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관점을 바꾸다보면 어느새 내면 안에 찾아온 힘과 평안이 오늘 하루 우리 마음에 작은 감동과 힐링을 선물해 주리라 믿는다. 4monicalee@gmail.com ***

충동원 시스템이 있었다. 지도층 자제들은 ‘화랑’으로

술선수범했다. 화랑은 요즘으로 치면 군 장교다.

반면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력도 뛰어났던 백제는 그러지 못했다. 중앙군과 지방 호족의 사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유사시 효율적 대응이 불가능했다. 나당연합군의 기습 앞에 맥없이 무너진 이유다.

요즘 고국 군대 내 폭력과 관련해 병영문화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대안으로 미국식 모병제를 거론하는 사람도 슬슬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장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방위력 유지는 필수불가결이라고 보는 여론부터 워낙 굳건하다. 차별과 불평등에 민감한 사회분위기도 또한 장벽이다.

다른 것은 참아도 병역비리만은 못 참는 것이 한국인이다. 돈 있다고 빠지고 힘 있다고 빠지고, 징병제인 지금도 그렇거늘 모병제는 아예 드러내 놓고 그렇게 하자는 말이 된다. 국민정서가 용납할 리 없다.

부끄러운 병영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병제는 시기상조다. 더 급한 것은 군의 명예 회복이고 위상복구다. 군 복무가 2-3년 썩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 앞에 자랑스러운 특권이자 긍지로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고대 로마 군대처럼, 통일을 이룬 신라 군대처럼 우리 군은 정녕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관악세대/Acro광장

새 정치, 현 정치

민경훈(법대 78) CA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 논설위원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지만 지난 7월 30일 고국 재보선 결과는 너무도 뜻밖이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도 그랬지만 이번 선거도 야당이 질려야 질 수 없는 선거였다. 세월호 침몰에서 유병언 시신 발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는 무능 그 자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 등으로 인기가 바닥을 기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야당이 압승한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었고 선거 초반에는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개표 결과는 11대 4로 여당의 압승이었다. 그냥 압승 정도가 아니라 1988년 소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호남에서도 여당 의원이 당선되는 이변이 터졌다. 그것도 그냥 여당 의원이 아니라 ‘박근혜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이 시종 여유 있는 표차로 앞서가다 당선된 것이다. 전남 순천 곡성에서 이정현이 뽑혔다는 것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측면에서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동작 을에서 나경원이 당선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곳은 ‘한국 진보의 이빨’로 불리는 정의당이 노회찬이 단일화를 이뤄낸 곳이다. 그럼에도 나경원에게 1% 차이로 졌다. 이곳은 지난 서울 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박원순을 지지한 곳이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나경원 손을 들어준 것은 이름이 있다고 아무나 연고도 없는 지역구에 나와 야권 단일화만 이루면 당선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고 없는 지역구에 출마한 명망가가 떨어진 것은 이곳 뿐이 아니다. 한 때 대선주자였던 손학규와 김두관이 무연고지에서 출마했다 둘 다 큰 표 차이로 토박이에게 졌다. 그 후 ‘저녁이 있는 삶’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손학규는 정계를 은퇴하며 혼자 실컷 저녁을 즐기게 됐다.

이같은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한길 안철수 공동 대표는 새정치 민주 연합 대표직을 내왔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들 뒤를 이어 민주당을 이끌며 갈 인물이 마땅치 않은데다 앞으로 야당이 어떤 노

선을 걸어야 할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어찌서 한국 야당은 질 수 없는 선거를 계속 지는 것일까. 그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 강경파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여당과 모든 타협을 거부하고 투쟁만을 유일한 척도로 삼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 자객 미달의 김용민을 공천한 것도 이들이다. 이들의 위세에 놀려 당시 대표였던 한명숙은 그가 “라이스를 강간해 죽이자”라고 발언한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그를 사퇴시키지 못했다.

2012년에는 대선 후보로 나왔던 동진당의 이정희가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공개 발언한 후 국고 보조금만 챙겨 사퇴한 것을 보고도 야당은 아무 소리 하지 못했다. 그 후 야당이 보여준 것이라고는 정권 심판을 외친 것 외에는 없고 이번에도 야권 연대를 하느니 마느니 갈팡질팡하다 그냥 “후보들 끼리 알아서 하라”며 방치해 버렸다.

동작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내몰고 광주 출마하겠다는 사람을 내리 쫓는가 하면 보상 공천 논란에 위증 교사, 논문 표절, 재산 축소 의혹까지 있는 권은희를 광주에 가져다 박았다. 이름만 새정치지 현 정치도 이런 현 정치가 없다. 광주 투표율이 22%로 사상 최저에다 순정 곡성이 최고의 투표율로 여당 후보를 뽑은 것은 식을 대로 식은 호남 민심을 보여준다.

야당이 이렇게 개판 칠 때 이정현은 고물 자전거를 몰며 새벽 3시부터 시장을 돌았다. 지난 번 서울 시장에 출마해 “1억 원짜리 피부과에 다닌다는 괴소문 헛짜여 억울하게 떨어진 나경원도 마찬가지다. 이는 경찰 조사 결과 근거 없는 헛소문이고 나경원 쓴 돈은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선거는 이미 끝난 후였다. 그 후 나경원은 국회의원 공천도 받지 못하는 찬밥 신세가 됐지만 이번에 폭염 속에도 하루에 한 아파트를 세 번 도는 투혼을 보이며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이번 야당의 참패는 이런 여당 의원들의 정성이 야당의 무책임하고 경우 없는 행태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를 이기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던 예수 말씀이 생각난다. ***

건강의학 칼럼

“감기는 만병의 근원일까?”

차민영(의대 76)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환절기가 되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이 감기와 독감이다.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격언 중 “감기는 만병의 원인이다”라는 말이 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감히 “감기는 만병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지난 30년간 내내 환자들에게 가르쳐주었다.

그러면 왜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다.

가끔 환자들 중 감기를 3개월 내지 6개월씩 계속 앓고 있다는 분들이 많다. 심지어는 감기를 1~2년씩 앓고 있다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 필자는 단호히 “죄송하지만 그 병은 감기가 아닙니다. 감기와 증세가 비슷한 다른 병입니다”라고 말해준다.

환자들은 “기침, 가래, 미열 등 기관지염과 흡사하게 증세가 있는 것을 감기라고 착각한 것이다. 즉,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병의 처음 시작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세가 감기와 비슷하다”고 해야 옳다.

오래 전 폐혈증으로 별세한 황수관 박사도 처음 감기증세로 입원하였다고한다. 폐혈증은 초기에는 열이 나고 몸이 떨리는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기 때문에 감기로 오해하기 쉬운데, 고열이 나기 시작하면 재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질환들 중 특히 암들의 초기 증세 역시 감기와 유사하다.

암은 정확하게 말하면 초기 증세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

났는데, 1년씩 되는 감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증세가 비슷한 만성질환입니다. 그원인을 확실히 찾아야 합니다”고 대답한다.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다. 어떤 환자는 가족 중에 “감기를 6개월 앓고 낫더니 폐암으로 진전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감기가 폐암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감기를 아무리 오래 앓는다고 해도 폐암이 될 수는 없다. 사실은 폐암의 초기 증세로 기침, 가래, 미열 등 기관지염과 흡사하게 증세가 있는 것을 감기라고 착각한 것이다. 즉,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병의 처음 시작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세가 감기와 비슷하다”고 해야 옳다.

오래 전 폐혈증으로 별세한 황수관 박사도 처음 감기증세로 입원하였다고한다. 폐혈증은 초기에는 열이 나고 몸이 떨리는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기 때문에 감기로 오해하기 쉬운데, 고열이 나기 시작하면 재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질환들 중 특히 암들의 초기 증세 역시 감기와 유사하다.

암은 정확하게 말하면 초기 증세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

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지 않고 다만 감기에 걸린 것이라 생각한다. 온 몸이 약간씩 수시고 미열이 나며 가벼운 기침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가 암의 특징적인 증세인 통증 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암을 드러내는 시기는 중기 이후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벼운 몸살 감기에 걸린 것 같다. 특히 백혈병·임파종·폐암·기관지암·췌장암·위암 등의 초기 증세는 감기와 유사하다.

또한 암이 있는 경우에 몸의 면역성이 저하되므로 실제 감기나 기관지염 등이 잘 생기기도 한다. 또 축농증, 중이염, 류마티스성 염증질환, 만성 기관지염, 위산역류병, 결핵 등 많은 염증질환 때도 비슷한 증세가 생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감기증세’와 ‘만병’이 비슷한 시기에 생기는 것을 보고 ‘감기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잘못 해석한 결과다. “만병의 시작 때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만든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진짜 감기는 보통 2주 안에 대부분 낫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감기 증세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것은 감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꼭 믿을 수 있는 내과병원을 찾아 철저한 조사를 해야만 숨어 있는 치명적 질환으로 비극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고국군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재원(인문대 82)CH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누구에게나 잘 잊히지 않는 날짜와 숫자가 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고향집 주소 등이 그렇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입대일, 군번, 전역일 등을 평생 잊지 못한다.

‘1347XXXX’ 30여년 전 받은 군번이다.

“전역 후에는 부대 방향으로는 소변도 안 본다.”

30개월 남짓한 군 생활 동안 연는 고참들처럼 다짐했지만 지금도 군과 관련한 뉴스를 접할 때면 8자리 군번이 절로 외워지고 부대 안팎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른다.

최근 고국 육군 28사단에서 고참들의 폭력에 희생된 윤 일병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갑자기 시계가 거꾸로 돌았다.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6일 밤, 30여년 전 바로 그날 아침 부산 동래서 입영열차를 타고 입대했기 때문이다.

훈련소를 거쳐 자대에 배치 받은 이튿날 아침. 일조점호가 끝나자마자 고참 상병 한 명이 “저기 보이는 철봉, 선착순 1명”이라고 나지막이 내뱉었다. 순간 그보다 계급이 낮은 병사들이 앞 다투어 달리기 시작했다.

선착순이 몇 차례 반복됐을 무렵, 누군가에게 밀리면서 이마

를 철봉에 부딪쳤다. 정수리에 서는 큰 통증이 느껴졌고 이마로 흘러내린 피에선 비릿한 냄새가 났다.

선임 한 명이 내무반으로 데려가더니 식당에서 얻어온 된장을 내 상처에 바르고는 청테이프로 붕대를 붙여줬다. 그날 오후에는 이웃 중대와의 축구경기에 출전했다.

“오늘 정기서 지면 너희들 각오하라”는 고참들의 으름장에 된장 섞인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정신없이 운동장을 뛰어다녔다.

된장과 청테이프로 시작한 군 생활은 돌아보면 고된 날들이었다. ‘10분 깎’으로 불린 유병장의 큰 발은 언제나 무시무시했고 까탈스러운 김 병장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늘 신경이 곤두서는 일이었다.

“여차연구 한 명 소개해달라”며 치근덕거리던 또 다른 김 병장은 부담스러웠다. 굵은 동작과 각종 수칙을 암기하지 못해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던 후임 김 일병은 쥐어박고 싶은 존재였다.

하지만 군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전역하던 날 아침 부대를 떠나면서 ‘잃은 것이 많지만 얻은 것도 없지 않은 3년’이란 생각이 들었다.

특히 영하 20~30도나 되는 혹한기 동계 훈련이나 모기와 함께 밤을 새우던 수색, 매복을 거치면서 인내와 극기, 동료애를 배

웠던 것 같다.

이번 윤 일병 사건은 수 십년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은 고국 군대의 적폐에 다름 아니다. 어쩌면 예전엔 지금보다 더 하면 더 했을 악습과 구태가 자행됐지만 거의 모두가 은폐되고 감춰졌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사회적으로는 퇴보한 우리 고국인 한국의 자화상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무한 경쟁에 내몰린 지금의 청년 세대에겐 동료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는 경쟁자가 아닌가 싶다.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쪽박까지 깨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곳. 군 입대 이전부터 왕따와 집단 괴롭힘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희생양으로 삼을 약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미국에서 살면서 마트나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곳에 가면 노약자 직원들을 어렵지 않게 마주친다. 특히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를 지닌 이들이 서빙을 하고 업소 정리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장애는 말 그대로 신체가 약간 불편할 것일 뿐 더불어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회다. 하긴 장애와 비장애를 누가 구분할 수 있는가.

윤 일병 사건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심화된 모순, 비뚤어진 가치관이 만들어낸 괴물의 모습일 지도 모르겠다.***

영화이야기

Mademoiselle Chambon



이건일(의대 62) CA

은퇴하고 백수가 되고 보니 더 바빠다. 세번 골프 치고 운동하러 세번 갔다 오고 나면 일주일 이후 딱 지나간다.

사이 사이에 도서관에 가서 DVD를 빌려다 보는데 아직도 못본 것이 7개나 밀려 있다. 내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얼마 전에 본 프랑스 영화 'Mademoiselle Chambon(상봉 선생님)' 이 꽤나 마음 속에 여운을 남기고 있다. 영화에 쓰인 음악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만나는 약간은 가슴이 아릿한 사랑의 이야기여서 그런지 잘 모르겠다.

하여간 늙어서도 사랑의 아픔을 느끼게 해준 영화이니 잘 만든 영화로 생각된다.

주인공인 장(Jean)은 건설업자다. 아들 제레미(Jeremy)와 아내인 안느 - 마리(Anne-Marie)와 세 식구가 평범한 일상을 지내며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어느 날 아내를 대신하여 아들의 학교를 찾아가게 된 그는 아들의 담임인 상봉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프랑스에서는 미혼인 여자 선생님을 Mademoiselle로 부르고 기혼 여성이면 Madame 으로, 남자 선생님은 Monsieur로 부른다. 미국·영국도 마찬가지로 Miss·Mrs.·Mr.로 부른다).

아들 학교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달라는 청을 받고 그는 며칠 후 아이들에게 건설 청부업자로서 자기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려는 아이들의 박수를 받는다.

상봉 선생님이 자기 아파트의

유리창 문이 잘 닫히지 않으니 이걸 좀 고쳐줄 수 있느냐는 청을 한다.

이 요청을 흔쾌히 받아 들인 그는 상봉 선생님의 아파트로 찾아가 간다.

'문'이라는 상징적 존재로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문을 여는 것을 암시한다.

그 사이에 장은 상봉 선생 이름이 베로니끄(Veronique)인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자인 것을 알게 된다.

문 고치는 것이 끝난 날 장이 베로니끄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요청한다.

이 때 연주되는 곡이 이 영화의 주제곡 같은 벡세이(Vecsey)의 슬픈 윌즈(Vales triste)다. <주 = Franz von Vecsey(Hungarian: Vecsey Ferenc, 헝가리에서는 이름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 다음에 이름을 쓴다. March 23, 1893 ~ April 5, 1935)는 Hungarian violinist 겸 작곡가로 활동하였다. Budapest 출생으로 여덟살에 바이올린을 배웠고 열살에 Berlin에 가서 Joseph Joachim에게 사사해 그 이름을 얻게 되었다. 1910년부터 1920년대 유럽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고 한 때는 Béla Bartók 피아니스트와 순회 연주를 한 적도 있었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인기가 시들었고, 항상 돌아다녀야 하는 순회 연주에 싫증을 느껴 연주 활동을 접고 지휘자로서 성공해보려 하였으나 1935년 로마에서 42세로 사망하였다.>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곡이다. 들은 점점 더 가까워짐을 느끼나 장은 자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다. 복잡한 심정의 장은 바람부는 언덕에 올라가 앉아 깊은 생각에 빠진다.

'바람'처럼 우리 마음의 갈등을 잘 표현해주는 자연 현상도 없다고 본다. 배경으로 나오는 프로방스의 도시는 아마도 나 추측으로는 액-상-프로방스(Aix-en-Provence)가 아닌가 한다.

마침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에다가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배경이라니, 더욱 좋은 영화라는 확신이 든다.

장의 아버지 생일 파티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달라는 청을 받은 베로니끄는 엘가(Elgar)의 '사랑의 인사 (Salut d'amour)'를 연주하는데 그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길을 보고 장의 아내 안느 - 마리는 둘의 관계를 눈치채나 내색을 하지 않는다. 그가 언젠가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 오리라는 것을 믿어 보려는 것일까?

베로니끄의 전화 레코딩에 남긴 그녀 어

머니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녀가 상당히 유복한 집의 딸이고 좌절당한 바이올린 연주가이며 1년 단위로 프랑스 전국의 초등학교를 돌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영화 전편에 흐르는 벡세이의 슬픈 윌즈곡과 서로를 원하나 기 존 질서를 해치지 않으려는 주인공들의 딜레마를 우리는 알게 된다. 자기들의 관계에 더이상 희망이 없음을 안 두 사람은 서로 작별을 고한다. 여자는 다른 도시로 직장을 얻어 떠나기로 되었고 남자는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한다.

예고편에서 보는 장면은 마지막으로 여자를 그녀의 아파트로 바래두고 차 속에 앉아 어쩔 줄을 모르다가 울어버리는 남자의 눈에는 집안으로 들어가려던 여자가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인다!

집안으로 같이 들어간 둘은 정

박흥진의 할리웃 산책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일 날은?

박흥진(사대 64) CA
영화 평론가

구약시대부터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에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꼬마 때부터 전쟁놀이를 즐기듯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되겠다. 지난 7월이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의 달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정의는 매우 타당하게 여겨진다.

나는 교전이 있기 직전 긴장감이 감도는 이스라엘을 다녀왔다.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팔레스타인에게 이스라엘 시민 청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이 청년으로부터 국가 없는 민족의 허무감과 점령자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지금 과연 어떤 심정일까.

이번 전쟁의 근인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10대 3명을 납치, 살해한데 있지만 원인은 땅 싸움이다. 2차 대전 후 오랫동안 살아오던 땅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인들은 현재 이스라엘 점령지인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다.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는 이 두 지역은 콘크리트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지구 최대의 야외감옥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은 그 안의 무기수들이나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인들은 이 땅이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이 납치 살던 안방에 무단 침입해 주인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자 간 대결은 솔로몬의 지혜로도 풀기가 어려운데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인 '두 국가체제'에 대해 나의 할리웃 외신 기자협회 동료회원들은 그 안의 무기수들이나 마찬가지인 셈은 "내 생전에는 턱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쌍방교전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측은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 주민들. 벌써 사망자가 1천여명 이상으로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이 많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살육이다. 기사도 정신이 살아 있는 전쟁이란 아마도 영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반전영화의 금자탑인 프랑스 영화 '위대한 환상(Grand Illusion, 1937)'이다.

나치 선전상 요셉 괴벨스가 '시네마의 적 제1호'로 지목한 작품으로 감독 장 르바르(화가 오귀스트 르바르의 아들)는 "이 영화는 정치적 경계를 초월한 인류 형제애의 선언"이라고 말했다.

1차 대전 때 독일군 라우펜슈타인 대위(에릭 폰 슈트로하임)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돼 포로가 된 프랑스군 파디에 대위와 마르살 소위(장 가뮈)를 중심으로 한 적과 야군 간의 인간관계와 성격묘사에 치중한 전투장면 없는 아름다운 전쟁영화다. 전쟁에 대한 강력한 기소로 르바르는 독일과 프랑스 중 어느 한 편을 들지 않고 인간애를 얘기하는데 우아한 귀족풍의 영화로 깊은 영혼을 지녀 크게 감동하게 된다.

볼만한 것은 오스트리아인 배우이자 감독이며 제작자인 폰 슈트로하임의 자태와 연기. 적마저 인간으로서 각듯이 예의를 갖춰 대접하는 그의 모습에서 기사도 정신이 풍겨 나온다.

반전영화의 또 다른 걸작은 루이스 마일스톤이 감독한(오스카상 수상) '서부전선 이상 없다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1930)'이다.

독일의 반전작가 에릭 마리아 레마르크가 1차 대전에 참전해 부상을 입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동명소설이 원작으로 전쟁의 공포와 참상을 뼈마디가 쭈시도록 사실적으로 그렸다.

교사의 열변하는 '군복무의 영광과 조국 구원'에 감동한 대입 예비고생들이 자원입대해 서부전선에 투입되면서 겪는 전쟁의 단말마적인 참혹함을 통해 전쟁의 무자비성을 통렬히 고발하고 있다.

레마르크는 또 다른 반전소설 '살 때와 죽을 때'를 쓰기도 했다. 이 책은 후에 주멕시코 미국대사를 지낸 존 개빈 주연으로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다.

'위대한 환상'과 '서부전선 이상 없다' 못지 않은 반전영화 가 스텐리 큐브릭이 감독한 '영광의 길(Paths of Glory, 1957)'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전쟁의 광기를 웅변적으로 고발한 작품으로 냉소적인 인간성 고찰의 영화이기도 하다.

전쟁 미치광이인 프랑스 장군의 자살 임무나 다름없는 명령을 어겨 군법재판에 회부된 3명의 병사를 변호하는 커크 더글러스의 치열한 연기가 눈부신 명작이다.

게리 쿠퍼가 오스카 주연상을 탄 '사전트 요크'도 제1차 세계대전을 다룬 명화다. 테네시 주 촌뜨기로 신심이 돈독한 평화주의자 알빈 요크가 마지막에 군에 입대해 혁혁한 전공을 세운 실화다.

나는 얼마 전 상영 중이었던 전쟁 액션영화 '허클리스'에 주연한 레슬러 출신의 드웨인 잔슨과의 인터뷰에서 그에게 "당신이 만약 허클리스처럼 반신반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전쟁을 없애기 위해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잔슨은 이에 대해 "먼저 미소와 악수를 청하겠으나 그래도 안 통하면 주먹"이라며 크게 웃었다. 말 안 듣는 놈에겐 주먹밖에 없다는 말인데 이러니 세상에 전쟁이 끝일 날이 있겠는가.***



←영화 Mademoiselle Chambon의 포스터.

사를 벌이고 남자는 여자에게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여자를 따라 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날 보따리를 싸서 역까지 나온 남자는 차마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역 지하도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다.

여자는 플랫폼에 서서 마지막 출발 신호가 울려도 그 긴 목을 더 길게 빼고 남자를 기다린다.

여자를 따라 가느냐, 가정으로 돌아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선 그에게 해줄 아무 조언도 없다. 다만 보는 우리 가슴도 답답해질 뿐이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해주는 아내와 같이 앉아 아침 식사를 한다.

미국의 영화 감독들은 제작자나 영화 회사의 압력에 굴복하여 흥행 위주로 Block Buster를 만들어

야 되고 또 언제나 happy ending으로 끝을 내야 되나 유럽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감독들은 흥행에 관심없이 자기 작품으로서의 영화를 만든다.

이 영화의 감독인 스텐 브리제(Stéphane Brizé)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영화는 절대로 미국에서 흥행에 성공할 수가 없다.

나는 도서관에서 이 영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런 영화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참으로 Serendipity였다.

원작은 에릭 울더(Eric Holder)의 소설. 2009년도 작품으로 주인공 장(Jean) 역에 뱅상 랭동(Vincent Lindon, 모나코 스테파니 공주와 염문도 있었던 배우), 베로니끄 상봉(Veronique Chambon)역에는 상드린느 키벌랭(Sandrine Kiberlain 랭동의 전 아내), 아내 안느-마리(Anne-Marie)역에 오르 아티카(Aure Atika) 등이 출연했다.***

My Journey to America <3>최용완 논설위원

아메리칸 드림 50년<14>

최용완(공대 57) 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시인·수필가

▶**유카탄 반도의 유적** = 멕시코 테오티와칸 유적에 건축된 용(dragon)의 모습은 동아시아 용의 모습과 꼭 같은데 다만 고기비늘 대신 새 깃으로 몸을 이루었다.

유카탄 반도의 치첸이트사에는 기둥을 감고 도는 용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용의 얼굴, 귀면은 우리나라 신라 건축 지붕 기와에서 보는 모습으로 상나라의 청동 유물들 조각에서 흔하게 본다. 동아시아 상고사의 금속무기 창시자 치우(蚩尤)의 얼굴로도 알려져 있다. 명나라 때 향로에 조각된 코끼리 코를 가진 귀면을 마야 건축물 입면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음과 양의 종교적 개념과 오행의 개념이 있듯 음력과 양력 같은 두 개의 달력을 사용하며 동아시아의 십이지와 60년 윤회가 있는 것과 같이 13년의 개별 상장과 52년 윤회가 있다.

사람을 희생물로 바쳤음은 동아시아 유교 이전에 고대 역사에 오랫동안 존재하였다. 마야 성전(temple)의 가람배치(site plan)가 남북을 축으로 탑을 중앙에 두고 사방에 문을 두는 형식이 동아시아의 궁궐이나 사찰 배치와 유사하다. 전쟁에 임하여 높은 장소에 봉화대를 세워 불을 피우고 검은 연기를 하늘에 올려서 신호하고 북을 쳐서 소리 내어 멀리 신호를 보냄도 동아시아에서 유적에서 흔히 보는 현상이다.

오행의 상징인 다섯 동물은 뱀·독수리·표범·악어·두꺼비 등으로 표시하여 우리나라 고구려 문화에서 흔히 보는 청룡·주작·백호·현무·황인 등의 오행 상징과 상통하는 현상이다.

고대 중국인들이 옥돌을 동전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고 가운데 동그란 구멍을 만들어 장식물로 몸에 달고 '타오티'라 부르며 잡귀신을 막는다고 한다.

마야 귀족의 의상과 장식에서도 타오티를 흔하게 본다. 상나라 왕의 시신을 옥돌 조각으로 몸과 얼굴을 덮었듯 마야왕의 시신을 옥돌 조각으로 몸과 얼굴을 덮었다. 마야인들의 평민 의상은 일본인들의 하의(훈도시)와 비슷하다.

맷돌과 절구를 사용하여 곡식을 빵과 껌질을 바람에 날릴 때 키

를 사용함도 우리와 같고 도리끼 짚을 하고 디딜방아도 사용하며 삼나무를 말려 깃저고리를 입고 옷감을 만드는 베틀도 우리 것과 유사하다.

중미 지역 풍습에 개·닭·돼지를 기르고 먹는다. 우리가 매운 고춧가루 음식을 즐겨 먹듯이 그들은 매운 토바스코를 즐겨 먹는다. 긴 담뱃대로 담배를 피우고 피리를 즐겨 분다. 우리나라 제주도 돌하루방과 비슷한 모자를 쓴 인상을 지금의 생활방식과 조각물들의 모습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우리와 유사한 생활양식도** =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기 머리를 납작하게 변조시키는 편두 습관이 중미에서도 있었음을 박물관 전시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옛 풍습에서 보듯이 새의 깃으로 장식을 많이 하고 색색이 화려한 옷을 입는 풍습이다.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기록되었듯이 궁중에서 공차기를 하였는데 중미에서의 공차기 행사도 궁중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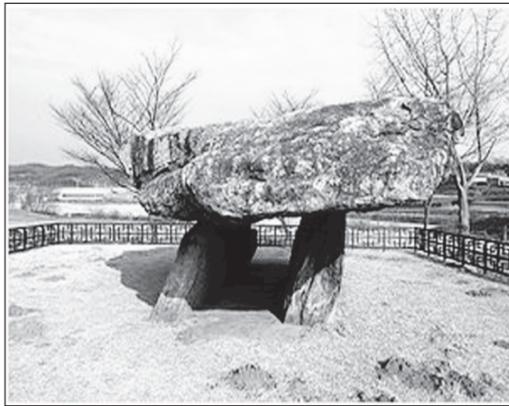
동아시아 문화와 미 대륙 원주민 문화의 연결은 세계 역사에서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연구

“우리가 매운 고춧가루 음식을 즐기듯 그들은 매운 토바스코를 먹는다. 긴 담뱃대로 담배 피우고 피리를 불며 제주도 돌하루방과 비슷한 모자를 쓴 인상을 볼 수 있다”

는 백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그들은 아직도 미 대륙의 원주민 문화도 아시아의 문화가 유럽 문화에서 시작되었다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 식민사관의 교과서로 공부한 지식인의 후손이며 백인들의 침략 역사관을 학교에서 공부한 세대에게 배운 대로만 믿으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음 세대에겐 편견 없는 바른 역사를 찾아 보여줌이 우리의 할 일이다 아닐까.

북남미 대륙의 원주민이 우리와 같은 혈연이며 동아시아 동이족의 부류임을 증명하는 논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발표되었다. Scientific American. 책자 2008년 7월호에 Gary Stix의 논문은 그전인 1995년 출간된 Cavalli-Sforza의 저서 'The Great Human Diasporas'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정확하게 전개한 논문이다. 아래 도표는 National Geographic에서 발표한 인류의 핏줄 속에



↑ 우리 선조들의 고인돌(왼쪽)과 만주 지린성 지역에 흩어져 있는 층단식 피라미드 중의 장군총.

감추어진 혈연의 역사를 보여준다.

우리 민족의 혈연은 M174와 M130으로 나누어져서 M174는 만주·몽골·티베트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선조로 보이고 M130은 시베리아·알래스카를 지나 북미·중미·남미에 이르는 백제의 선조로 보인다.

현대 인류는 발원지 아프리카에서 10만년 전 경 거주하다가 해 뜨는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떠난 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도양과 태평양을 끼고 돌아온 6만년 전 경 동남아시아에 머물러 모여 살면서 사회생활이 형성되고 언어가 발달하였다.

5만년 전 한반도 서부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겨울철을 맞은 듯 하다. 김치, 곡주, 발효음식을 개발하고 온돌방을 지어 겨울

적으로 도피하여 아프리카 나일강변과 중남미 대륙에 흘러간 것이 아닐까.

▶**동아시아 문명과 연결** = 멕시코의 수도 외곽에 테오티와칸의 해와 달의 피라미드는 아즈텍 민족의 유적으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에 미국 원주민 문화의 절정기를 이룬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로마시대 로마의 도시보다 더 큰 인구와 도시 규모를 갖추었던 곳이다. 이 도시 문명이 후대 멕시코 문명의 초석인 아즈텍과 마야문명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오티와칸은 멕시코에서 가장 잘 보존된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도시로 손꼽히며 AD 150년 경에 세워졌다고 한다. 태양의 신전 피라미드는 세계에서 3번째 크기

의 시작되기 이전이었다.

이들 형제는 프로펠러를 돌려 공중을 날아가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 형제가 낮에는 가게에서 자전거를 고치고 저녁이면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 들뜬 위를 날아 가도록 하는 취미에 몰두하였다. 나무와 종이로 만든 비행기 모형에 프로펠러 돌리는 모터를 설치하고 조금씩 날기 시작하였다.

▶**인류 최초의 비행** = 1903년 12월 17일에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엔진 힘으로 날았다. 그들은 노스캐롤라이나 해변의 모래사장 에서 처음으로 1분 동안에 650피트를 날아 착륙한 사실이 1905년에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실이 인류가 하늘을 날아가는 처음 시작이 되었다.

이 무렵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생산이 시작되고 1914년의 세계 1차 대전에 공급되면서 자동차와 비행기의 생산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미국에서 두 번째 큰 라이프 패터슨 공군기지와 공군 박물관이 데이튼시에 있게 된 유래이기도 하다.

데이튼에서 발명된 세계적인 상품 중 NCR (National Cash Register) 계산기가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내면 가게 주인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기계에서 잔돈을 돌려주던 기억이 난다. 곧 이 기계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제일 많이 쓰인 현금계산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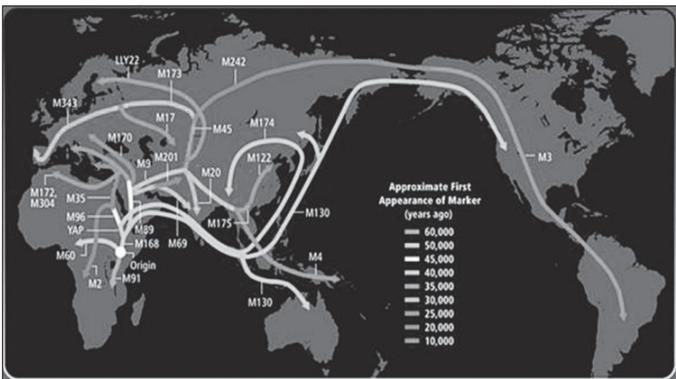
잔 패터슨은 1884년에 이 계산기의 공장을 세워 세계적인 사업 운영으로 약 2만 명의 직원이 하루에 수백대의 계산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2차 대전 중에 이국 해군의 위탁을 받고 독일과 일본의 군사통신 암호를 해독하였다. 2차 대전 중 독일군 움직임의 암호를 미리 알아 적군을 섬멸하였다.

일본 해군계독 야마모토 이소로 구의 비행정보를 암호 속에 미리 탐지하여 필리핀에 도착 직전 추락시켜 암살하는 등의 2차 대전 승전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NCR의 암호해독 책임자 Joseph Desch는 본인의 암호 해독으로 그렇게 많은 독일과 일본군의 목숨이 희생된 것이 후회스러워 혼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후에 미국 정부에서 평화적 노력만을 약속 받고 다시 돌아와 컴퓨터 발명에 헌신하였다.

NCR의 계산기 기술이 IBM 컴퓨터로 이어지며 세계적 IT 기술계 혁명으로 이어짐을 바로 이곳 데이튼 시에 사는 동안 알게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을 이겨내는 우리 민족의 뿌리는 이때부터 영글었으리라. 인류 혈연 역사에 가장 오래 전에 내륙으로 침투하고 해안선으로 연결된 인류 혈연의 대동맥이 우리의 핏줄이다.

▶**중국의 고대문명** = 세계에서 가장 일찍 9천년 전 쯤에 요동반도 홍산 문화와 문명은 석조 성곽을 짓고 토기를 만들고 옥돌 조각물 제작이 시작되었음이 중국의 가장 최근 고고학 발굴에서 발견되었다. 층단식 돌무덤을 세워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동아시아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하나라·은(상)나라로 이어지는 고조선의 역사는 중화 문명의 기반이 된 듯 하다. 만주지역에서 시작한 우리 선조는 수만년 전부터 말과 개를 가정에서 기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나라의 기록서경에 은(상)상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주위의 부락민에게서 개와 말을 선물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살개나 발바리라는 개 이름도 오래된 우리 말이다.

양자강과 황하 중류에서 3만 5천년 전에 성장한 중화 민족의 주나라가 은(상)나라를 비롯한 동이족의 나라들을 점령하는 5천년 전 쯤 약 25만 명에 이르는 민족이동이 해외로 분산된 것으로 사마천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동이족의 금속 문화, 조상 종교와 천체 종교로 시작된 피라미드 문화는 나침반을 만든 항해 기술과 함께 전 세계 각 대륙에 전파된 듯 하다. 동아시아에서 필사

의 70m 높이에 248계단이 있는 피라미드다.

태양과 달의 신전에서 내려다본 광장은 축제의 행진이 개최되는 약 2마일 길이의 거리가 남쪽으로 열려 있다. 14세기에 침략한 스페인 사람들은 “사자(죽을 자)의 거리인 바 제물로 바칠 사람을 묶어서 끌고 가던 거리”라고 비하하는 설명을 한다.

거리의 남쪽에 거대한 용의 피라미드와 살아 꿈틀거리는 듯한 용의 조각을 보며 동아시아의 문화와 연결됨을 증명한다. 해와 달이 함께 세워졌음도 동아시아의 도교에 음양철학이 연결되었음을 느낀다.

달 신전 피라미드에서 남쪽으로 뻗은 축제의 거리가 시작되며 조금 동쪽으로 위치한 해 신전 피라미드와 만나는 광장은 주위에 여러 개의 작은 층단식 피라미드들이 세워졌다.

▶**라이트 형제** = 1865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이제 막 안정되고 회복되어 이민인구가 증가하는 때였다. 스팀엔진으로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유럽에서 자동차를 주나라가 은(상)나라를 비롯한 동이족의 나라들을 점령하는 5천년 전 쯤 약 25만 명에 이르는 민족이동이 해외로 분산된 것으로 사마천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우리 가족이 사는 데이튼 시의 윌버와 오빌 라이트 형제는 1860년대 태어나 1870년대 초반부터 이곳 바쁜 길가에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며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취미를 일삼았다. 북쪽으로 약 200마일 되는 곳의 디트로이트에서는 아직 자동차 생



<달러 속 주인공의 이야기>

5달러 지폐의 에이브러햄 링컨

이영목(공대 59)DC
미주 동창회 상임고문

에이브러햄 링컨의 일대기를 쓴 K라는 작가는 그의 머리글에서 이런 말을 썼다

‘흔히 사람들은 링컨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한 적도 없다. 다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다’

▶오로지 성실 =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16대 대통령이라고 기억하기보다 남북전쟁에서 남부 연합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전쟁을 북군의 승리로 이끈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는 1863년 그 유명한 노예해방 선언을 했고,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켜 노예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리고 1864년 다시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그러나 남북 전쟁의 엄청난 희생 그리고 4년이라는 긴 세월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명연설이나, 설득이나, 어떠한 좋은 이해관계 같은 것으로는 될 수가 없다. 오로지 그의 대통령으로서 성실함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설득력있는 연설은 청중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의 아주 짧막한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밝힌 미국의 전통인 자유주의 곧 자유, 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명언은 역사를 통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는 그의 그러한 성실함은 그의 성장기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 경험한 것들에서 형성된 것이 아닐까 한다. 우리 옛말에 ‘끓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는 말이 새삼스러워 느껴진다는 말이다

▶방 한칸 통나무집서 출생 = 흔히 링컨의 일대기는 통나무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사실 그는 1809년 2월 12일 켄터키 주 하딘군의 방 한 칸 뿐인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링컨은 처음부터 그리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켄터키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 으로 배심원으로 추대 받기도 했다.

그런데 그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그가 땅 장사, 투기를 하다가 망했다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토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은 그리스의 도리스 양식으로 지어졌다. 내부에는 링컨 대통령이 앉아 있는 상이 있다. 링컨 기념관은 여러 연설의 무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대행진의 일부로 행해진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 유명하다.

▶밀바닥에서 출발해 변호사 = 그의 인생의 첫 경험은 1931년 일리노이 주 뉴 살렘의 목재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는 나무를 싣고 미시시피 강을

“게티스버그 전쟁 승기를 제공한 조지 미드 장군, 사바나 작전의 셔먼 장군, 총사령관 그랜트 장군에 공업시설 우위, 국채발행 정책 등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지 등기의 어려움과 노예제도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두리뭇실 변명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본래부터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링컨이 태어났을 때 가문이 몰락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렇기는 하지만 많은 역사 또는 전기 작가들이 링컨을 너무 미화해서 판단이 좀 헛갈리게 하는 점도 있는 듯 하다. 다시 말하자면 첫째, 통나무집이 마치 가난의 상징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당시 통나무 집은 그저 서민들의 평균적인 집이었지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아니었다.

둘째, 물론 북쪽에 하버드나 남쪽에 윌리엄 메리 같은 대학이 있기는 했으나 당시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는 것이 뭐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 뉴올리언스까지 가면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고 또 노예제도의 실상을 보기도 하면서 견문을 쌓기 시작했다.(아마도 시골 청년이 지금 비행기 타고 뉴욕 월 스트리트를 방문한 것과 비견될 수 있을까?)

그후 그는 뱃사공, 가게 점원, 토지 측량사, 우체국장을 거쳐 독학으로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고 주 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의 정적이자 그를 경멸하고 미워하였던 제임스 가필드가 ‘일리노이 주의 이류 변호사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기억할만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니,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뜻밖의 사건이네’ 하였지만 나는 그의 청장년기에 그에게 주어진 시련을 성실하게 맞아들인 그의

↓게티스버그 기념관 앞에 설치된 링컨 대통령 동상과 같이 찍었다.



↑5달러 지폐 크기는 가로 155.956 mm, 세로 66.294 mm로 앞면은 링컨의 초상화, 뒷면에는 링컨 기념관 사진이 인쇄돼 있다.

체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다.

▶약혼·파혼·조우·결혼 = 링컨에게서 통속적인 에피소드를 찾아낸다면 그의 부인 메리토드와 결혼일 것 같다.

1839년 만나서 1840년 약혼하고, 1841년 약혼을 취소하고, 다시 파리에서 우연하게 만나고, 1842년 결혼하였는데 링컨이 결혼을 앞두고 도망가려고 했다고 한다. “왜 도망가려고 하느냐” 고 하였더니 “결혼은 지옥이겠조” 했다고 한다.

하지만 메리토드는 결혼생활에 헌신적이었고 아이도 4명이나 낳

군이 기대에 어긋나게 남군 총사령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웨스트 포인트 출신 1천 108명의 장교 중 387명의 장교가 사표를 내는가 하면, 웨스트 포인트 출신의 부리가드 장군이 2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워싱턴 턱 앞인 메나사스까지 와서 “독재자 링컨을 타도하고 우리의 아내와 딸들을 지키자” 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을 이끌어야 했다.

▶남북전쟁 승리 요인 = 그러나 그에게는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북군의 승기를 제공한 조지 미드 장군, 사바나 작전의 셔먼 장군,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사령관에 취임한 그랜트 장군이 있었고, 공업시설의 우위, 국채 발행의 전쟁수행 정책 등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국채 발행’ 이란 용어의 표현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다. 다만 남북전쟁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자기 나라 공산품, 예를 들자면 목화 같은 원자재의 공급처인 남부군을 애초부터 지원했다. 그 방법을 가운데 하나가 전쟁 수행을 위한 돈을 쥐어 막는 것이었다.

이 때 링컨이 중앙은행이 아니라 재무부에서 소위 ‘Green Back’ 이란 것을 찍어내어 유통시켰다. 아니, 유통이 아니라 국채처럼 팔았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지폐는 ‘Fed Reserve Note’ 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것에는 ‘Bill’ 로 표시되어 있다. 이 ‘Green Back’ 이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했고 결국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았으니 그리 링컨이 도망갈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다만 메리토드는 명문가의 딸로서 자랐고,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독학을 하고 자랐으니 다소 문화적 갈등은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우체국장 시절 사귀던 첫 애인의 사망 등으로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니 그 후 간혹 혹자들이 메리토드를 ‘약처’ 라고 할뜰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나 이는 gossip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다.

링컨의 재임기간이란 한 마디로 남북 전쟁으로 시작하여 남북 전쟁으로 끝난 일일 것이다.

사실 남북 전쟁 발발시 연방정부 8개의 무관학교 중 7개가 남부에 있었고, 명장 로버트 리 장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에 흔히 등장하고 있는 통나무 집이다.



여행기

50일 동안의 미대륙 횡단

이명선(상대 58) CA
Houston Fearless 76, INC 대표

▶Bucket List = 누구에게나 평생 동안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흔히 'Bucket List' 라고도 한다. 이런 일들은 성취되기도 하지만 끝내 못 이루어 아쉬움으로 남기도 한다.

나에게도 버킷 리스트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미대륙 횡단이다. 자동차로 광활한 미대륙을 여행하면서 주마다 다른 경치와 풍물을 경험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시간도 많아야 하고 장기간 여행이기에 건강도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지난 4월 20일 평생 소원이었던 대륙횡단을 75세의 나이에 아내와 함께 떠났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결심하고 여행을 떠났고 돌아온 날이 6월 8일이나 50일 동안 23개 주를 여행한 셈이었다.

▶철저한 준비 = 차량은 링컨의 SUV MKT를 이용했는데 여행 동안 총 1만 1천 435마일을 달렸다. 개스는 485갤런을 사용했다. 하루 평균 300마일 정도로 운전시간은 5-6시간이었다. 때때로 일정 때문에 450마일을 운전한 날도 있었는데 무리인 것 같아 가급적 300마일을 유지했다.

오일 체인지는 미주리 스프링필드와 아이다호 래피드 시티에서 두 차례 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식당을 찾아가다가 인도 텍에 걸려 타이어가 손상돼 교체하기도 했다.

여행에는 항상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여행 기간을 4월 중순에서 6월 초순까지로 잡은 것은 이 기간이 휴가철이 아니면서도 1년 중 기온이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행하다 보니 본격적인 휴가철이 아니어서 숙박이나 위락시설이 크게 붐비지 않았다. 숙박시설 예약을 위해 힐튼체인에서 발행하는 비자카드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 이 카드가 힐튼체인에서 운영하는 호텔과 모텔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약도 쉽다.

차량 점검과 횡단 일정을 꼼꼼하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차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떠나기 전 4개 타이어를 바꾸고 각 부분을 점검해 이상이 있는지도 살폈다. 숙박지로 힐튼체인의 햄튼 인을 주로 이용했는데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간단한 스낵으로 런치백도 싸주어 편리했다. 저녁은 주로 호텔 근처의 식당을 이용했다.

▶드디어 출발 = 횡단 일정은 LA에서 출발해 남부지역을 관통해 뉴욕까지 간 다음 북부 지역의 주들을 거쳐 워싱턴주로 가서 서부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는 여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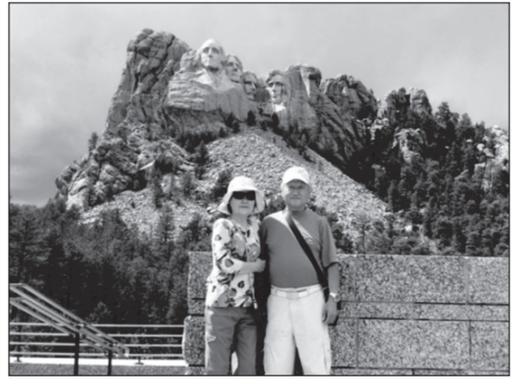
LA를 떠나 라스베이거스를 거쳐 세도나로 향했다. 세도나는 미대륙에서 기가 가장 강력한 지역이다. 우리 부부도 Bell Rock을 찾아 큰 수건을 깔아놓고 5시간 동안 기를 받았다. 그런데 신

기하게도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 나아졌다. 나 뿐만 아니라 아내도 허리 수술을 했던 부분의 통증이 있었는데 말끔히 사라졌다고 한다. 말로만 듣던 신기한 기 체험이었다.

▶토네이도를 만나 = 초반부 여행은 순탄했으나 미네소타주와 와이오밍주에서 토네이도를 만나면서 처음 어려움을 겪었다. 그 중에는 지표면까지 내려온 것도 있었지만 토네이도가 되기 직전의 검은 구름때는 곳곳에 놓인 지뢰밭 같았다. 중서부를 지날 때도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들판 곳곳에 토네이도가 있었으나 운 좋게 피해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미네소타에서는 토네이도를 뚫지 않고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잠시 돌아갈 생각도 했지만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고 기도한 후 토네이도를 향해 돌진했다. 다행히 토네이도의 피해를 입지 않고 통과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위험한 순간이었다.

▶소나기도 복병 = 대륙횡단을 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도 복병이다. 러시모어 지역에서는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더니 마치 양동으로 붓는 것처럼 비가 쏟아졌다. 헤드라이트를 켜지만 전방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고 윈드실드를 최고 속도로



↑왼쪽 사진은 나이아가라의 거대한 폭포, 오른쪽 사진은 러시모어산을 배경으로 찍은 것이다.

리즘에 관심있는 분들은 반드시 방문해 볼만한 곳이다.

뉴욕주에서는 Thousand Islands를 방문했다. 지명에 섬이 1천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크고 작은 섬이 1천 800개 정도라고 한다. 특이한 점은 각 섬마다 주인이 있고 집이 있다는 점이다. 규모에 따라 성채처럼 큰 집이 있는 반면 오두막집 같은 집도 있다. 섬들은 바다 밑으로 깔려 있는 전선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다고 한다.

사우전드 아일랜드는 지명의 드레싱이 처음 유래된 곳으로 유명하다. 이들 섬 지역에 살고 있는 부잣집 부인이 요리사들에게 특별한 드레싱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라고 한다.

▶나이아가라 =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해서는 헬리콥터와 배

의 하나였다.

일단은 규모가 압도한다. 디즈니랜드보다 더 넓은 지역에 기차까지 다닌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에는 케네디와 레이건 전 대통령이 탔던 자동차도 볼 수 있다.

뮤지엄 옆에는 포드 F-150 조립공장이 위치해 1분에 1대씩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다. 관광지 뿐만 아니라 학습현장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뮤지엄은 하루종일 봐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다.

미네소타 블루밍턴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실내 놀이공원에 갔는데 엄청난 규모에 탄성을 자아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서는 미사일사령부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버튼을 누르면 유도탄이 발사돼 30분만에 모스크바에 떨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 사우스 다코타는

대통령 얼굴상보다도 크다.

▶엘로 스톤 = 엘로 스톤 국립공원의 장관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1987년 공원의 3분의 1이 불타는 대형화재를 당했지만 대부분 복구돼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는다. 6월이지만 아직 눈이 남아 있고 골짜기에서는 얼음도 볼 수 있었다.

엘로 스톤은 공원 내 숙박이 여의치 않아 오래 전 사냥꾼들이 묵었다는 움막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색다른 경험이었다. 다음 날은 파크 랫지에서 숙박했는데 창문을 통해 간헐천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엘로 스톤 못지 않게 경치가 수려했던 곳은 미국의 알프스로 불리는 글렌티톤 국립공원이었다. 글렌티톤은 엘로 스톤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데 따로 여행을 가기 보다는 엘로 스톤을 방문할 때 들르면 좋을 것 같다.

서부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면서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찾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를 보았다. 높이 378피트에 수령은 무려 1500년 정도 됐다고 한다.

▶골퍼의 소망 = 오리건주에서는 Bandon Dunes Golf Resort에서 골프를 쳤다. 이곳에는 5개의 골프코스가 있는데 모두 미국에서 수위에 랭크돼 있는 유명한 골프코스다. 이곳에서 골프를 쳐보는 것은 모든 골퍼들의 소망이다. 카트 사용이 금지돼 있어 불편하기는 했지만 태평양의 경치를 보며 쉼터는 평생의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이번에 대륙횡단을 하면서 아름다운 경치와 경이로운 대자연을 경험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뜻깊었던 것은 곳곳에 살고 있는 친지를 방문해 정을 나누었다는 점이다. 친지들과의 만남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30년 경력 퇴직 직원도 만나 = 콜로라도주에서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 HF에서 30년간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고향에 가서 정착한 직원 폴 랭크를 만났다.

<26면에 계속>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부부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자동차의 닫힌 공간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작동시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은 차를 길 옆에 세우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15분 만에 그쳤다. 또 텍사스 아말리오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날아갈 정도의 강풍을 맞기도 했다.

뉴멕시코주에서의 느낌은 주민이 별로 없다는 점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탄을 실험한 주로 유명한 뉴멕시코는 전체적으로 황량하지만 산타페라는 도시에 유명한 아트 갤러리가 있다. 미국내에서 뉴욕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는 이 아트 갤러리는 1마일의 거리에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예술가들과 관광객들을 맞는다. 19세기 스페니스풍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산타페는 예술과 낭만에 흠뻑 빠지게 하는 매력적인 도시였다.

아이다호주도 내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와는 느낌이 많이 달랐다. 면적의 상당부분이 용암지대로 달 표면을 연상시키는 지형들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아폴로호의 닐 암스트롱도 Crater of the Moon 지역에서 달착륙에 대비한 훈련을 했다고 한다.

▶수도에 도착 = 워싱턴 DC는 이번 여행 전에도 자주 가본 곳이다. 그런데 최근 문을 연 Newseum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박물관은 역사적인 사건을 보도한 각종 자료와 사진을 전시해 놓았다. 첨단 컴퓨터 기술로 오래된 역사자료를 생생히 재현해 놓아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저널

를 이용해 폭포를 위 아래에서 볼 수 있었다. 다행히도 여행기간이 헐기와 배 투어를 모두 하는 때여서 폭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폭포 밑까지 가서 떨어지는 물줄기의 위용을 체험할 수도 있었다. 토론토에 사는 아내의 친구 미세스 김이 나이아가라로 와서 함께 헐기와 배 투어 관광을 더욱 즐겁게 했다. 이중에서도 캐나다 타워 라운지에서 오색으로 빛나는 폭포의 야경을 보면서 아내와 함께 와인 한 잔 했던 것도 잊지 못할 여행의 추억으로 남는다.

▶헨리 포드 뮤지엄 = 미시간주 디어본에서는 헨리포드 뮤지엄을 찾았다. 이 지역을 관광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방문하라고 추천하고 싶다. 50여일 동안 미 대륙을 여행하면서 여러 곳을 다녔지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곳

주 면적의 3분의 2가 연방소유라 곳곳에 군사시설이 많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켄터키 루이빌에서는 400여개의 동굴로 이뤄진 맘모스 케이브를 방문했는데 동굴 안에 강당이 있을 정도로 넓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생존시 쓰던 식기와 생활용품이 전시돼 있는 생가를 방문해서는 그의 검소했던 생활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대륙횡단 여행 중에는 몇 개의 국립공원을 거쳤다. 러시모어 국립공원에서는 워싱턴·제퍼슨·링컨·루스벨트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산을 방문했고, 인근에서 공사 중인 수족 인디언의 영웅 크레이지 호스의 조각상을 보았다. 50-60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조각상 건립은 연방의 지원없이 인디언 후예들의 돈으로 제작되고 있는데 그 규모가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 아래, 그리고 와이오밍의 자연보호 구역에서.



<교육 칼럼>

한국학교의 학생들



허병렬(사대 42) NY
교육가

어린이들이 제각기 예능교실로 떠났다. 교실을 정리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가 편지봉투 하나를 집어 들었다. “누가 떨어뜨렸을까?” 편지 봉투의 이름을 보고 있는데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버렸어요.” “왜?” “아빠는 한글을 못 읽어요.”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는 느낌이였다. 그리고 제임스에게 미

안함을 느꼈다. 이런 상황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근래 한국학교의 학생들은 다양하다. 한인 2세, 부모 중의 한쪽만이 한인, 입양된 한인, 한국에 흥미를 가진 부모의 자녀 등 다양각색이다. 이에 따라 커리큘럼도 바뀌고, 학교 행사 의 내용이나 진행 방법에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한다. 그런데 오늘 제임스의 사정에는 미처 마음을 쓰지 못했다. 제임스의 말이 맞다. 아무리 정성껏 만든 아버지 날 카드라 해도 그것을 읽지 못하는 아빠에게는 아무 뜻이 없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엄마를 기다리느라고 교실에 남아있던 중이었다. “제임스,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내용을 아빠한테 알려줄게.” 교사의 설명을 들은 엄마는 제임스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하였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

며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제임스의 카드에는 이렇게 써있었다. “나, 아빠 사랑해요. 우리 아빠 님버 원!” 우리 학교에는 어린이와 성인의 커리큘럼이 따로 있다. 어린이 뿐만 아니라 성인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 예로 타인종 학부모를 위한 한국어반의 필요성을 느꼈다. 문예반의 학부모들은 생각을 기록하기 위해서, 합창반은 한국의 아름다운 동요를 이 지역에서 생활화하기 위해서, 서예반은 묵향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용반은 한국적인 몸놀리기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분위기가 어린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됨을 믿는 까닭이다. 우리의 생활 중에는 곧잘 돌발 사고가 생기기 마련이다. 어느 날 새벽,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학교의 전기가 나가서 부득이 학교를 닫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때부터 전화에 불이 났다. 우선 교사 전원에게 사정을 알리고, 그들은 담임한 학생 전원에게 연락을 하였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락이 되



었다는 보고도 받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에는 빈틈이 있는 것이다. 직접 학교에 가서 현황을 파악하기 전에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마침 임차해서 사용하는 학교 교장도 등교하여서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혹시 사정을 모르고 등교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나왔지요.” “연락이 잘 되어서 한 명도 등교를 안 했으니 다행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떠나려는데 이게 웬일인가! 두 학생이 나타났다. 어린 학생이 아니고, 학부모만 학생 두 분이다. 이 분들은 학생 명단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이다.

두 분은 자매 사이로 자녀 3명과 4명은 본교 졸업생이다. 그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일하거나, 아직 대학생으로 있다. 자녀들은 학교를 졸업하였고, 그 부모들은 아직도 재학생 신분이다. 학교는 형체가 있거나, 보이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서로 배워야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알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찾고, 좋은 스승이나 멘토를 찾고, 좋은 친구를 찾고, 좋은 학습 방법을 찾고, 좋은 학습 자료나 도구 등을 찾는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각자의 사회의 의무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건강하게 이어진다. ***

<25면에서 계속>

대륙여행을 하게 되면 꼭 방문해달라는 그의 요청을 받고 찾아가는 줄 몰랐다. 엔지니어였던 그는 은퇴한 후에는 장충 등에 문양이나 이니셜 등을 새기는 일을 취미로 하고 있다고 한다.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는 9년 전 돌아가신 큰 형님 아들들을 만났다. 내게는 조카다. 이들에게는 6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내게는 손주로 나는 손주들에게 한국식으로 인사하는 법과 한국 전통예법을 가르쳐 주었다. 큰 조카는 LA에는 없는 특이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곳에는 골프공 만한 우박이 자주 떨어진다고 한다. 조카는 우박이 떨어져 딜러십에 세워둔 자동차의 유리나 지붕이 손상을 입으면 이를 수리하는 일을 한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소득

직업이라고 한다. ▶**언제 만나도 좋은 동문들** = 여행 중 고교와 대학 동문들을 만나 지난 추억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큰 즐거움이었다.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 있는 아내 친구(미세스 오)의 집에서는 내가 서울고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동창들을 한국식당으로 초대했다. 나와 동기인 10회 이승규·이근석, 그리고 13회 김창준, 19회 김종현 후배들을 만났다. 우리들은 학창시절을 이야기 하면서 아련했던 젊은 날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중서부 지역에도 예전에는 고교 동문회에 많이 참여했는데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의사 등 전문직에서 은퇴한 동문들이 기후가 좋지 않은 그곳을 떠나 서부로 이동하면서 점차 동창회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뉴저지 동서집에서도 동기들을 만났다. 김여탁·한갑수·이영용·이정원·정희준·김광철 동문이 부부동반으로 모였다. 고교 동기들은 언제 만나도 편하고 즐겁다. 어린 시절 같은 학교를 다닌 인연은 평생을 간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동기들이 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어떤 친구는 지팡이, 어떤 친구는 휠체어에 의지해 오는 모습에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실감나게 한다. 학창시절 모교 교정에서 뛰놀던 과묵한 젊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 할아버지의 모습이 됐다. 일부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아쉬움은 더 크다. 뉴욕에서는 대학 동기 정인식이 회원인 세인트 앤드류 골프장에서 이태호·이우인 동문들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젊은 날의 추억에 잠기기도 했다. 여행하면서 거의 한국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는데

친척이나 친지집을 방문해서는 잘 차린 한국음식으로 환대를 받아 지친 몸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다. 시카고에서 묵었던 유준호 동문집에서도 이같은 환대를 받았다. 특히 우리 부부가 왔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서 우리 부부를 보러왔던 미세스 정(고 정태섭 동문 미망인)의 방문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이날 이인영·오정식·홍원식 동문 부부가 모였는데 우리 부부도 인해 그 지역 동문들은 1년만에 동창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부부는 인생여행의 동반자** = 50일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부부가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다

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자동차의 닫힌 공간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에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야기도 있고 무심코 지나쳐 버린 이야기들도 있었다. 여행을 마치고 나니 부부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우리 부부가 여행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남은 인생의 여행도 함께 즐겁게 하리라 다짐이었다. 나는 75세에 평생 소원으로 꿈꾸던 대륙횡단을 마쳤다. 여행을 하는 동안 순간순간 힘든 일도 많았지만 버킷 리스트의 하나를 이뤘다는 성취감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슴 뿌듯함이다. 도전은 아름답다. 나는 또 다른 꿈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서정화)와 서울대(총장 성낙인)는 2015년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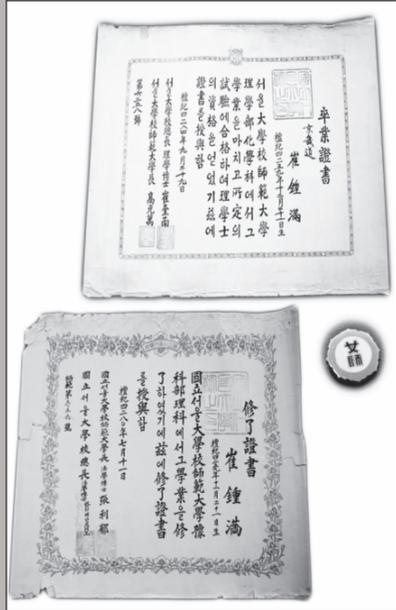
- 수집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 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 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 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 박물관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

- 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 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 (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3. 수집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 : 임성용 과장(010-9238-9759) 서울대학교 기록관(전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주 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 : 김봉은 전문위원(010-3032-5913
5. 제공자혜택 :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모교 역사자료 수집에 동문 125명 기증

본 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6월 1~30일 6명의 동문과 교직원 1명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5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119명(본보 421호 8명, 422호 4명, 423호·424호·425호 6명, 426호 8명, 427호 7명, 428호 8명, 429호 4명, 430호 6명, 431호 3명, 432호 7명, 433호 8명, 434호 9명, 435호 6명)를 통합해 현재까지 총 125명의 동문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張世憲(화학공학41 - 46)동문:교수 조무원 인사발령통지서 및 봉투(1946년) ▲申雨雨(의학47 - 53)동문:강의 자료 등 ▲姜忠元(전기공학59 - 65)동문:대학 교재 및 수업 노트 등 ▲羅吉雄(경제61 - 65)동문:상과대학 버클(1965년) ▲金榮範(사회74 - 81)동문:문리과대학 문집 형성 4권 ▲경영대학 崔海永행정실장:사범대학 수료증서(1947년) 및 졸업증서(1951년), 경성여자사범학교 배지 등 <사진 참조>



동창회비·광고 및 업소룩비·기타 후원 동문(2014.7.1 ~ 9.7)

동창회비

- ▶Alabama 유성무(상대 66)
- ▶Arizona 김영철(공대 55) 지영환(의대 59)
- ▶California 강재호(상대 57) 강정훈(미대 56) 강중경(공대 48) 강철호(사대 58) 강홍제(상대 53) 계지영(문리 60) 고영순(음대 59) 고재천(공대 57) 권영덕(공대 54) 권오형(사대 61) 김강수(문리 59) 김건진(문리 62) 김계윤(의대 57) 김광은(음대 56) 김준빈(법대 56) 김기태(의대 54) 김낙구(상대 67) 김동산(법대 59) 김동호(농대 58) 김명환(문리 67) 김병호(상대 57) 김석홍(법대 59) 김선기(음대 59) 김순길(법대 54) 김순자(치대 57) 김영덕(법대 58) 김영희(사대 56) 김옥경(음대 69) 김원경(약대 59) 김 정(치대 59) 김정민(상대 58) 김정희(음대 56) 김준일(공대 62) 김창무(음대 53) 김태윤(법대 53) 김현왕(공대 64) 김혜숙(약대 77) 김희재(사대 66) 나두섭(의대 66) 남장우(사대 56) 류승일(의대 59) 문인일(공대 51) 박경룡(약대 63) 박경호(사대 53) 박부강(사대 54) 박성욱(상대 58) 박인창(농대 65) 박찬호(자연 81) 박취서(약대 60) 백동원(공대 65) 백길영(의대 58) 백승호(치대 55) 방정자(간호 61) 배병욱(음대 58) 백옥자(음대 71) 서동영(사대 60) 성낙호(치대 63) 손창순(공대 69) 신광재(공대 73)

- 신대식(상대 60) 신우석(치대 59) 심기련(상대 57) 심상은(상대 54) 심진숙(간호 68) 안병일(의대 63) 안병협(공대 58) 양은혁(상대 56) 양창효(상대 54) 연동해(농대 74) 윤희자(음대 68) 윤경자(약대 63) 이계승(공대 67) 이명선(상대 58) 이문상(공대 59) 이방기(농대 62) 이영일(문리 53) 이재룡(공대 71) 이정근(사대 60) 이정욱(공대 52) 이종묘(간호 69) 이종희(공대 53) 이재진(문리 55) 이현숙(사대 62) 임동규(미대 57) 임동호(약대 55) 임문빈(상대 58) 임정환(음대 76) 임창희(공대 73) 정규남(공대 52) 정동구(공대 57) 정동주(가정 72) 정예현(상대 63) 정재훈(공대 64) 정진수(공대 56) 정현진(간호 68) 정영혜(가정 71) 조동준(의대 57) 조정서(공대 60) 조경래(상대 65) 지중근(농대 56) 차재철(의대 62) 차종환(사대 54) 최경선(상대 65) 최영순(간호 69) 최종권(문리 59) 탁혜숙(음대 67) 하선호(치대 81) 현순일(문리 58) 홍준만(문리 58) 홍유현(음대 61) 황동하(의대 65) 황준오(치대 70)
- ▶Chicago 강수상(의대 48) 강영국(수의 67) 강화영(문리 50) 고병철(법대 55) 구경희(의대 59) 김갑중(의대 57) 김계균(공대 60) 김규호(의대 68) 김동희(공대 66) 김동희(의대 51) 김일훈(의대 51) 림영선(의대 54)

- 박영규(농대 57) 소진문(치대 58) 송진웅(농대 53) 이덕수(문리 58) 이소희(의대 61) 이승자(사대 60) 이시영(상대 46) 이영철(공대 60) 이용락(공대 48) 이종일(의대 71) 임근식(문리 56) 임현재(의대 59) 장세곤(의대 57) 장시경(약대 58) 전현일(농대 62) 정승훈(공대 60) 정영숙(사대 59) 제환수(사대 61) 조봉완(법대 53) 최대환(의대 53) 최희수(문리 67) 한의일(공대 62) 홍 건(의대 64)
- ▶Florida 박창익(농대 64) 송용덕(의대 57) 안창현(의대 55) 정영자(미대 58) 정진목(의대 50) 한기빈(공대 52) 황현상(의대 55) 홍순호(수의 74)
- ▶Georgia 김순옥(의대 54) 김영서(상대 54) 방창모(문리 49) 안승덕(상대 51) 오경호(수의 60) 이영진(공대 76) 임수암(공대 62) 임환용(공대 60) 정광호(공대 60) 정량수(의대 60) 정일화(상대 55) 최재학(사대 56)
- ▶Hawaii 김승태(의대 57) 김용수(농대 75) 김용진(공대 50) 장광수(사대 50) 최경윤(사대 51)
- ▶Heartland 김경숙(가정 70) 김명자(문리 62) 백산옥(문리 51) 이상강(의대 70) 장민재(농대 70)
- ▶Las Vegas 김택수(의대 57) 이 관(공대 55) 홍수홍(의대 59)
- ▶Michigan 고광국(공대 54) 김국화(공대 56)

- ▶Rocky Mt. 이석호(공대 66) 표한승(치대 58)
- ▶Carolina 이범세(의대 56) 홍훈(자연)
- ▶Texas 광노환(문리 48) 김동수(의대 60) 김한섭(의대 53) 김훈복(사대 58) 신달수(공대 50) 양덕주(문리 66) 유 황(농대 56) 이규진(약대 60) 이길영(문리 59) 이주희(음대 89) 전중희(공대 56) 진기주(상대 60) 최관일(공대 54) 최성호(문리 58) 최용천(문리 53) 탁승덕(사대 57) 황명규()
- ▶Utah 김인기(문리 58) 박정일(미대 48) 강연식(사대 57) 권오근(상대 58) 권철수(의대 68)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시환(공대 71) 김창희(공대 73) 김해석(공대 59) 남춘일(사대 60) 박경훈(상대 59) 박용수(의대 65) 박용걸(약대 56) 박인영(의대 69) 박일영(문리 59) 박정화(의대 61) 서운석(의대 62) 서진석(의대 62) 서휘열(의대 55) 석균범(문리 61) 송병준(약대 68) 신용계(의대 62) 안승건(문리 55) 안인옥(간호 71) 양광수(공대 73) 유덕영(공대 57) 이정상(농대 80) 이영수(공대 59) 이수안(공대 54) 이유세(사대 72) 이재승(의대 55) 이종두(의대 57) 이준영(치대 74) 임창주(공대 55) 임창규(공대 62)

2015.6~2016.6 회비선납

- ▶California 고영순(음대59) 김순자(치대57)
- ▶Chicago 조형원(약대50)
- ▶Philadelphia 송성균(공대 50) 송영두(의대 56) 정정수(의대 56) 200
- ▶Texas 진기주(상대 60) 200
- ▶DC. 김동훈(법대 56) 200
- ▶Wa.States 김석민(사대 55) 김선호(사대 59) 김영창(공대 64) 박진수(의대 56) 이길송(상대 57) 이동립(의대 52) 200

후원회비

- ▶California 김인국(문리 50) 300
- ▶Wa.States 김동호(농대 58) 200
- ▶Chicago 김동호(농대 58) 200
- ▶Hawaii 김승태(의대 57) 200
- ▶NY & NJ 김경준(법대 57) 200
- ▶Ohio 송용재(의대 63) 200

광고 및 업소룩

- Wilshire Bank 1000
- 김영도(공대 67) 1000
- 송용재(의대 63) 300

미주 동창회 대도약을 위한 후원

- ▶조형원(약대 50) 500
- ▶최지원(의대 55) 500
- ▶권철수(의대 68) 500
- ▶문광재(의대 68) 500
- ▶김길평(상대 62) 501
- ▶이충호(의대 63) 501
- ▶방은호(약대 43) 600
- ▶신창민(법대 60) 1,000
- ▶광노섭(수학 53) 1,000
- ▶권기현(사대 53) 1,000
- ▶조순자(문리 53) 1,000
- ▶한재은(의대 59) 1,000
- ▶최 철(의대 62) 1,000
- ▶이명선(상대 58) 1,125
- ▶이준행(공대 48) 2,000
- ▶차재철(의대 62) 3,000
- ▶강신호(의대 51) 3,000
- ▶이상강(의대 70) 5,000
- ▶손재욱(가정 77) 10,000
- ▶이병준(상대 55) 10,000

기타 후원

- ▶California 김동호(농대 58) 200
- ▶Wa.States 김동호(농대 58) 200
- ▶Chicago 김동호(농대 58) 200
- ▶Hawaii 김승태(의대 57) 200
- ▶NY & NJ 김경준(법대 57) 200
- ▶Ohio 송용재(의대 63) 200

1차년도 지역 동창회 분담금 납부 (괄호안은 서울 2013.7~2014.6)

- <일부 납부>
- ▶AL 100(100)
- ▶중부 Texas 200(200)
- <미납 동창회>
- ▶AR 0(200)
- ▶Carolina 0(100)
- ▶FL 0(100)
- ▶GE 0(400)
- ▶MN 0(400)
- ▶OH 0(200)
- ▶UT 0(200)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4년 7월 ~ 2015년 6월)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다음의 Tax 번호로 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TIN : 13-3859506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미주 동창회는 물론 모교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영문	단과대학 및 대학원:	입학연도:
주소:		전 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B)	(H)	(C)	(Fax) e-Mail:
관악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룩 광고비(6개월)	일반광고비
연 \$200 <input type="checkbox"/>	2014.7~2015.6 \$75 <input type="checkbox"/>	2014.7~2014.12 \$120 <input type="checkbox"/>	명함크기(3.5" x 2") \$120 <input type="checkbox"/>
연 \$500 <input type="checkbox"/>			1/6면 (5" x 4.5") \$200 <input type="checkbox"/>
연 \$1,000 <input type="checkbox"/>			1/3면 (10" x 4.5") \$400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1/2면 (10" x 6.7") \$600 <input type="checkbox"/>
			전면 (10" x 13.5") \$1000 <input type="checkbox"/>
			전면(Back 10" x13.5") \$1500 <input type="checkbox"/>
모넬 곳:1952 Gallows Rd., Suite 206, Vienna VA 22182 Tel(Fax):703-462-9083 e-Mail:snuuausa12@gmail.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703-462-9083>로()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CA 남가주

공인외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a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 L 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530-3630
12912B roc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213-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재정/보역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간호대 72)
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엔지니어링 컨설팅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건축/컨설팅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Santa Ana CA 92705

의료/약국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정수만 안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치과병원

황준오 D.D.S.
황준오(치대 73) 408-732-0493
877 W.Fremont Ave.#13
Sunnyvale CA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재정/ 컨설턴트

Michael Kim, CEO
김기형(상대 75)
3435 Wilshire Blvd. #2820 LA,CA 90010
213-505-8102(O) 626-722-7836
e-mail Michaelk@UnitedProjects.US
www.UnitedProjects.US

서비스/자동차/재정/보험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비영리법인 애양 극지에너지

International Society of Off 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Whisman Rd.
Ste.300 Mt.View CA 94043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교육

Teamspirit Investment & Dev.
이종모(간호대 69)
714-396-0624 949-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리테일러/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B)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우주개발/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714-952-2240
10874 Hope St.PO Box6034 Cyroress CA 90630
jct@taycoeng.com www.taycoeng.com

NY-NJ 뉴욕/뉴저지

공인외계사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917)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1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건축/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347-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0
Great Neck NY 11021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
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엔지니어링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495 N.Whisman Rd.# 300 Mt.View CA 94043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04-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동물병원/건축 설계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수의대 68)
215-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X 텍사스

산업/건축
C&C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713-466-1644
10350 Clay Rd., Ste.250 Houston TX 77041
kc@candcvalve.com www.candcvalve.com

MD,VA 워싱턴DC

지과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926-9692
6201 Greenbelt Rd.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shady Grove Ct.Gaithersburg MD20877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모터/기계/전기

Drivetech, Inc
엄달용(공대 69)
703-327-2797
Carrington Drive, Chantilly, VA 20152

재정/보험/컨설팅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자연대 82)
703-663-8400(O) 703-785-8467(C)
1952 Gallows rd.Ste 214 Vienna, VA 22182

NE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89113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O.7416 Beaverton OR.97007

동문신간

■ 내가 본 대한민국 - 金許男 지음

국회의원, 이북5도 연합회장 등을 지낸 신라문화선양회 金許男(행정49 - 52)이사장이 직접 체험한 대한민국의 성립과정과 현대 역사를 담은 책.
임시정부, 8·15 광복, 6·25 전쟁 전후의 대한민국을 소개하며 李承晩대통령부터 李明博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담았다.
金동문은 이 책에서 과거 역사를 바로 알고 잊지 말아야 하며,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창조를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성정보刊·비매품>

■ 예술이 어떻게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가? ■ 아이들에게 예술을 ■ 창의력, 문화력, 인격력 세 가지 힘을 키워라 ■ 아동화의 심층분석을 통한 심리진단과 치료 - 金在恩 지음

최근 이화여대 심리학과 金在恩(교육50 - 54)명예교수가 교육과학사를 통해 4권의 책을 펴냈다.
'예술이 어떻게 사람과 사회를...'은 예술이 일반 사회, 지역 공동체, 집단적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소개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예술을'은 음악, 미술, 무용,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21세기 교육에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책이다.
'창의력, 문화력, 인격력...'에는 세계와 역사를 넓게 보고 깊게 이해하는 안목을 지니면서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하며, 자기가 맡은 책무를 성실하게 다하는 인품을 지닌 지도자로 키우는 방법을 담았으며, '아동화의 심층분석을...'은 미술교육과 심리진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아동화에 대한 현장적, 임상적 적용 사례 등으로 엮었다.

■ 아버지의 광세 - 吳世鎭 지음

수필가 吳世鎭(의학59 - 65)동문의 산문집.
이 책에는 43편의 수필과 2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수필집 '등반이'를 上梓한 이후 3년 만에 펴낸 이번 책에는 특히 소설적 문체가 돋보이는 서사수필에 유독 강한 면모를 보이는 작가가 6·25전쟁을 겪은 세대만이 느끼고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다.
蘭臺 李應百선생이 '오세운의 산문은 시와 산문의 자유자재로운 交織'이라고 평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시적 이미지와 풍성한 이야기거리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강한 흡인력이 있는 산문집이다.
<수필과비평사刊·값13,000원>

■ 웃은 사람이다 - 宋明見 지음

동덕여대 패션디자인학과 宋明見(농가정63 - 67)명예교수가 '패션인 사이트'와 '아시아경제신문'에 발표했던 칼럼들을 모아 새롭게 엮은 책.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개인의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웃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자 하며 웃이 주는 경이로움, 살아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총 9개 파트로 구성돼 있으며 '패션의 위력', '우리 역사 속의 패션', '남성이 시작한 패션', '돈과 패션', '패션, 동서 문화의 융합', '패션으로 사회와 소통', '패션의 과도', '웃 속의 과학', '행복한 인생'의 주제로 나누어 저었다.
<이담북스刊·값15,000원>

■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 - 金孝全 지음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동아대 金孝全(대학원70졸)명예교수가 법관양성소와 근대 한국에 대해 다룬 이문서.
이 책은 전근대 국가 조선이 서양 문물과의 만남을 통해 근대 국가로 재탄생하게 되던 시기, 법률이 어떻게 성립됐는지, 그리

고 그 법률 제도의 탄생과 성립이 근대 한국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근대 한국의 전체적 조감도를 그렸다.
이 책에는 법관양성소의 설립 당초의 모습부터 정치적·사회적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법학교', '경성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등으로 이름이 바뀌어 가며 존속되다가 해방을 맞게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명출판刊·값61,000원>

■ 나는 북한의 대변인 변호인이었다 - 徐玉植 엮음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중재위원회 徐玉植(동양사학69 - 73 본보 논설위원)중재위원이 자신의 2010년 저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말말말'을 보완, 수정한 책.
盧武鉉 前대통령의 반 헌법-반 대한민국 어록을 정리한 이 책에는 특히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총 2백46분의 盧武鉉-金正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나타난 盧대통령의 NLL 포기, 북핵비호, 반미공조 발언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A4용지 총 1백3쪽에 달하는 대화록을 보면 盧武鉉대통령은 북한이 金大中정부시절인 1999년 서해 NLL 남쪽 대한민국의 영해 안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그들의 해상군사경계선, 그리고 우리의 NLL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 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金正日의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도서출판 도리刊·값20,000원>

■ 축구의 세계사 - 徐康穆 외 옮김

한신대 영어영문학과 徐康穆(영문78 - 82)교수가 千芝玄(영문83 - 87)·李廷進(영문92 - 99)동문과 함께 영국 출신의 스포츠전문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골드블라트의 작품을 우리말로 옮겼다.
'공은 둥글다'는 부제의 이 책은 인류문화 전체를 대상으로 축구의 기원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축구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하

편집후기

O...못난 아들의 사모곡(思母曲) = "한 번 나왔다 갈 수는 없겠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 그래, 이제 살아서는 다시 못보겠구나."
지난 6월 말 평의원 회의가 열리기 전 고국에 계신 어머님과 전화로 통화한 내역 중 일 부입니다. 그 뒤 어머님께서는 혼수상태와 반혼수상태로 2개월여만인 8월 20일 결국 저를 제외한 4남매가 지켜보는 가운데 작고하셨습니다.
향년 98세니까 천수(天壽)를 다하셨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너무나도 비통한 심정은 자식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질게 드리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신 어머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둘째 아들의 모습이나 마 보고싶어 하셨습니다. 혼수상태가 되시기 전까지는 또렷한 정신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못난 둘째 아들은 가뜩이나 연달아 늦어진 동창회보 7-8월호 마감에 9월호 준비 때문에 끝내 어머님의 소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천추의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후손이 먼저 불행을 당하는 경우 부모로서는 참척(慘慼)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단장(斷腸)보다 더한 비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잃게 된 자식의 입장에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끝내 어머님의

결을 지키지 못한 불효를 저질렀기에 더더욱이나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행은 쉬우나, 부모를 사랑하는 효행은 어렵다' 고 했습니다.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아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성현들의 말씀이 바로 저를 두고 한 말입니다.
1.4후퇴 당시 6남매를 이끌고 재산이라고는 Singer 재봉틀 한 대를 들고 월남하신 부모님은 그 힘들었던 피난 생활 속에서도 자식을 모두 교육시키셨습니다.
삼우제(三虞祭)까지 마치고 예흘만에 다시 동창회 사무실로 복귀해 9월호 마감이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너그럽게 해량(海諒)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조위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편집주간>



고, 축구계 내부적인 사항들이 각 나라의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들과 얽혀든 과정과 결과를 분석했다.
<실천문학사刊·값48,000원>

■ 혁명: 광활한 인간 정도 전 ①② - 金璋桓 지음

소설가 金璋桓(국문87 - 91)동문이 새롭게 기획한 '소설 조선 왕조실록'의 첫 작품.
향후 金동문은 조선 5백년 전체를 60여 권의 소설로 재구성해 조선의 흥망성쇠를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일 예정이다.
이 책은 그 첫 걸음으로 李成桂가 해주에서 낙마하는 순간부터 鄭夢周가 암살당하는 순간까지, 고려의 불꽃이 스러지고 조선의 동이 튼 18일의 광활하고 내밀한 비망록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일기체를 통한 비공식적 내면과 연월일 순으로 기록한 편년체를 통한 공식적 외면의 부딪침을 통해 鄭道傳이라는 인간이 원명 교체기라는 격동기와 어떻게 만나고 엇갈렸는지 그려냈다. 깊고 진지한 고뇌가 담긴 일기 속에서 혁명가가 어떻게 단련되는지 엿볼 수 있다.
<민음사刊·값 각권 12,500원>



고품격 한국여행

新 한국기행

고품격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한국 패키지 여행

한국 최초!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관광지를

‘빠르고 편안한 28인승 딜럭스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을 즐기고

에이스 여행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고품격 한국 패키지 여행**



SKYPASS 마일리지를
新(신)한국기행 여행상품 구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CE TRAVEL SERVICE
405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213-365-9990 -B
213-365-9996 -F
acetravella@msn.com
담당자 **Carol Lee**

에이스 여행사
Group reservation specialist
Hotel, Meeting, Mission, Tours and Business trip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용락(공) ·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명예회장 : 김은중(상)

제12대 회장 : 오인환(문)

차기 회장 : 손재옥(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 김인순(가정)
Brain Network담당 부회장 : 이재진(문)
미 주류사회 담당 부회장 : 공순옥(간)
관악세대 담당 부회장 : 이원영(사회)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권기현(사대)

상임고문 : 박윤수(문) · 이영목(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정평희(공) 총무국장 : 한정민(농)
조직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유홍열(자연)
광고국장 : 함은선(음) 사업국장 : 김정식(농)
섭외국장 :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 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 : 손재옥(가정)

회보 임원

발행인 : 오인환(문)
주필 : 백순법
편집위원장 : 장경태(사)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윤경의(공) · 서윤석(의) · 이윤주(상) · 이해덕(상)
정평희(공) · 김정식(농) · 진학송(약) · 함은선(음)
이나래(경) · 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김일훈(의) · 고병철(법) · 조동준(의) · 이재진(문)
최용완(공) · 정홍택(상) · 윤상래(수의) · 김창수(약)
차민영(의) · 이석구(문) · 김용현(경) · 유재풍(법)
장석정(법) · 하용출(사) · 민경훈(법) · 이원영(정)

회칙위원회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서중민(공) · 이민연(법) · 윤상래(수의)
김지영(사) · 신응남(농) · 함은선(음)

감사 : 박평일(농) · 주기목(수의)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 이기준 편집주간
snuaauskj@gmail.com. snuaausa12@gmail.com
*인쇄=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회장	이서희(법대 70) 213-840-2064 sleelapt@gmail.com	회계연도 Feb-Feb
	차기회장	박해옥(간호대 69) 818-952-2871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ua-nc.org	Jan-Dec
	부회장	박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뉴욕	회장	곽승용(의대 65) 347-506-0478 syngkwak@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hnee@comcast.net	
	차기회장	이경애(인문 73) 978-479-0046 kyungaelim@gmail.com	
달라스	회장	최연(공대 70) 817-919-3057 younchoy@sbcglobal.net	
	차기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룩키마운틴스	회장	김영일(법대 64) 719-321-9989 youngisaackim@hanmail.net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6-0040 woodlaw@yahoo.com	
	차기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샌디에고	회장	최홍수(자연대 87) 858-259-5273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부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briankim00@yahoo.com	
시카고	회장	김호범(상대 69) 847-657-8919 hkim@moogong.com	Jan-Dec
	부회장	김용주(공대 69) 630-235-9387 kimjongjoo@msn.com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56) 520-271-2601 younghan-oh@yahoo.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김기린(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C) wonlee@qbmintl.com	
	수석총무	임헌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정경완(자연대 83) 801-897-4060 Kyungwan@mathradar.com	
	부회장		
조지아	회장	김동현(상대 68) dhkimkim@hotmail.com	
	부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5@gmail.com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부회장	이주희(음대 89) 512-663-0931 Juhee.williamson@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전밤남(상대 73) jeonbana@gmail.com	Jan-Dec
	부회장	유기병(문리 64) 215-822-5248	
플로리다	회장	조동건(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차기회장		
캐로라이나	회장	정신호(자연대 78) 919-928-9696 sinho.jung@duke.edu	
	차기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대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김용수(농대 75) 808-394-2369 ykim@hawaii.edu	
	차기회장	성낙일(해양 77)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Jan-Dec
	부회장	최인섭(공대 75) inchoi@msn.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유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부회장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Dish Pizza Salads Soups Sushi

USDA ORGANIC

Seas Gift
SUSHI NORI

대표 이승훈(상대 74)

Jayone 562-633-7400
www.jayone.com

facebook.com/Jayone.Foods
twitter.com/JayoneFoods
youtube.com/user/Koreanfoodmart

877-HAPPY-81
장경태(사대 75)

JW 토닉 샴푸

HAPPY SEEDS INCORPORATED

novitausa
Something better for you

세정력의 차이!
욕실품격의 완성
노비타 비데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82구, 문리대) www.duo.co.kr

좋은사람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애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베테랑 커리어매니저: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리어매니저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회원검색: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6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재미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한스에서 미리 계획하는 일정들은 모두 한스 단독으로 진행되는 맞춤 여행 패키지들로 여행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직접 한스의 전문 인솔자가 모시고 가고 호텔 식사 모두 upgrade 된 고품격 패키지입니다. 모든 여행은 고객들의 신청에 따라 특별히 진행되며 어떤 여행 패키지도 10분 이상만 되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날짜와 원하시는 일정에 맞춰 맞춤 패키지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동창회, 친구들끼리 여러분들만의 특별 여행을 새롭게 만들어 드립니다.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했던 여행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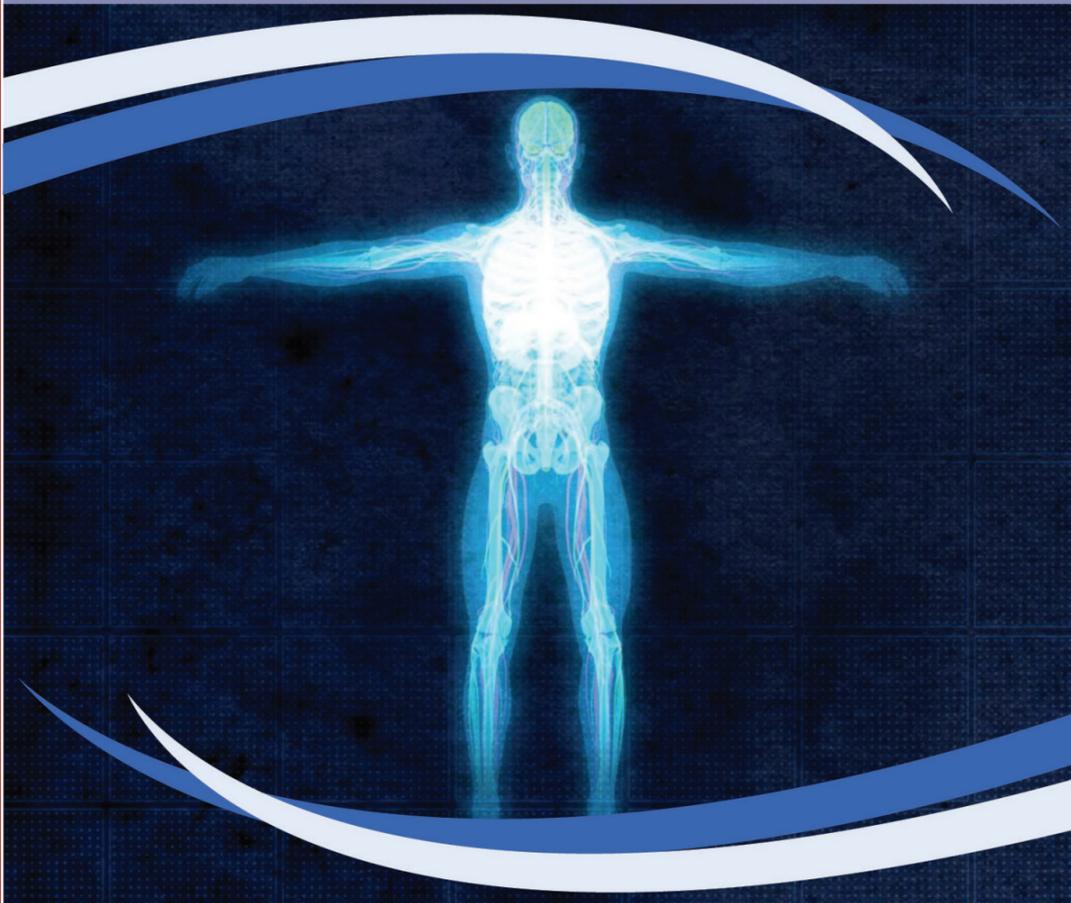
1차 2007년 11월 중해 크루즈 여행
2차 2008년 이집트와 나일 크루즈
3차 2009년 네덜란드, 인도 여행
4차 2010년 러시아, 발틱 여행
5차 2011년 레부, 브라질 여행
6차 2012년 발칸반도 9개국 여행
7차 2013년 아프리카 사파리 투어
8차 2014년 베네룩스 3국 투어

2014-2015년 한스관광이 직접 모시고가는 여행

- 5월4일 - 5월13일 - 2014년 SNU 단체 여행: BENELUX 3 COUNTRIES & NORMANDY, FRANCE 9박10일 "잘 다녀 왔습니다"
- 7월4일 - 7월14일 - AMAZING KOREA TOUR 6박7일 - 2세대를 위한 영어 가이드 투어
- 9월12일 - 9월21일 - BOHEMIAN EASTERN EUROPE 9박10일
- 9월21일 - 9월28일 - GREECE / TURKEY 12박13일
- 9월25일 - 10월12일 - PORTUGAL / MOROCCO / SPAIN 13박14일
- 10월7일 - 10월15일: 1차 / 10월15일 - 10월23일: 2차
- 10월23일 - 10월28일 - THE BEST OF CHINA, 서안, 장가계 계림 5박6일
- 10월23일 - 11월2일 중국(서안, 장가계, 계림) - 베트남 (하노이, 하롱 베이) - 캄보디아(양코랴트) 10박11일
- 10월28일 - 11월2일 - 1.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 캄보디아(양코랴트) 5박6일
- 10월27일 - 11월7일 - HOLYLAND & THE BEST OF JORDAN 11박12일
- 2월5일 - 2월15일 PATAGONIA SPECAIL 10박11일
- 2월7일 - 2월12일 - 여자들끼리 가는 PUNTA CANA GOLF TOUR 5박6일
- 3월29일 - 4월4일 - SPRING BREAK SPECIAL - SPAIN 6박7일
- 4월 10일 - 4월17일 - GREEK ISLAND CRUISE & ISTANBUL 7박8일.
- 4월14일 - 4월22일 - 고국 맛자랑, 멋자랑 남해안, 홍도, 흑산도, 해변열차 8박9일
- 4월17일 - 4월26일 - AMADEUS EASTERN EUROPE 9박10일
- 4월26일 - 5월9일 - PORTUGAL, MOROCCO, SPAIN 13박14일
- 5월4일 - 5월15일 - WESTERN EUROPE 11박12일
- 5월18일 - 5월28일 - NORTHERN SPAIN 10박11일
- 5월30일 - 6월7일 - TASTE OF SPAIN - SPECIAL 7박8일

HANS WORLD TRAVEL
Toll Free: 800-963-4267 / T. 703-658-1717, 301-770-1717, 410-480-9898
Fax. 703-658-3110,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KOREA-MARYLAND, USA BIO EXPO 2014



THE KOREA-MARYLAND, USA BIO EXPO 는 한. 미 간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최적의 정보 교류의 장입니다.

제 4 회 Korea-Maryland, USA Bio Expo 는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 사의 주최로, 미국 워싱턴 DC 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내 바이오산업의 심장부인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Baltimore)에서 개최됩니다. 본 박람회에는 해당 분야 최고의 연구진, 기업체, 투자자, 언론사,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참관객 여러분을 반겨드릴 것 입니다.

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학계 혹은 기업체 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파트너링 기회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장기 사업 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 박람회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올해 다시 참가하여, 새롭게 참가하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아주실 것 입니다.

귀하를 올해 메릴랜드주에서 개최되는 Korea- Maryland, USA Bio Expo 2014 에서 꼭 만나뵙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박람회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직통전화번호 +1 301-528-2200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월 26 일(일)부터 11 월 2 일(일) 까지 박람회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The Bio Road Across the World

시간 및 장소

2014년 10월 26일 - 11월 2일

Turf Valley
Convention Center
2700 Turf Valley Rd
Ellicott City, MD 21042

홈페이지: www.kmbioexpo.com

PROGRAM

한. 미 간 바이오 산업분야를 주도하는 기업, 학계간의 파트너링.
줄기세포, 메디컬 로봇틱스, 한의학 관련 포럼 개최.
학계, 기업체, 정부 관련 부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고의 강사진.

EXHIBITION

박람회에 참가하신 기업체 간부와 사무관들과의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SPONSORS

박람회를 후원하시거나 이를 통하여 홍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후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
20410 Observation Dr. Suite 105
Germantown, MD 20876

+1 301-528-2200
contact@jgbli.com

www.kmbioexpo.com